

保寧의 烽燧臺

보령문화연구회



외연도 봉수대

대 천 문 화 원

保寧의 烽燧臺

보령문화연구회



외연도 봉수대

대 천 문 화 원

발 간 사



대천문화원장 | 윤 병 배

우리는 現在 새로운 文明의 時代를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 文化는 生活의 餘暇가 아닌 生活의 必須이며 生活 그 自體입니다.
경제적 側面에서도 굴뚝産業의 時代를 지나 文化産業으로 進入한 것입니다.

우리民族은 5千年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며 文化民族의 主體性和 獨創性을 持續시켜 왔습니다.

卽 人間은 다른 動物과는 달리 大自然 속에서 人間 스스로가 創造한 生活環境과 넓게는 生活樣式인 文化를 가진것입니다.

특히 우리 保寧地方은 山과 들, 바다가 調和되어 어우러진 山紫水明한 곳으로 傳統文化가 多樣하게 傳해 오고 있어 祝福의 고장으로 萬世保寧이라 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地理的 與件으로 많은 島嶼와 긴 海岸線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많은 外侵이 있었으나 先烈들의 슬기로운 지혜로 이겨내어 오늘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이는 全國의 봉수대에 이어 西海岸의 방어의 일환책으로 충청수군절도사영을 비롯하여 오천성 그리고 도서지방과 陸地 요충지역에 있는 봉수대 등 여러 遺跡들이 立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高度의 知識情報社會의 發達과 物質文明 氾濫에 따른 生活環境의 急激한 變化等으로 文化的 傳統이 크게 毀損되면서 歷史的 資料들이 지닌 意味와 價値가 사라져가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봉수대에 관한 調査와 研究內容을 담아 冊으로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歷史의 물줄기에는 많은 變化가 豫想되는 此際에 더욱 뜻이 있고 先祖들의 魂을 찾으면서 地方化時代의 鄉土文化暢達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령의 봉수대의 뿌리를 찾아 脈을 이으려고 努力은 하였으나 어려운 점이 많아 名實共히 鄉土文化一環인 保寧봉수대誌로서 未洽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므로 앞으로 많은 叱責을 바랍니다.

우선 책자를 발간토록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이시우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黃義虎 先生님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12. .

인사말씀



보령시장 | 이시우

우리 보령은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후덕한 축복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만세지보령'이라 불려 왔습니다.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상 많은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 보령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해안 방어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는 서해안 방어를 책임지는 충청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오천의 충청수영성을 비롯하여 봉수대 등 여러 유적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소중한 역사와 유적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소홀히 해 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학계를 중심으로 봉수제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대천문화원에서 과거 외적의 침입을 신속하게 중앙에 전달하는 기능을 했던 우리 보령지역 봉수대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내용을 담아 책으로 발간하게 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보급하는 것은 선조들의 빛나는 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아 후세에 전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봉수대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임은 물론 보령지역에 위치한 많은 봉수 유적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령의 봉수대 책자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책자 발간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 12. .

인사말씀



보령시의회의장 | 임대식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여망 속에 『보령의 봉수대』를 출판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령시민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병배 대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2년여 기간동안 문헌자료수집과 현지조사 확인 등 연구노력하여 좋은책자를 출판토록 해주신 최철한 보령문화연구회 회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간한 보령의 봉수대를 통하여 조선시대 봉수대를 이해하여 디지털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이 선조들의 지혜를 폭넓게 이해하고 역사유적을 발굴함으로써 우리의 뿌리를 찾아내고, 특히 우리학생들의 무한한 탐구능력과 우리시민 모두에게 지식의 폭을 넓혀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양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모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지역의 연구결과가 서적으로 편찬됨으로 인하여 지역문화의 자부심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든 시민들이 새롭게 접하는 봉수제도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우리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다시 한번 보령의 봉수대 발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3
II. 조선 시대 봉수제도와 운영	5
1. 시설	5
가. 연대(烟臺) 나. 연조(烟竈)	
2. 요원(要員)	5
3. 전보(轉報)	6
4. 봉수선로(烽燧線路)	7
III. 보령 지역의 봉수대	8
1. 육지봉수(연변봉수)	9
가. 현존하는 보령 지역 육지봉수 유적	9
1) 홍양곶봉수대 2) 조침산봉수대	
3) 옥미봉봉수대 4) 등경산봉수대	
5) 신흥리 봉산봉수대 6) 덕산봉수대	
7) 통달산봉수대 8) 대천리산성 봉수대	
나. 보령지역 육지봉수에 대한 논의	51
1) 15세기(세종실록지리지)의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2) 16세기(신증동국여지승람)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3) 17세기(동국여지)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4) 18세기(여지도서)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5) 봉수대의 폐지·이설·신설에 대한 고찰	
2. 도서(島嶼)지역의 권설봉수(權設烽燧)	68
가. 현존하는 충청수영 권설봉수 유적	68
1) 어청도봉수대 2) 외연도봉수대	
3) 녹도봉수대 4) 원산도봉수대	
5) 망해정봉수대	
나. 충청수영 권설봉수에 대한 논의	95
1) 우리나라 권설봉수와 충청수영 권설봉수	
2) 충청수영 권설봉수의 위치	
3) 충청수영 권설봉수의 설치 이용시기	
4) 충청수영 권설봉수의 특징	
IV. 맺는말	105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상 많은 외침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국방 대책이 있어왔지만, 변방의 외침 정보를 신속히 중앙에 전달하여 범국가적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외침 대비와 관련하여 국방상의 통신 수단으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봉수제도가 발달하여 왔다.

그러나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 봉수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 자료나 유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할 뿐이고, 조선 시대의 봉수제도와 그 운영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자료와 유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봉수제도의 구체적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조선시대 봉수제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¹⁾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적 차원의 봉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²⁾

그런데 지역적 차원의 봉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반적인 단계가 아니고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여, 또한 많은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 봉수 연구의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민과 향토사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령 지역도 해안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은 봉수유적이 남아있는 관계로 그동안 지역의 봉수에 대하여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문헌에 의한 언급에 불과했으므로 정확한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

-
- 1) 金鎬逸, 「烽燧考」, 『文耕』17, 중앙대문리대학생회, 1964.
許善道, 「烽燧」, 『韓國軍制史』, 육군본부, 1968
南都泳, 「봉수제도」, 『서울 육백년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77.
南都泳, 「조선 시대의 봉수제도」, 『고시연구』7월호, , 1978.
南都泳, 「朝鮮時代 軍士通信 組織의 發達」, 『韓國史論』, 국사편찬위원회, 1981.
陳庸玉, 「한국봉수제도의 현대 통신공학적 분석」, 『한국통신학회 1982,1983학년도 추계 학술 발표회 논문집』, 1983.
許善道, 「近世 朝鮮 前期의 烽燧制(上)」, 『韓國史論叢』, 국민대국학연구소, 1985.
許善道, 「近世 朝鮮 前期의 烽燧制(下)」, 『韓國史論叢』, 국민대국학연구소, 1986.
方相鉉, 「朝鮮 前期 烽燧制」, 『史學志』14, , 단국대사학회, 1980.
李元根, 「韓國烽燧制考」, 『인문학보』4집, 강릉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李元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下)」,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등이 있다.
 - 2) 姜仁中, 「부산 지방의 봉수대 연혁 및 위치고」, 『朴元杓先生回甲記念釜山史論叢』, 1970.
孫德榮, 「朝鮮時代 公州地方의 烽燧에 대한 考察」, 공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金一來, 「朝鮮時代 忠清道 地域의 沿邊烽燧」,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1.
金中圭, 「18세기 군산지역 봉수대의 폐지 및 이설에 따른 위치 및 명칭 확인」,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논문집』, 전국문화원연합회, 2002.

고, 더 나아가 행정기관에서는 지역 문화재 현양 차원에서 몇 개의 봉수대를 복원 하기도 하였으나³⁾ 내용 파악이나 전문가의 고증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중요한 문화재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동기는 보령 지역의 봉수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내용과 특징을 알려 봉수대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제고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하고자 함이었다. 본고는 연구 대상의 특성상 2년여의 시간이 소비되었고, 선행 연구, 문헌 조사, 자료 조사, 현지 답사, 지역주민 탐문, 지명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어려웠던 점은 우리나라 봉수제도가 혁파된 지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봉수대의 파괴 뿐 아니라 봉수대와 그 주변이 대부분 가시덤불과 나무들에 의해서 가리어져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덩굴을 모두 제거하고 그 실측을 통하여 도면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전체적 형체를 파악하였다.

보령지역의 봉수는 웅천천 하구를 중심으로 한 남포진(藍浦鎭) 설치, 보령시 오천면에 충청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관계로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해안 방어의 중심지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현재 파악된 봉수 유적은 12개 處에 이른다. 그리고 현재는 전북 군산의 행정 구역이 된 어청도봉수까지 합하면 13개 處가 된다. 한 지역에서 이러한 봉수 유적은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8개 處는 우리나라 직봉(直烽) 제5거(炬) 중 충청 해안을 지나는 간봉(間烽) 노선 봉수의 일부이며, 5개 處는 충청수영이 外洋 방어와 관련하여 섬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한 권설봉수(權設烽燧)이다.

이러한 보령지역의 봉수에 대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위치를 알리기보다는 그 정확한 위치와 노선 변화 과정 파악, 그 운영 실태, 그리고 봉수대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해서 보령지역 봉수대의 특징을 구명해봄으로써 조선 시대 보령 지역이 우리나라 국가 방위 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역 봉수 연구의 중요성에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3) 2000년 보령시에서는 옥미봉 봉수대, 조침산 봉수대를 복원하고, 홍양곶 봉수대 복원을 시도 하면서 훼손하였다.

II. 조선 시대 봉수제도와 운영

1. 시설

가. 연대(烟臺)

연대는 연변봉수(沿邊烽燧)에서 아무런 방벽(防壁)이 없기 때문에 적의 침입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 세종실록에⁴⁾ 의하면 연변봉수에는 연대를 높이 쌓되 높이는 25척, 주위 70척, 臺下 4면의 넓이 각 30척으로 하고, 그 바깥에 깊이와 너비 각 10척의 참호를 둘러 파고, 다시 그 바깥쪽에는 위 부분을 뿔족하게 깎은 길이 3척의 말뚝을 박아 말뚝올타리를 설치하였는데, 너비는 10척으로 한 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대 위에는 假家를 지어 火器를 비롯한 각종 병기와 일상 생활용구를 간수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연대는 봉수군이 臺上에서 항상 주야로 후망(後望)함은 물론 적의 침입 시에는 화포로 소리를 내어 부근의 백성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를 방지하려는 요새적 성격을 띤 것이기도 하였다.⁵⁾

나. 연조(烟籠)

연조는 내지 봉수에 있어서 연대를 쌓지 않고 불이나 연기를 피우기 위해 아궁이(烟)만을 시설한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에⁶⁾ 의하면 연조는 위험도가 적은 내지 봉수에 설치한 것인데, 연대를 쌓지 않고 연조만을 종전의 봉수가 있던 峰頭에다 방형 또는 원형으로 쌓되 그 높이는 10척을 넘지 못하게 하고 둘레에는 원장(垣牆)을 쌓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성종 6년(1475) 이후 모든 봉수에는 연대나 연조 위에 반드시 연통(烟簫)을 만들어 풍란(風亂)으로 주연(晝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2. 要員

조선시대 봉수의 관장은 중앙은 병조에서, 지방에서는 수령의 책임 아래 감사 병사 수사 도절제사 순찰사 등 모든 군사 책임자가 그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감사와 수령은 행정상의 책임자일 뿐이고 실제의 직무는 군사 책임자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수령은 봉수군이나 오장 즉, 감고의 망보는 임무가 성실한가를 감시 감독 하여 연대책임을 졌으며, 이들에게 사무를 맡기고 출근은 물론 봉수대 시설의 이

4) 세종실록, 세종 29년 3월 丙寅條
5) 南都泳, 「朝鮮時代 軍士通信 組織의 發達」, 『韓國史論』, 국사편찬위원회, 1981.
6) 세종실록, 세종 6년 5월 乙亥條.

을 대체로 계승하였으나, 4군과 6진의 설치 등을 감안할 때 세종 28년에 전국의 봉수망이 새로이 劃定되어 연변봉수를 제외한 내지봉수의 기간배치가 경국대전 봉수조에 규정됨으로써 조선시대 봉수망의 원형이 이루어졌다.¹³⁾

조선시대 봉수선로는 전·후기를 통하여 개편된 경우가 적다. 그러나 봉수망은 산세나 기후 수목 등으로 看望에 불리한 곳이 있거나, 정치 군사상의 정세 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신설이나 이설의 개편이 있었다. 그러나 봉수 선로의 개편은 국가 전체 정보망의 변경을 의미하며, 또 이에 따른 봉수대 축조·봉줄배치 등 현실적인 부담이 컸으므로 국가에서 크게 통제 내지 견제하였다.¹⁴⁾

오늘날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봉수선로 상황을 알려주는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 五路의 주요 선로를 직봉(直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동북 두만강변의 牛巖(경흥 서수라), 동남 해변의 鷹峰(동래 다대포), 서북 압록강변의 餘屯臺(강계 만포진)와 古靜州(의주) 서남 해변의 突山浦(순천 防踏鎭)을 기점으로 하여 모두 서울의 목덕산(남산)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직봉(直烽)외에 간봉(間烽)이라는 보조선이 각 직봉 선상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직봉 사이의 중간 지역을 연결하는 것과, 국경 방면의 전선 초소로부터 本鎭 本邑으로 보고하는 것이 있다.

한편 조선시대 봉수대 총수는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549개,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 738개, 여지도서(1760)에 518개, 대동지지(1864)에 510개, 증보문헌비고(1903)에 673개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¹⁵⁾

Ⅲ. 보령 지역의 봉수대

보령 지역은 조선시대 보령현과 남포현의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 보령현과 남포현을 합하고 홍주목에 속했던 홍양곶 지역까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홍주목 소속이던 보령 앞바다의 여러개의 도서(島嶼)지역까지도 보령지역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보령지역의 봉수대는 육지봉수와 섬 지역의 도서봉수대 유적이 남아있다. 따라서 보령지역의 봉수대를 육지봉수(陸地烽燧)와 도서지역의 권설봉수(權設烽燧)로 나누어 현장 답사를 통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藍浦鎭과 忠清水營을 중심으로 한 관방체제와 관련하여 그 위치와 변화과정, 그리고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3) 허선도, 앞의 논문, 1986, p95.

14) 허선도, 앞의 논문, 1986, p96.

15) 허선도, 앞의 논문, 1986, p99.

각 봉수대의 명칭은 기록 확인이 되는 곳은 기록의 명칭을 사용하고,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은 현재의 지명에 붙여서 명칭하였다.

1. 육지봉수(연변봉수)

가. 현존하는 보령지역 육지 봉수유적

1) 홍양곶 봉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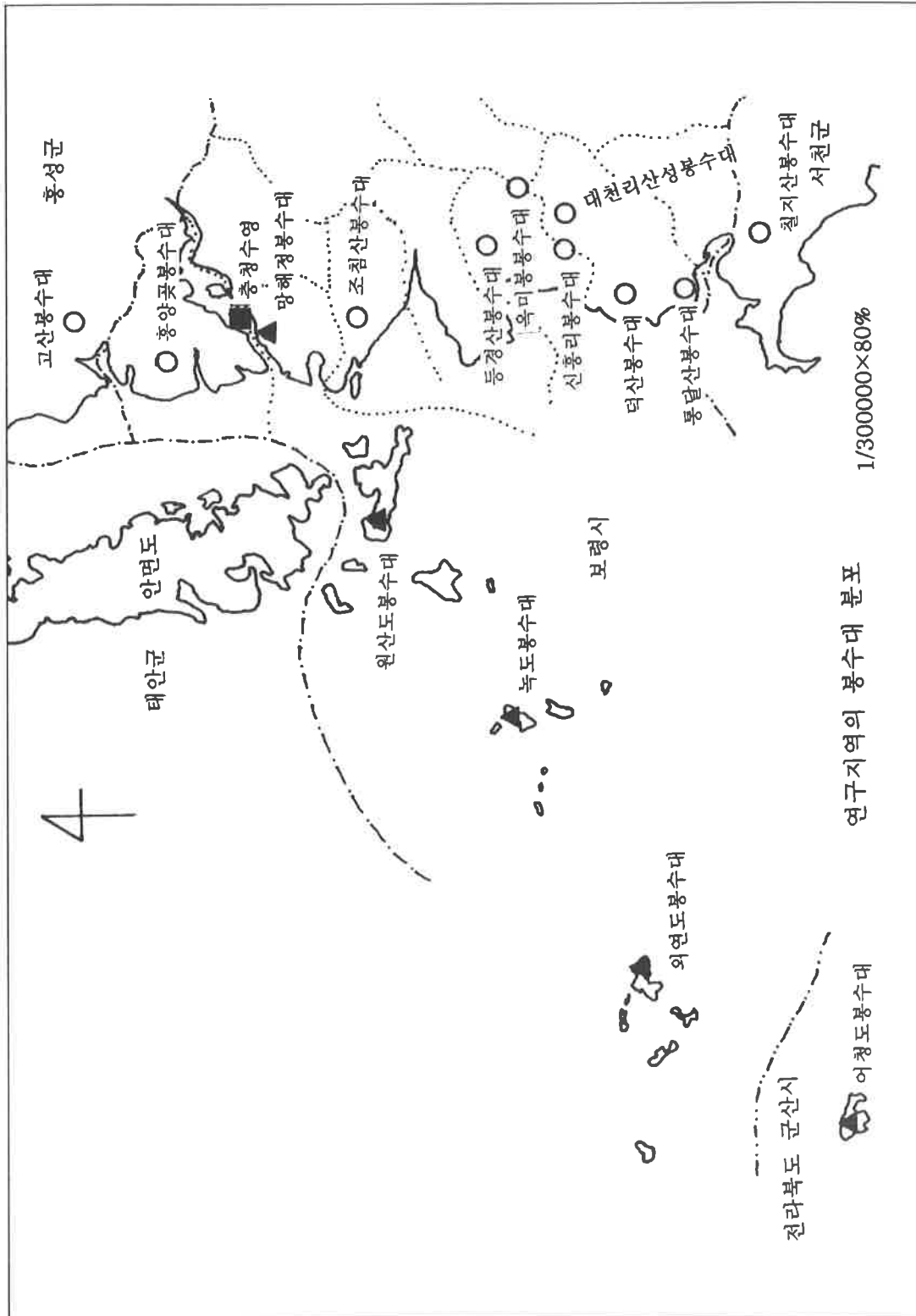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와 장은리의 경계에 있는 봉화산 정상(202.6m)에 위치한다. 천북면 하만리, 사호리, 장은리 등지에서 오를 수 있는데, 장은리에서 사호리로 통하는 한티고개로 난 임도가 있어 한티고개에서 오르는 길이 가장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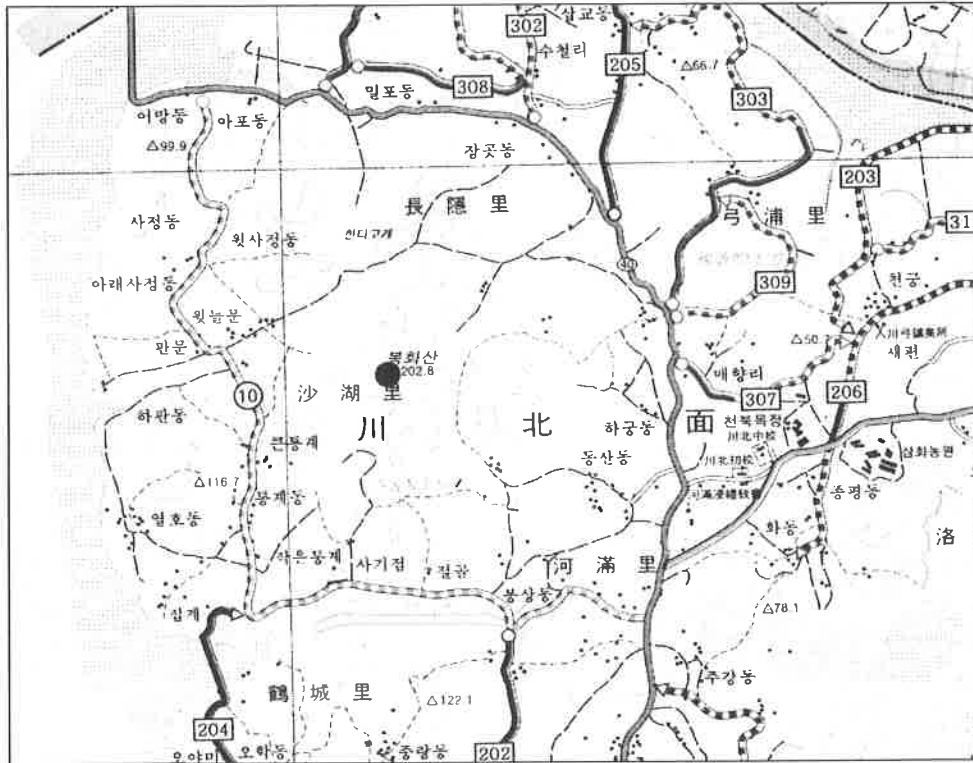
이 봉수대는 조선시대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에 있는 조침산 봉수대에서 받아 홍성군 결성면 고산 봉수대로 전하는 봉수대였다. 조침산 봉수대와는 도상거리로 12km, 고산 봉수대와는 6.75km이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호를 두르고 가운데가 좀 높게 만들어져 있고, 주변에 조선시대 기왓장이 흩어져 있었다. 기왓장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봉수군이 거주하던 시설이나 연료를 저장하던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보령시에서 봉화대를 복원한다고 중장비를 동원, 평탄작업을 하여 유구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현재는 산 정상에 동서 22m, 남북 23.5m의 평지가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다. 평지의 가운데에는 5.5m×3.3m의 사각형 돌무더기가 있는데, 평탄작업 중 노출된 기반암과 주변에 흩어진 기와조각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옥미봉 봉수대나 조침산 봉수대처럼 원통모양의 봉수대를 만들 예정이었으나 지역문화단체인 보령문화연구회원들의 잘못된 복원이라는 지적 때문에 중단하고 잔디를 심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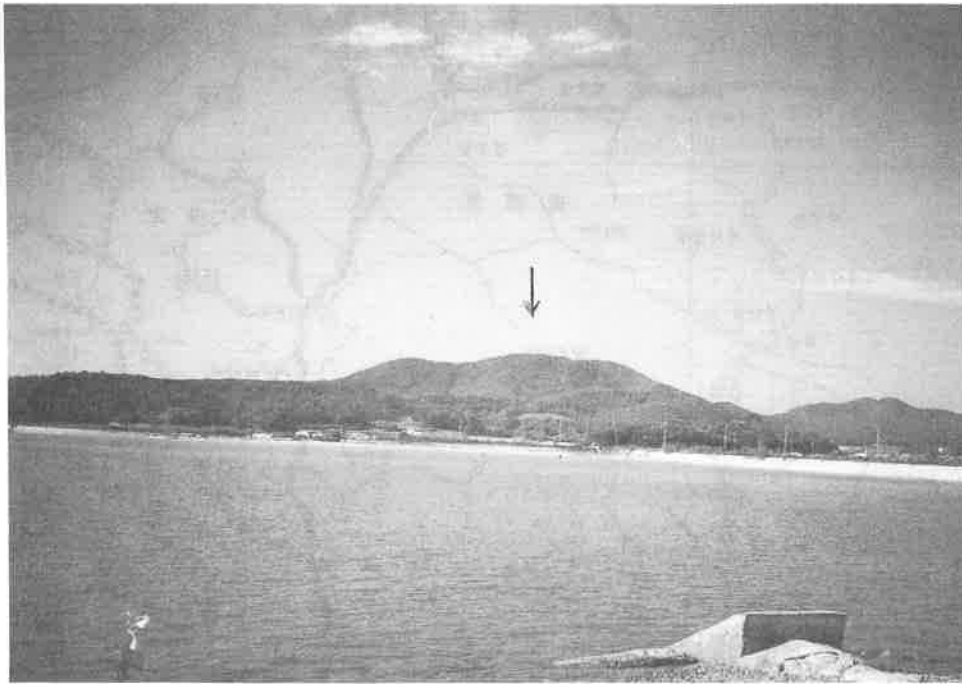




홍양窟崩수대의 위치



홍양窟崩수대지(2004. 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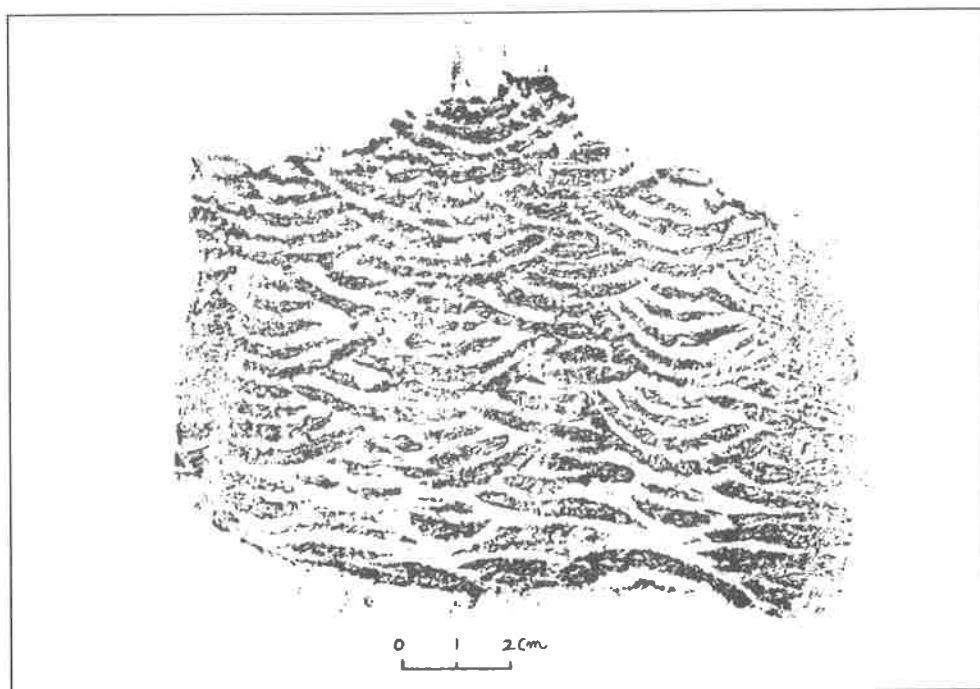
천북 학성리에서 바라본 홍양곶봉수대(2003. 8. 12)



결성 고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홍양곶봉수대(2004. 4)



홍양꽃봉수대지 출토 기와와 그릇 조각(2004. 3. 14)



홍양꽃봉수대지 출토 기와

2) 조침산 봉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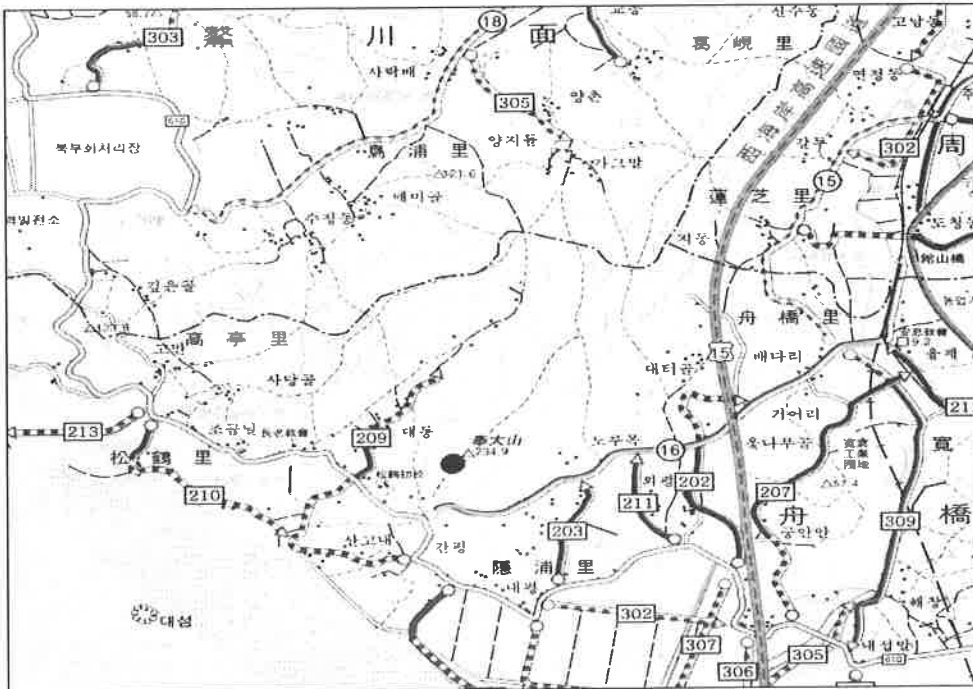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와 은포리 사이에 있는 봉대산 정상부 남쪽 봉우리에 위치한다. 봉수대 바로 북쪽에 삼각점이 있는데 해발고도는 228.9m이다. 주교면 소재지인 주교 마을에서 보령화력발전소로 통하는 도로의 '옥고개'에서 북쪽으로 난 능선을 따라 오르면 된다. 송학초등학교의 뒤쪽이다.

이 봉수대는 남쪽의 옥미봉 봉수대에서 받아 북쪽 천북면 사호리 홍양곶 봉수대에 전하였다. 옥미봉 봉수대와는 도상거리로 14km, 홍양곶 봉수대와는 12km 떨어져 있다.

이 봉수대도 2000년 보령시에서 훼손하였으나 중장비가 올라오지 않아 기초부분은 상당히 원형대로 남아있다.

봉수대의 최 외곽에는 폭 2m 깊이 1m 정도의 웅덩이가 있다. 이 웅덩이는 남쪽 능선과 연결되는 부분만 있고 동쪽과 서쪽 급경사지에는 삭토를 해서 쌓은 평탄지와 급경사지만 있다. 이어서 2m 정도의 급경사지가 있으며 동서 8.5m 남북 10.5m, 높이 1m 정도의 타원형 축대가 있다. 이 축대는 2000년에 쌓은 것으로 일부 구간은 원형이고 일부 구간은 다시 쌓은 것이다. 이 축대 위에 직경 4m의 원통 모양 돌기둥을 쌓고 아궁이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모두 2000년에 만든 것이다. 당시 발굴이나 고증 작업 없이 추정으로만 만든 것이다. 원형과는 거리가 멀다.

봉수대의 북쪽에는 넓은 평지가 있어 봉수대의 지원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침산봉수대의 위치



조침산봉수대의 원래 모습(1998. 2.)



조침산봉수대의 훼손 모습(200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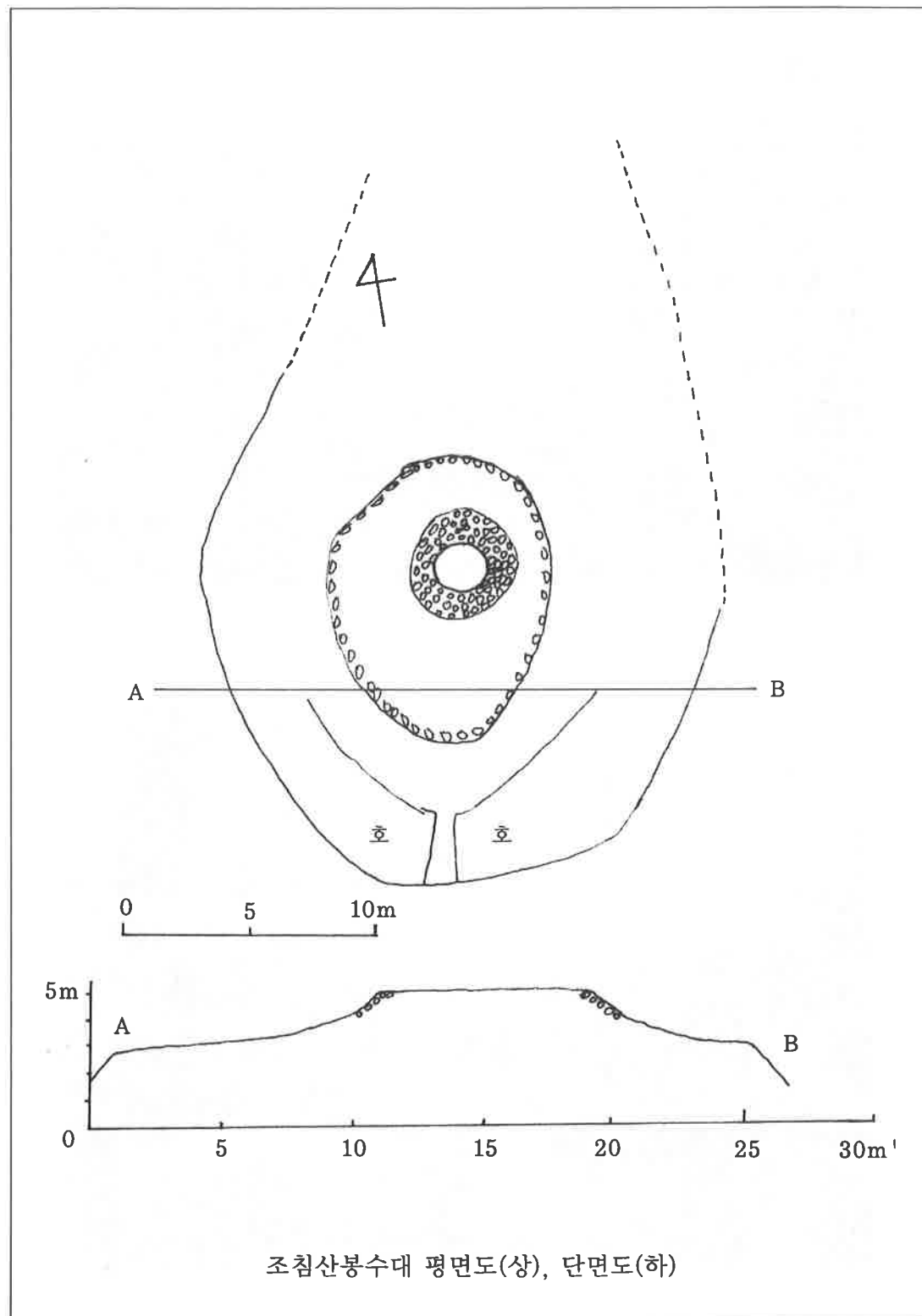
조침산봉수대의 현재모습(2004. 3. 14)



조침산봉수대 남서쪽 호(2004. 3. 14)



조침산봉수대 남동쪽 호(2004. 3. 14)



3) 옥미봉 봉수대

보령시 남포면 사현리와 웅천읍 두룡리·수부리의 접경에 있는 잔미산의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해발고도는 416.8m이다.

21호 국도의 이어니재 남쪽 오석공방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산 능선을 타고 오른다. 이 봉수대는 비인 칠지산 봉수대에서 받아 주교면 조침산 봉수대에 전하였다. 칠지산과 조침산과의 직선 거리는 도상거리로 모두 14km이다.

옥미봉 봉수대 주변에는 서쪽으로 2.2km 떨어진 남포면 신흥리 봉산 봉수대 터, 서남쪽으로 6.5km 떨어진 웅천읍 죽청리 봉오재 봉수대 터, 9.25km 떨어진 웅천읍 소항리 통달산 봉수대 터가 있으며, 남쪽으로 2.2km 떨어진 곳에는 옛 봉수대 지로 보이는 대천리산성이 있다. 봉수대는 삼각점이 있는 산 정상에 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104m 떨어진 곳에는 돌담장이 남아 있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능선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만들었는데 뚜렷하지는 않지만 5개의 봉대가 보인다. 남쪽에 있는 봉대가 가장 크고 뚜렷한데, 둘로 직경 11m 정도의 원형 축대를 만들고 가운데에 봉돈을 만들었다. 최근까지 흔적이 뚜렷하였으나 2000년 보령시에서 봉수대를 복원한다고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 굴뚝처럼 만들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고증을 거친 것도 아니고 유구를 고려해서 쌓은 것도 아니다. 다만 기초가 되는 축대의 대부분은 원형이다.

남쪽 봉돈 북쪽으로 4개의 봉돈 흔적이 보인다. 이것은 모두 직경 2m 정도이고 1~2m 간격으로 있다. 이것들은 축대도 없고 산 능선 위에 원형으로 1줄의 돌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

남쪽 축대 남쪽 4m 지점까지는 호를 만들었고, 호 밖에는 담의 흔적이 있고 문지(門址)도 보인다. 문지의 폭은 180cm이다. 문지의 동쪽에는 폭 120cm, 길이 400cm 정도의 돌담 흔적이 있다. 축대의 동쪽과 서쪽 급경사지는 삭토하여 내려쌓아 평탄지와 급경사지를 만들어 방어에 이용하였다.

봉수대지 남쪽 104m 지점의 평탄지에는 24m×17m 정도의 타원형 돌담 흔적이 있다. 돌담의 폭은 150cm, 높이는 남아있는 것이 약 130cm 정도이다. 이 돌담 동쪽에는 평탄지가 있고 주변은 온통 신하대로 덮여 있다. 이곳은 봉수대의 연료를 저장했던 곳으로 보여지고 동쪽의 평탄지는 건물지이고 신하대는 건물지 주변에 방풍림으로 심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미봉봉수대의 위치



옥미봉봉수대(2004. 3 21)



옥미봉봉수대-서쪽(2004. 3. 21)



옥미봉봉수대-동쪽(2004.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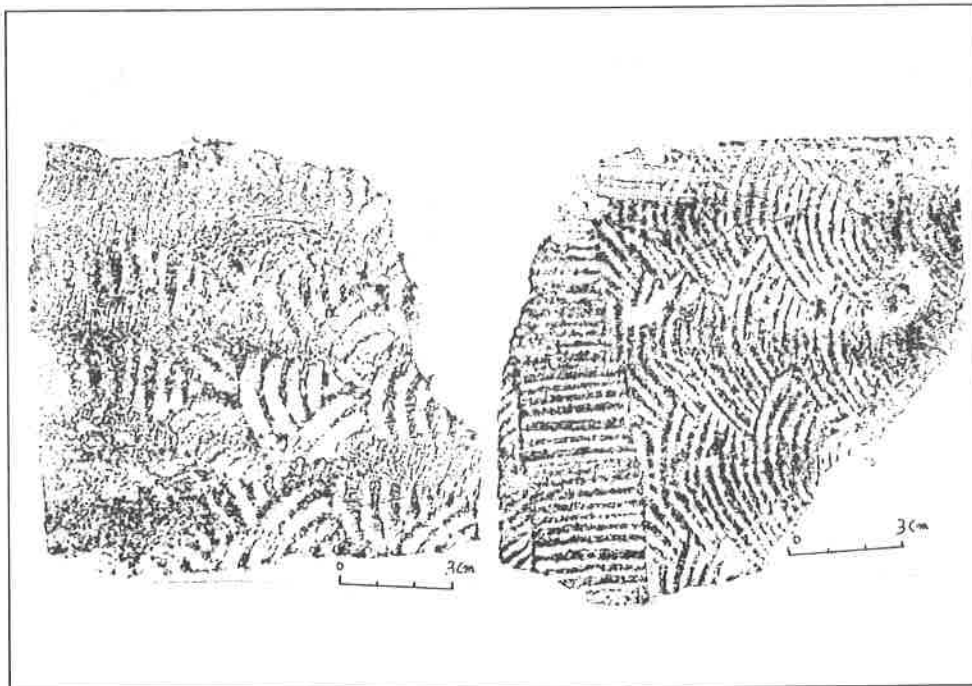
옥미봉봉수대-북쪽(2004.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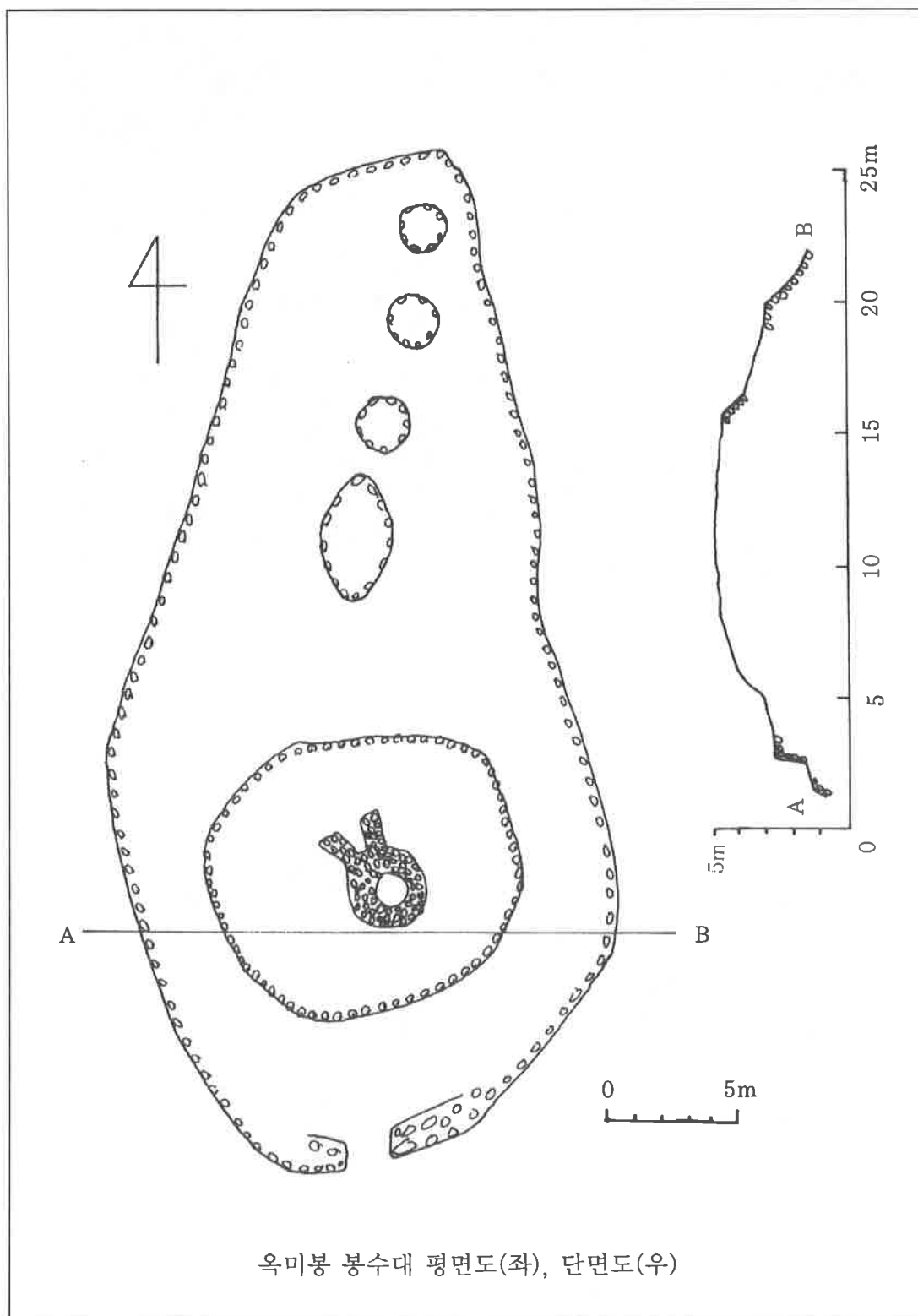
옥미봉봉수대-부속시설(2004.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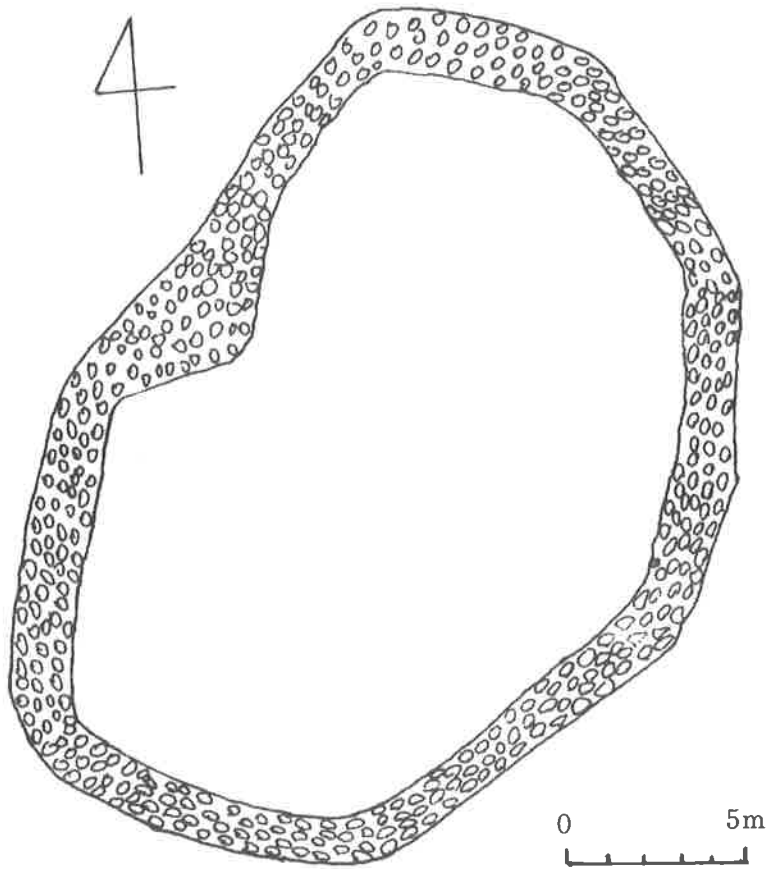
옥미봉봉수대-부속시설(2004. 3. 21)



옥미봉봉수대 부속시설 출토 기와



옥미봉 봉수대 평면도(좌), 단면도(우)



옥미봉 봉수대 부속시설

4) 등경산 봉수대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 소뱅이 마을과 제석리 사이에 있는 등경산 정상(해발 180.2m)에 있는 봉수대이다. 봉수대 주변은 석성(石城)으로 둘러져 있어 봉수대가 있는 봉우리를 마을에서는 '태봉'이라고 부른다.

제석리, 소송리에서 오르는 길도 있지만, 남포면 봉덕리에서 제석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꼭대기에서 오르면 편리하게 오를 수 있다.

봉수대는 산 정상부에 있는데, 석축으로 7m×8.5m 정도의 원형 축대를 쌓고 주변은 1.5m~2m 정도의 도랑을 둘렀으며 도랑 밖으로 1.5m~2m 정도의 돌담을 쌓았다. 돌담의 높은 곳은 약 2m쯤 된다. 그 뒤로 1.5m~2.5m의 도랑을 다시 둘렀다. 이 도랑 밖으로는 폭 1m~2m의 독을 쌓았다. 봉수대의 동쪽과 서쪽은 도랑이 메워져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봉수대의 동쪽에는 능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 직경 10여 m의 평탄지가 있고 서쪽에도 남북으로 비슷한 평탄지가 있어 봉수대를 지원하던 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봉수대의 주변에는 석성의 흔적이 뚜렷하다. 성은 모두 무너져 있지만, 나무가 자라지 않아 멀리서도 성의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성의 남북 폭은 82m, 동서 폭은 103m 정도이다(돌무더기 상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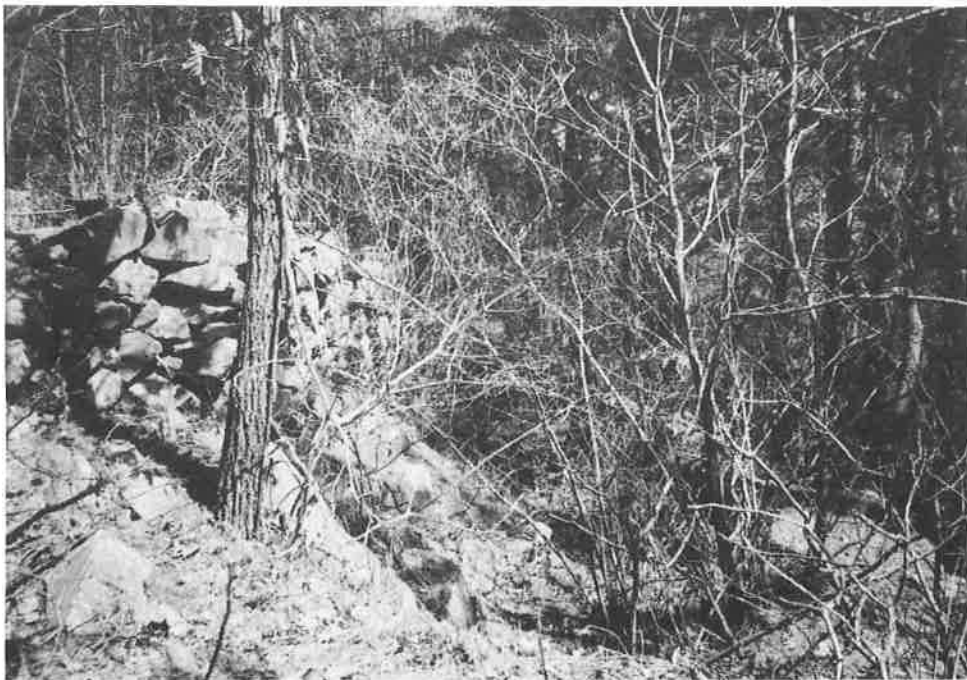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20여년 전 주민이 토끼를 기른다고 봉수대를 훼손했다고 한다. 석축 부분 중 일부는 토끼를 기르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석성 주변에서는 파도무늬 기와편, 백자편, 시루편 등이 발견된다.

옥미봉 봉수대와는 5.1km, 웅천읍 죽청리 봉오재 봉수대와는 9.4km, 신흥리 봉산 봉수대와는 5km, 주교면 조침산 봉수대와는 8.9km, 통달산 봉수대와는 12.9km 떨어져 있다.



등경산봉수대-남쪽(2004.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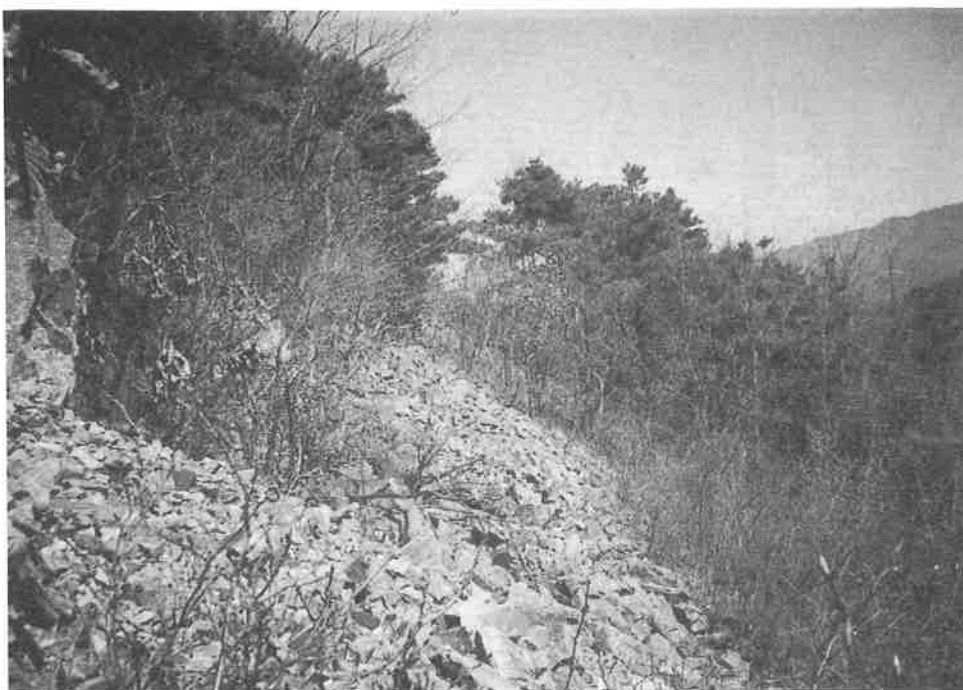
등경산봉수대 서남쪽(2004. 3. 28)



등경산봉수대 남쪽 호(2004.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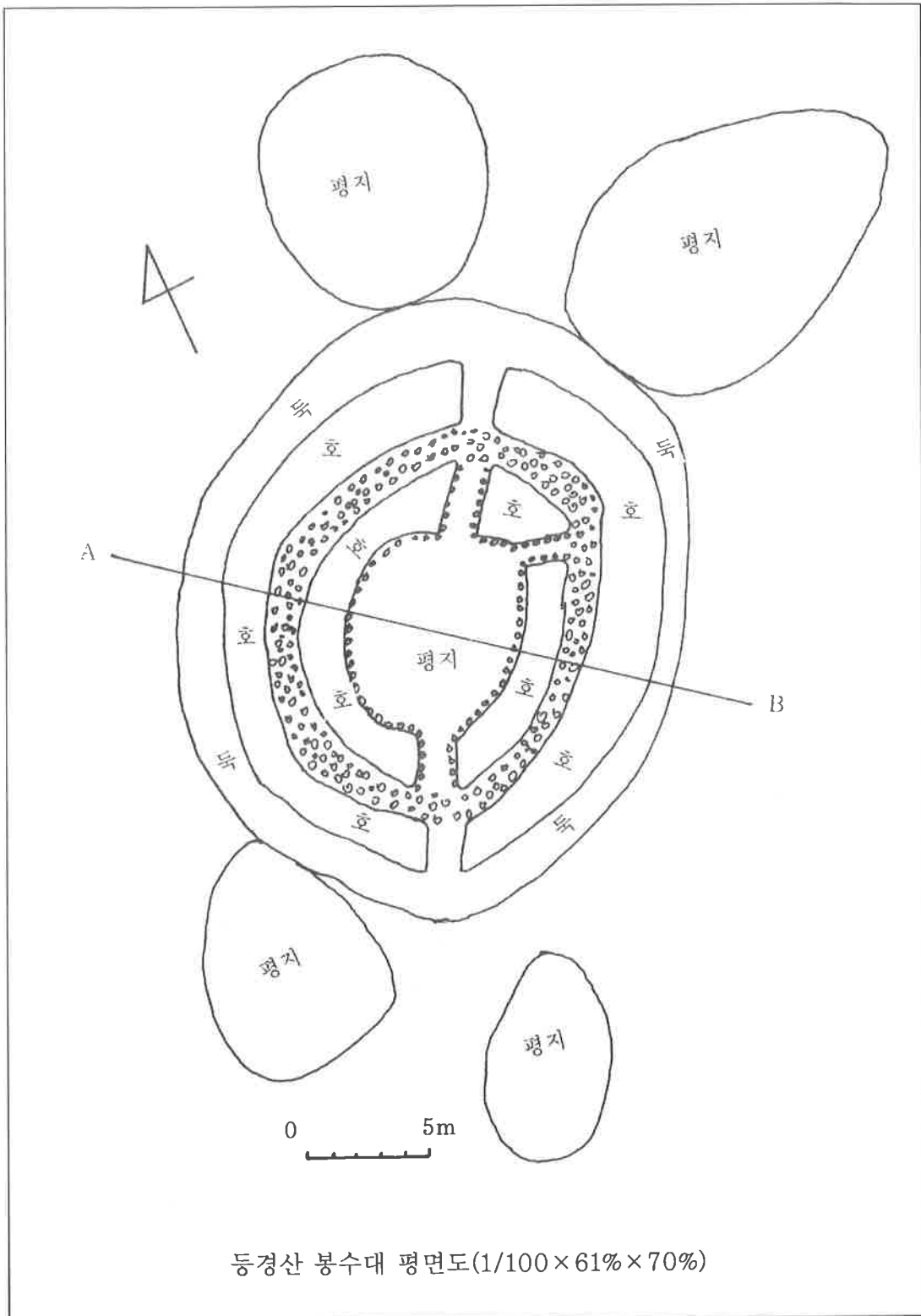
등경산봉수대 상부-서쪽에서(2004.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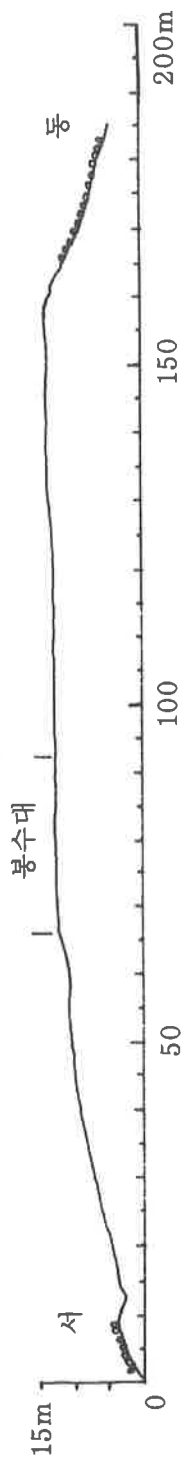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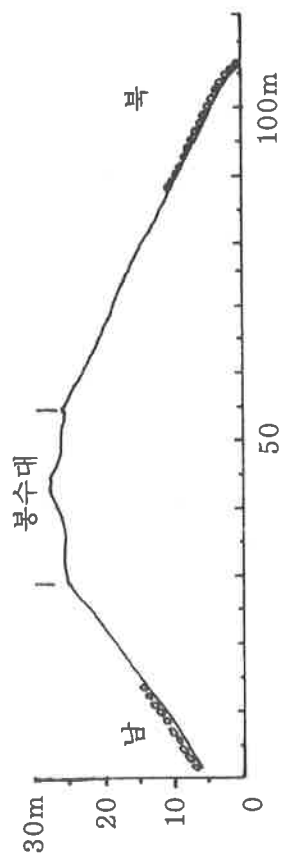


등경산봉수대 북쪽 성(2004.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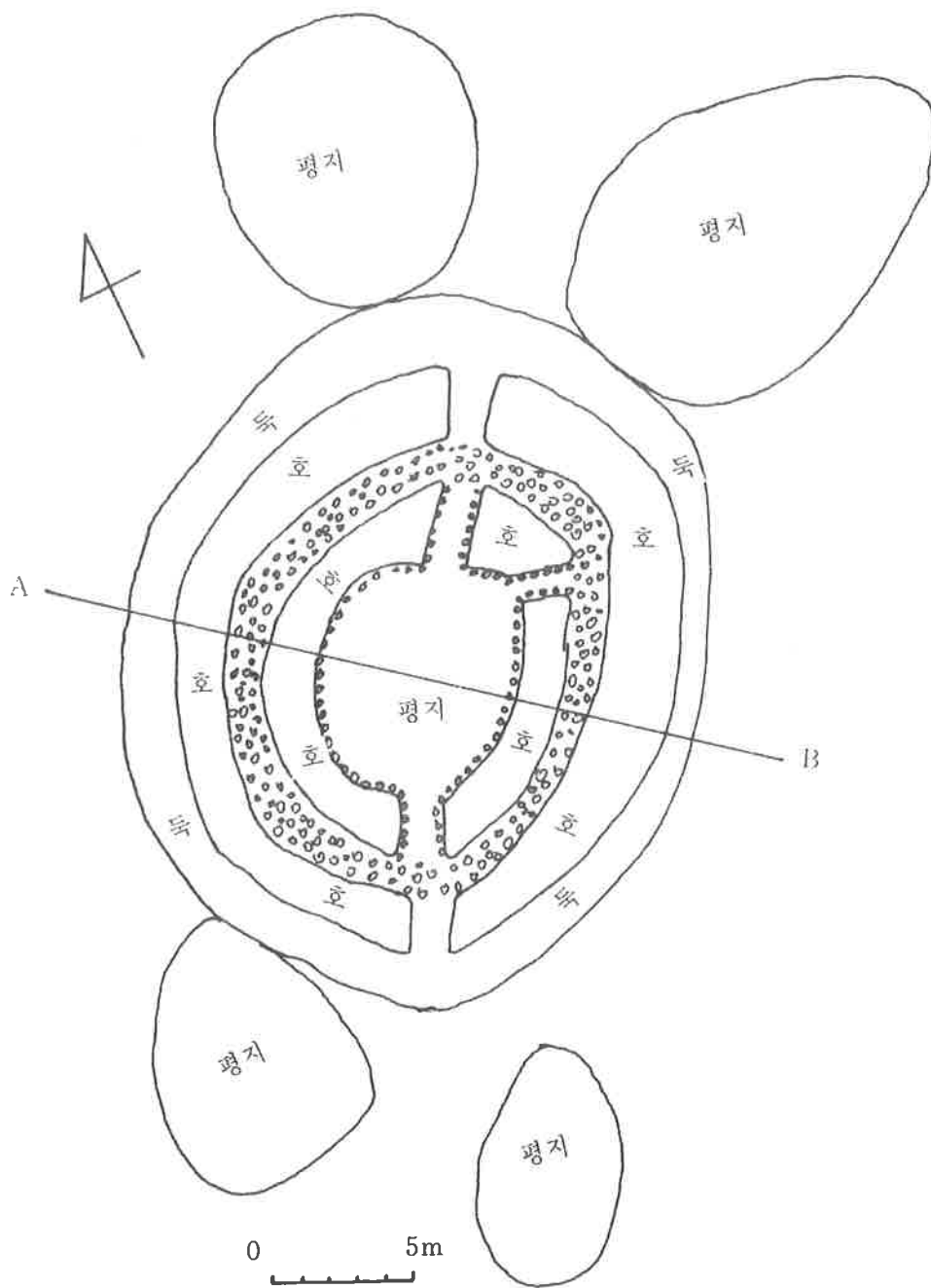


등경산봉수대 서쪽성(2004.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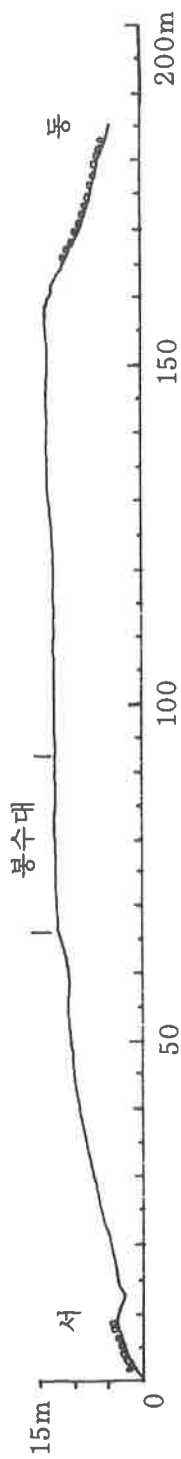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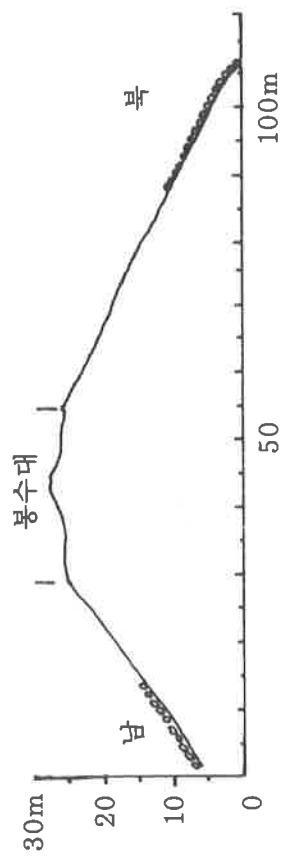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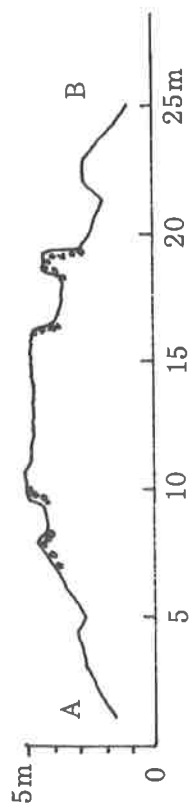




등경산 봉수대와 주변 성의 단면도(1/100×61%×70%)



등경산 봉수대 평면도(1/100×61%×70%)



등경산 봉수대와 주변 성의 단면도(1/100×61%×70%)

5) 신흥리 봉산 봉수대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봉촌 마을과 웅천읍 두룡리 두루니 양지뜸 마을 사이의 봉산 산봉우리(해발 277.8m)에 있는 봉수대이다.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봉촌이라는 지명이 남포면 신흥리에 있어 남포면 신흥리 봉촌 마을에서 관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에 오르는 길은 웅천읍 두룡리 원골을 시작으로 남포면 신흥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꼭대기에서 서남쪽으로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과, 웅천읍 두루니 마을에서 시작하여 남포면 양기리 곡촌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동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이 있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있는데, 가운데는 직경 약 7m의 평탄 대지이고 대지 주변 약 3m 폭으로 경사지가 있으며, 이어서 2m 내외의 평지로 둘러져 있다. 그 밖은 폭 3m 정도의 호가 파여 있고 최 외곽에는 폭 3m 정도의 둑이 쌓여 있다. 가운데의 평탄 대지는 호의 바닥보다 약 2.5m 높다.

석축은 보이지 않고 모두 토축이다. 주변에서 기왓장이나 토기편은 발견되지 않는다.

옥미봉 봉수대와는 2.2km, 등경산 봉수대와는 5km, 죽청리 덕산 봉수대와는 5km 떨어져 있다.



신흥리봉산봉수대의 위치



신흥리봉산봉수대(2004. 3. 28)



신흥리봉수대-서북쪽 호(2004.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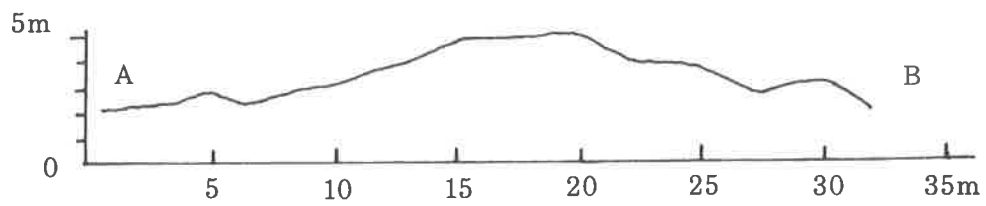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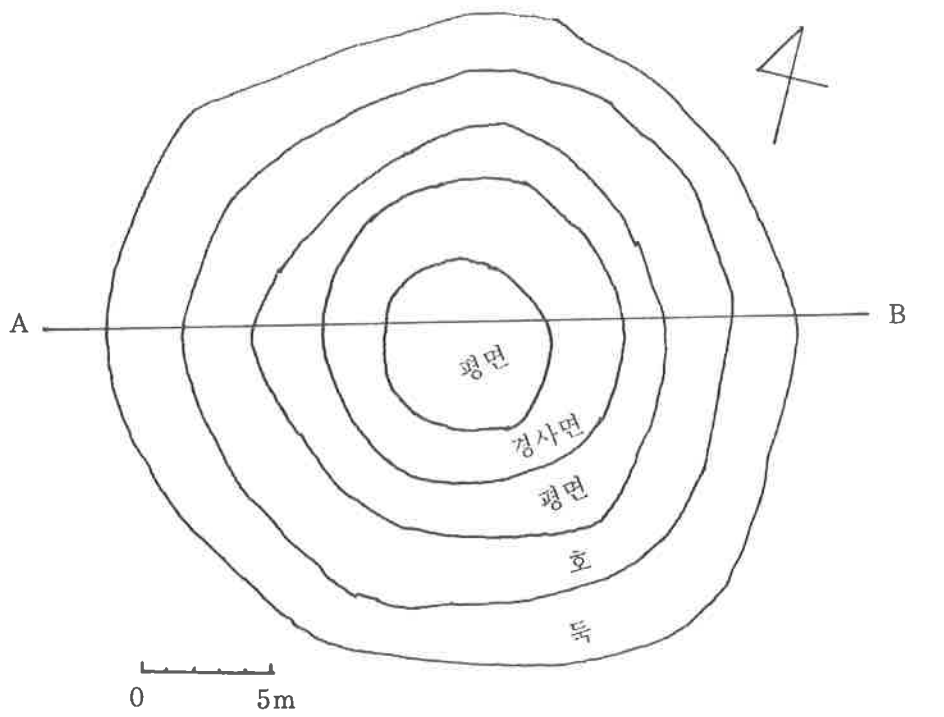
신흥리봉산봉수대-남쪽 호(2004. 3. 28)



신흥리 봉산봉수대-정상부(2004. 4. 28)



신흥리 봉산봉수대에서 바라본 등경산봉수대(2004. 4. 28)



신흥리 봉수대 평면도(상), 단면도(하)

6) 덕산 봉수대

웅천읍 죽청리 봉오재 마을과 독산리 참새굴, 관당리 윗간드리 마을 사이에 있는 덕산봉 정상(해발 100m)에 있는 봉수대이다.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서해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고, 봉오재 마을과는 고도차가 65m에 불과하여 관리하기에 편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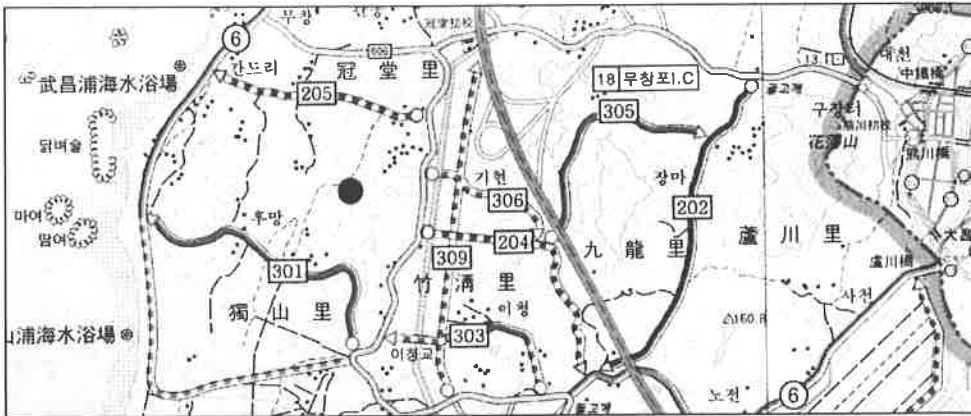
오르는 길은 봉오재 마을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거나, 큰 봉오굴에서 직선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봉수대는 평탄한 정상부의 가운데에 있는데, 직경 6m의 원형 토축 대지 주변에 큰 돌들이 놓여져 있다. 이 돌들은 원래 봉수대 주변에 놓여졌던 것인데 토양이 침식되어 노출된 것 같다. 봉수대의 중심에서 동북쪽으로 8m 떨어진 곳에도 일렬로 7개의 돌이 놓여져 있는데 이 돌도 봉수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 중심에서 서남쪽으로 17m 떨어진 곳에 희미하게 호의 흔적이 있어 봉수대 주변을 호로 둘러쌌음을 알 수 있다. 호 바닥에서 봉수대 토축 대지까지의 고도차는 2m 정도이다.

주변에서 기와편이나 토기편은 발견되지 않는다.

남포 등경산 봉수대와의 거리는 9.4km, 옥미봉 봉수대와의 거리는 6.5km, 신흥리 봉산 봉수대와의 거리는 5km, 통달산 봉수대와의 거리는 3.9k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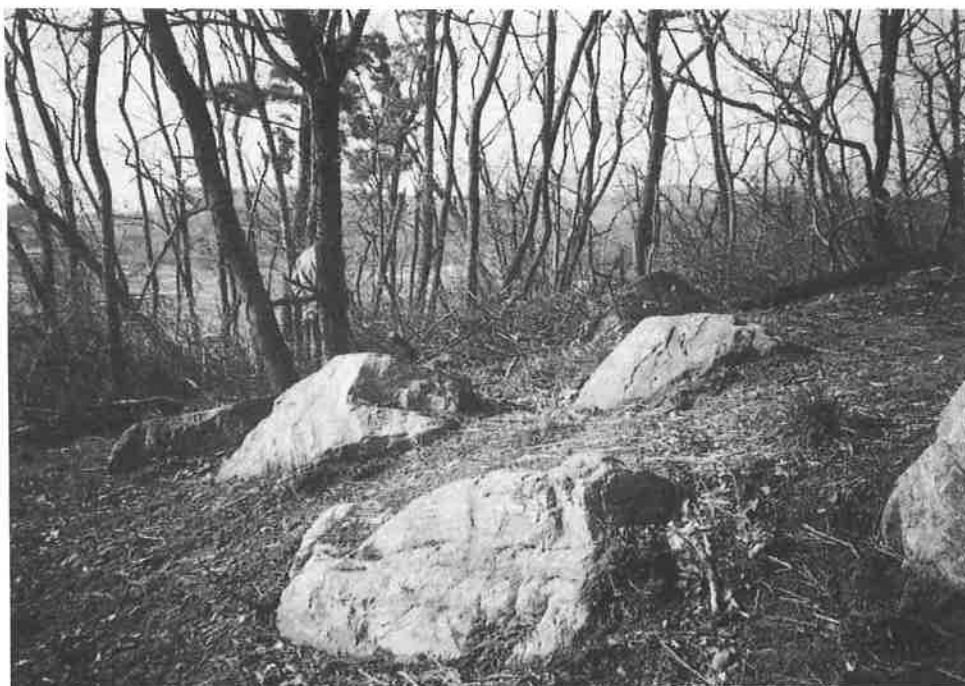
덕산봉수대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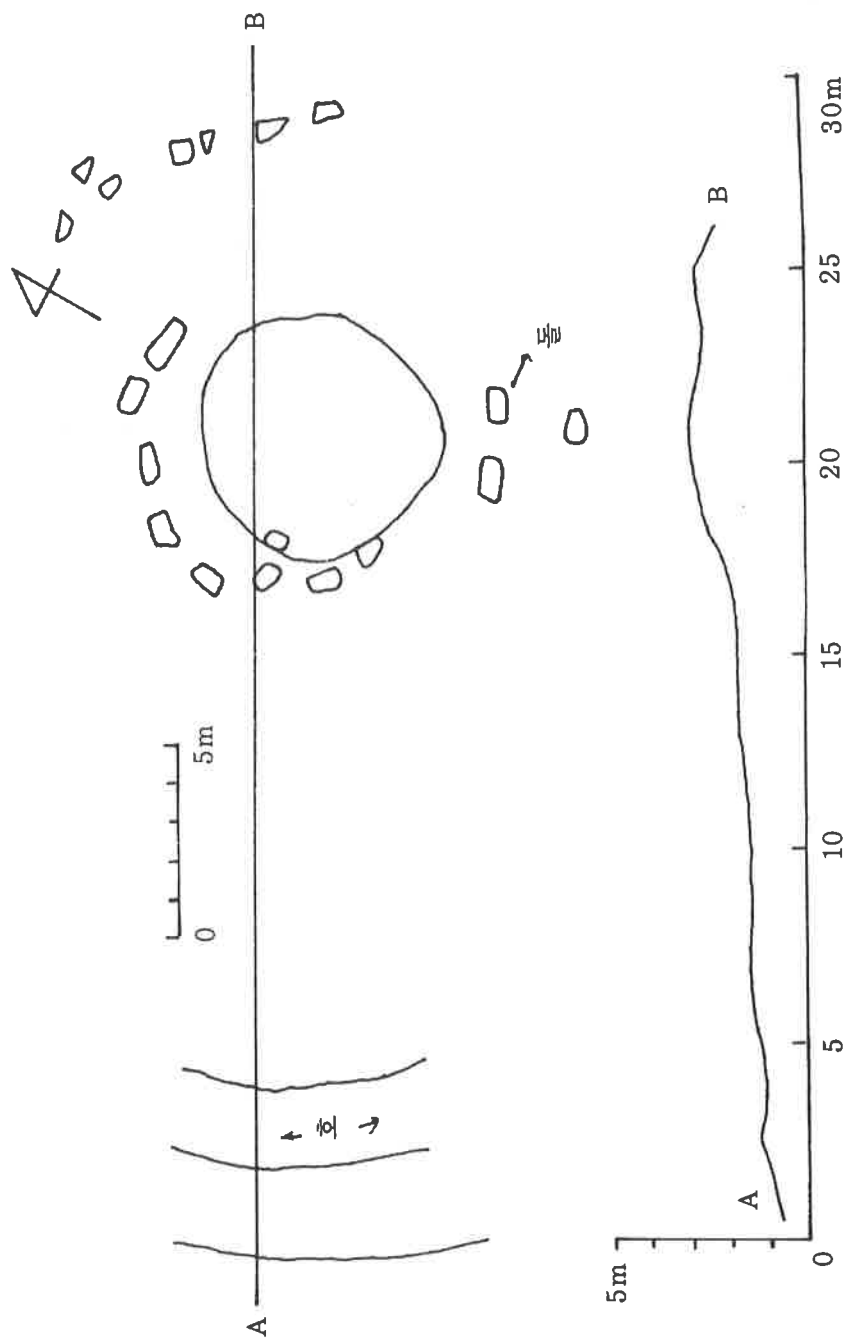
덕산봉수대(2004. 3. 28)



덕산봉수대-서쪽 호(2004. 3. 28)



덕산봉수대의 드러난 석재(2004. 3. 28)



덕산 봉수대 평면도(좌), 단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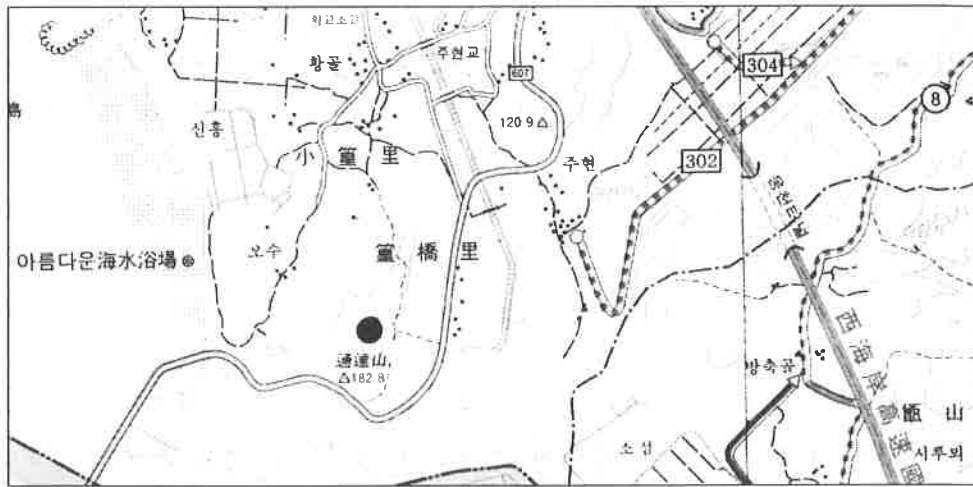
7) 통달산 봉수대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통달산 정상(해발182.8m)에 있는 봉수대이다. 바로 해안에 인접해 있으면서 높기 때문에 주변 바다가 한눈으로 내려다보인다. 이 봉수대는 토진곶 목장성과 인접되어 있는데, 목장성이 봉수대지 바로 남쪽을 지난다. 소항리 장안마을에서 강릉최씨 묘지로 통하는 길로 올라와 토진곶 목장성을 따라 오른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는 웅덩이가 파여 있었는데 메우고 묘를 썼다고 한다. 봉수대지는 돌출한 대지를 이루는데 이곳은 웅덩이였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도 오천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지처럼 한말에 포대를 조성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묘가 들어서 있고 묘 뒤로 약간 돌출한 부분이 있어 옛 봉수대지의 일부일 것으로 추측된다.

웅천읍 죽청리 덕산봉 봉수대와는 3.9km, 옥미봉 봉수대와는 9.4km, 비인 칠지산 봉수대와는 5.6km 떨어져 있다.



통달산 봉수대의 위치



통달산봉수대지(2004. 4)

8)대천리산성 봉수대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와 두룡리 사이에 있는 잔미산 정상(해발 367.9m)에 있는 봉수대이다. 웅천읍 대천리 철길 건널목에서 잔미산 능선을 따라 오르면 만난다. 봉수대의 주변은 석성으로 둘러져 있는데¹⁶⁾ 남북 길이 약 250m 동서 길이 약 70m이다. 성의 북·서·남쪽은 성벽이 무너져 형성된 돌무더기가 넓게 분포하고, 동쪽은 급경사를 이용하여 석축한 흔적이 뚜렷하다. 동쪽 성벽 위로는 길이 나 있다. 북쪽의 치 일부가 남아있고, 남쪽 성문지에도 다량의 돌더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성 안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보인다. 현재는 돌무더기가 남아있고, 민묘가 들어서 있다. 봉수대가 있던 곳 남쪽에는 여러 단의 평지가 있는데, 기와 조각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는 대부분 고려시대 어골문이나 격자문 기와이다. 대천리 산성은 산 정상 부분의 극히 좁은 지역을 둘러싼 것으로 보아 봉수대를 보호하기 위한 성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남포현의 치소가 대천리산성 동쪽 약 1.5km 떨어진 웅천읍 수부리 수안 마을에 있었으므로, 이곳은 수안 마을에 남포현의 치소가 있을 때 봉수대의 기능을 하다가 치소의 이동으로 폐쇄되고 2.2km 북쪽에 있는 옥미봉 봉수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북쪽에 있는 옥미봉 봉수대와는 2.2km, 남쪽에 있는 비인 칠지산 봉수대와는 12km정도 떨어져 있다.

16) 잔미산이란 이름도 이 성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城의 옛말이 '갓' 이므로 성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갓메' 라고 불려 왔는데 '잔미산' 으로 표기한 것이다.



대천리산성봉수대의 위치



대천리산성 봉수대지(2004. 3. 21)



대천리산성 북쪽 성벽(2004.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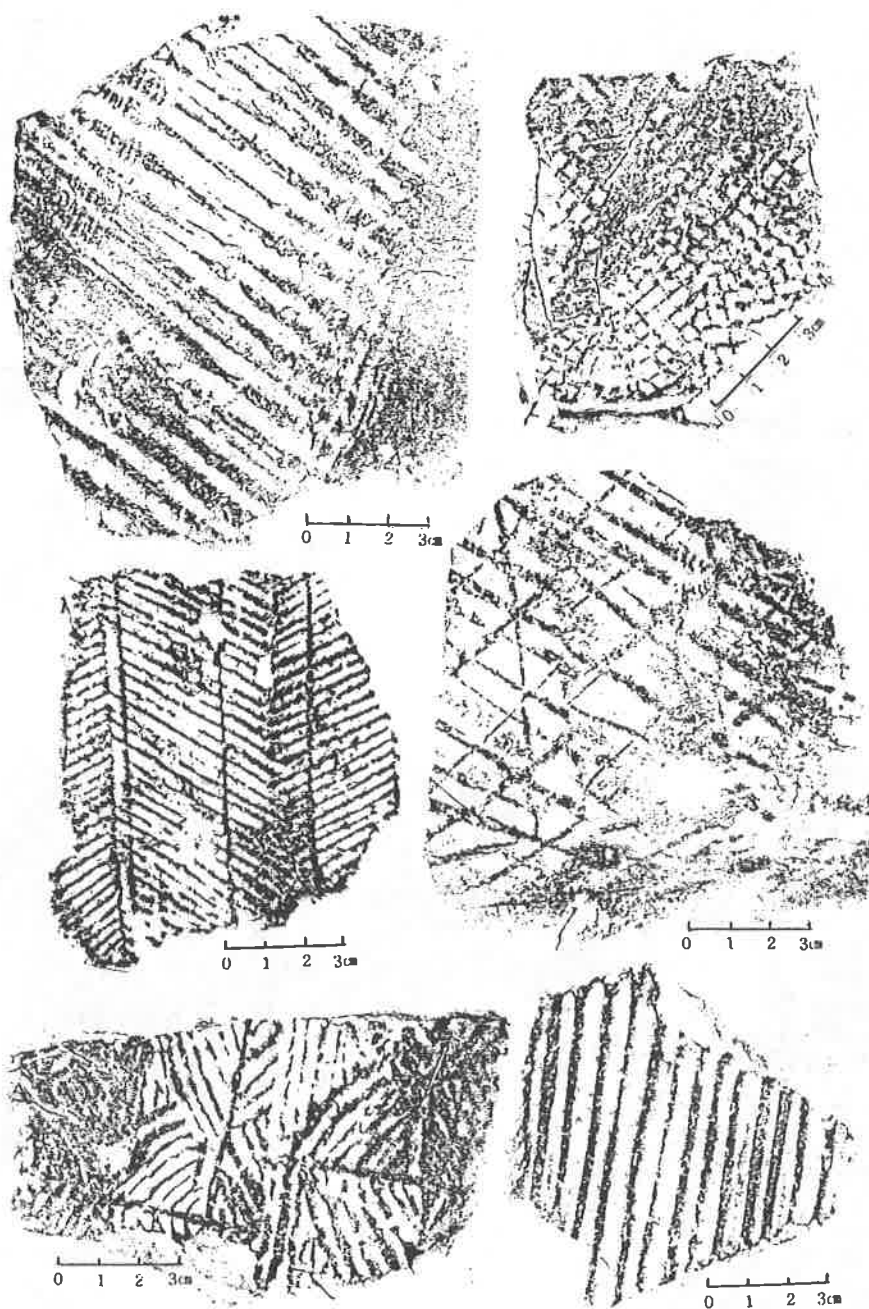
대천리산성 동쪽 성벽(2004.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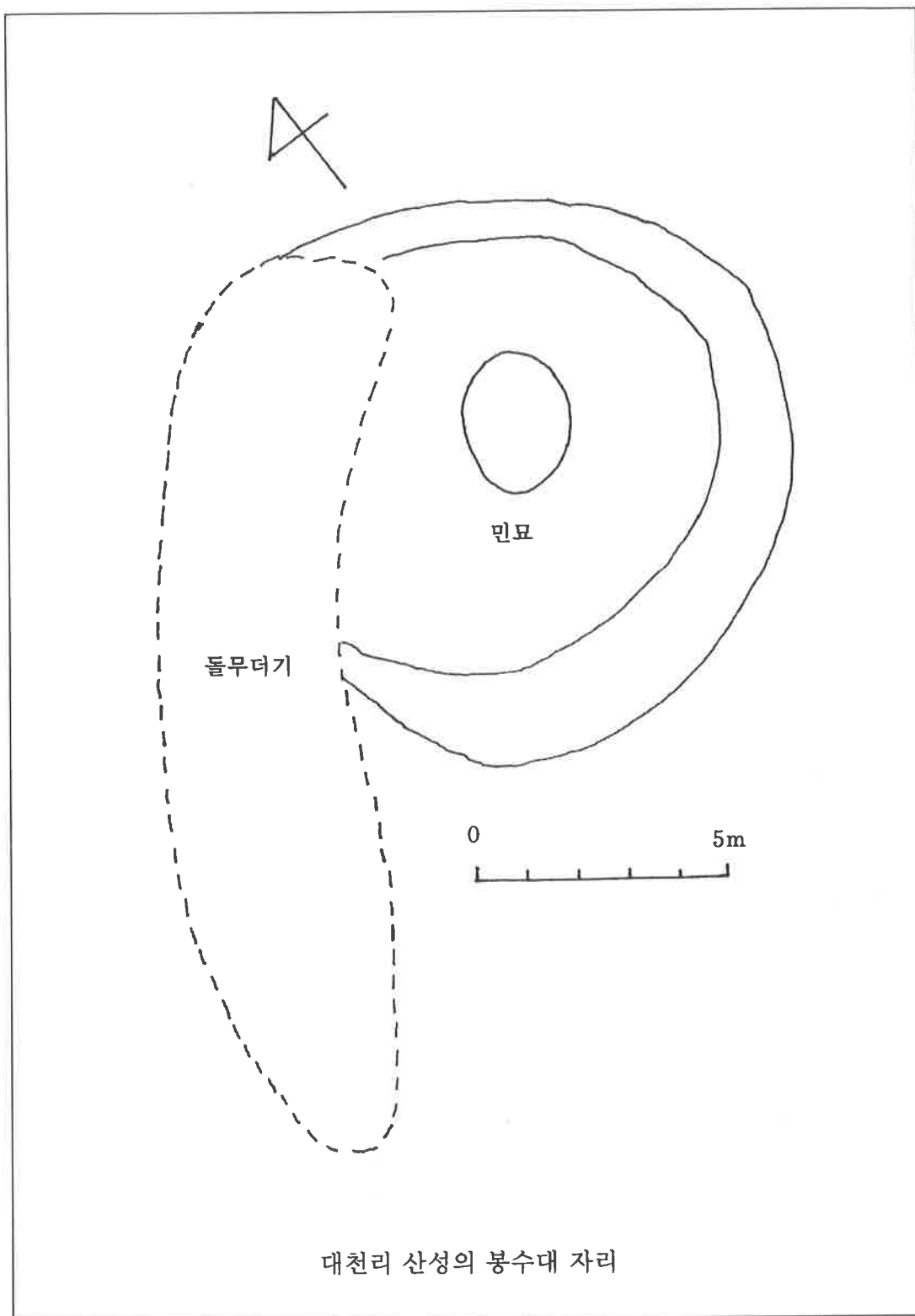
대천리산성 남쪽 성문지(2004.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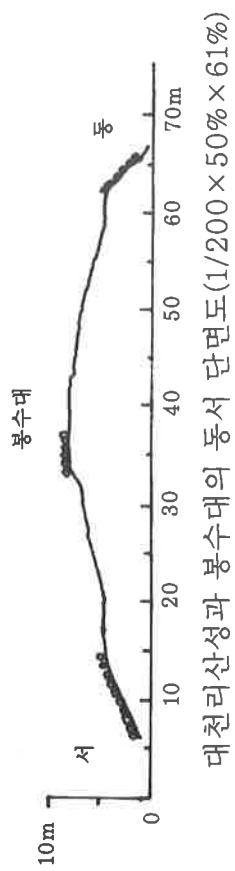


대천리산성 북쪽 평탄지(2004.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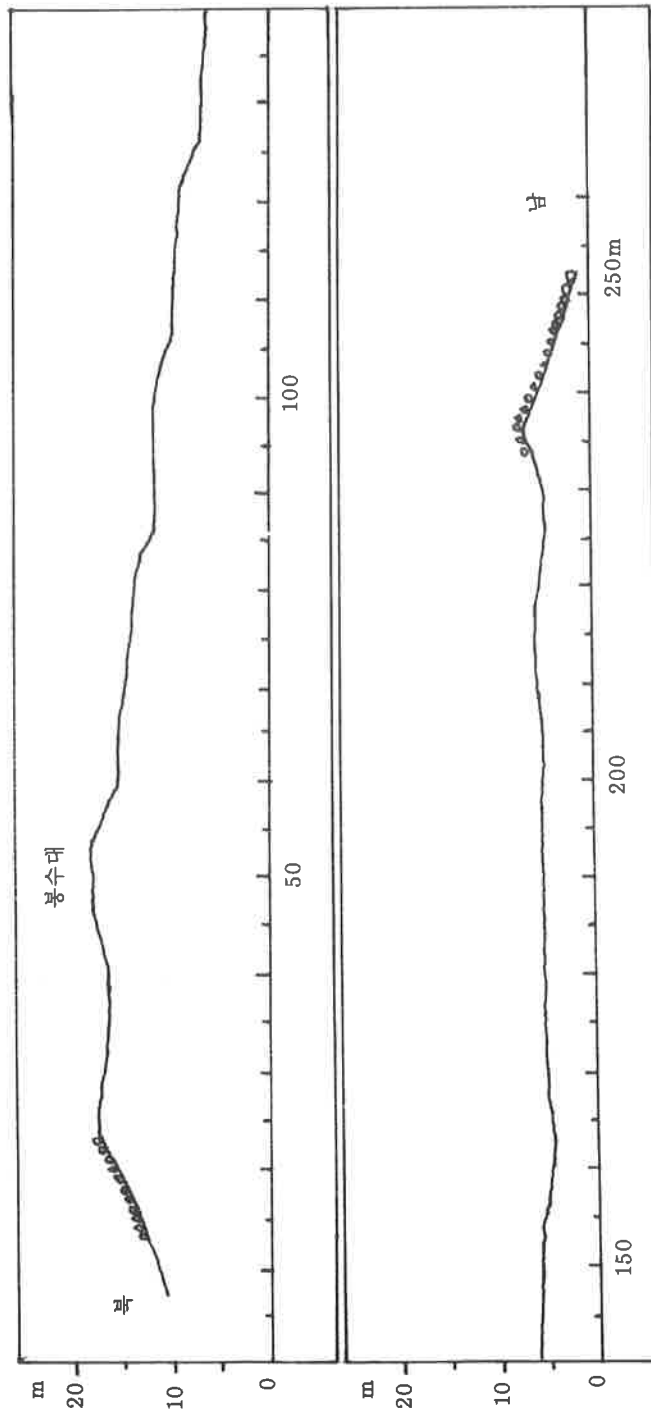


대천리산성 출토 기와





대천리산성과 봉수대의 동서 단면도(1/200 × 50% × 61%)



대천리산성과 봉수대의 남북 단면도(1/200 × 50% × 61%)

나. 보령지역 육지 봉수대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봉수의 종류는 경봉수(京烽燧) 연변봉수(沿邊烽燧) 내지봉수(內地烽燧)로 구분된다. 경봉수는 서울 남산에 설치되어 각지에서 올라오는 군사적 정보가 중앙에 보고되고 취합된 정보를 대궐에 종합적으로 알리는 마지막 단계의 봉수이다. 연변봉수는 해안에 설치되어 연대(烟臺)라고 불렀고 변경(邊境)의 군사적 상황을 처음으로 수집하여 신속하게 중앙에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는 봉수이다.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봉수로 신속 정확하게 다음 봉수로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지닌다.

또한 직봉(直烽) 간봉(間烽)의 구분이 있는데, 이는 직선(기간선로)봉수, 간선(보조선로)봉수의 약칭으로 봉수대 자체의 구분이 아니고, 그 봉수가 위치한 선로상의 구분이다. 이처럼 봉수의 종류와 위치한 선로상의 구분에 따라 봉수대의 주된 임무가 다르다.¹⁷⁾

보령지역의 육지에 있는 봉수는 보령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는 관계로 연변봉수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직봉 5거중 충청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간봉의 일부이다. 따라서 보령지역의 봉수대의 위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안 감시를 통한 군사적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기능도 가져야 했으므로 지역의 관방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설치(設置)되고, 이설(移設)되고, 폐지(廢止)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보령지역의 봉수대 상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령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이전의 봉수대에 대한 자료는 없고, 조선시대의 자료들만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선시대 자료에 의하여 살펴본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1454년(단종2년)에 정리된 것으로 조선 초기 15세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1530년(중종25)에 발간된 것으로 임진왜란 직전의 16세기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는 왜란과 호란 후인 17세기의 상황을 알려주며,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757년(영조33년)부터 1765(영조41년)사이에 펴낸 자료이므로 18세기의 상황을 알려주며, 『대동지지(大東地志)』는 1866년에 발간되었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1908년 간행되어 이들 2개는 19세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17) 金一來, 『朝鮮時代 忠淸道 地域의 沿邊烽燧』,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1.

1) 15세기(世宗實錄地理志)의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한 보령지역의 봉수대는 비인 칠지산에서 藍浦 德山→ 藍浦 余道站→ 保寧 助侵山→ 洪州 興陽串을 거쳐서 현재의 홍성군 結城 高山으로 이어지고, 『新曾東國輿地勝覽』에는 비인 칠지산에서 藍浦 通達山→ 藍浦 餘道站→ 保寧 助侵山→ 洪州 興陽串을 거쳐서 결성 고산으로 이어진다. 『輿地圖書』에는 비인 칠지산에서 藍浦 玉眉峰→ 保寧 助侵山→ 洪州 興陽串을 거쳐서 결성 고산으로 이어지고, 『大東地志』에서는 비인 칠지산에서 藍浦 玉眉峰→ 保寧 助侵山→ 洪州 興陽串을 거쳐서 결성 고산으로 이어지고, 『忠淸道邑誌』와 『增補文獻備考』에서도 비인 칠지산에서 藍浦 玉眉峰→ 保寧 助侵山→ 洪州 興陽串을 거쳐서 결성 고산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령 지역에 전달하는 서천군 庇仁縣의 漆枝山봉수나 보령지역의 봉수를 전달받는 홍성군 結城縣의 高山봉수는 조선시대 기간 동안 내내 변동이 없으며, 보령현의 조침산 봉수와 홍주목의 홍양곶 봉수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기간 동안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포현의 봉수대가 조선 전·후기를 거치면서 위치 변화를 가져오고 2개處로 운영되면서 1개處로 운영된 다른 군현(郡縣)보다 많이 설치된 점이다.

우선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각 봉수대의 위치를 살펴본다.

남포현조에

봉화가 2곳이니, 현의 서쪽 덕산(德山)과【남쪽으로 비인(庇仁) 칠지(漆枝)에, 북쪽으로 본군의 여도점(余道站)에 응한다.】 현의 북쪽 여도점(余道站)이다.【북쪽으로 보령(保寧) 조침산(助侵山)에 응한다】

보령현조에

봉화가 1곳이니, 조침산(助侵山)이다.【현의 서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남포(藍浦) 여도점(余道站)에, 서쪽으로 홍주(洪州) 임내인 홍양(興陽)의 고산(高山)에 응한다.】

홍주목조에

봉화가 2곳이니, 홍양 산성(興陽山城)과【주(州) 서남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보령(保寧) 조침산(助侵山)에, 북쪽으로 결성(結城) 고산(高山)에 응한다.】 고구성(高丘城)이다.

여기서 남포현의 德山烽燧 위치는 현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의 해발100m

의 덕산봉(德山峰)이라 불리는 곳이다.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초기 이전부터 봉수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봉수대가 폐지되어 사용되지 않던 시기의 기록인 조선후기의 『輿地圖書』 등에도 이 봉수대의 동쪽 지명이 봉수대와 관련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봉오리(烽伍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도 ‘봉오재’로 불리고 있고, 이 봉수대의 서쪽마을도 현재 ‘덕산봉’이라 부르고 있어 이곳이 덕산봉수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의 현(縣)의 서쪽이라는 위치는 그 당시 남포현의 치소인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¹⁸⁾에서 서해안 바닷가의 서쪽 방향이므로 이것과도 합치된다. 덕산봉수는 웅천읍 죽청리와 관당리의 경계선에 있는 산인데, 해안가인 관당리에 봉수대와 관련된 봉오재 마을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륙 쪽인 죽청리에 봉수대 관련 지명인 ‘봉오재’가 있는 것을 보면 덕산봉수대의 봉군(烽軍)이나 봉졸(烽卒)들의 근거지가 웅천읍 죽청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남포현의 余道岾烽燧 위치는 현재 여도점이라는 지명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위치를 단정하여 말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지역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여도점 봉수를 조선 후기 『輿地圖書』에 나오는 玉眉峰烽燧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⁹⁾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현장 조사와 문헌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여도점봉수의 위치가 분명히 ‘현의 북쪽’으로 되어있다²⁰⁾. 『世宗實錄地理志』 당시의 남포현의 치소가 현재의 남포가 아닌 앞에서 말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이라고 한다면 옥미봉의 위치는 수안의 북쪽 뒤의 산이 되므로 합치 될 수 도 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餘道岾烽燧는 현의 북쪽 8리에 있다>고 방향과 함께 거리까지 명시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당시에는 남포현의 치소가 현재의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에서 북쪽 15리 지점인 현재의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로 이동된다. 따라서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의 이동된 남포현 치소에서 옥미봉 봉수는 ‘남쪽 15리’ 지점이 되기 때문에 절대 옥미봉이 여도점 봉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도점 봉수는 어디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주변 답사와 여러 가지 정황으

18) 황의천, 「남포현 치소의 이동에 관한 연구」, 『전국향토문화연구대회수상논문집』, 전국문화원연합회, 1998.

19) 申載德, 「충청수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金一來, 「조선시대 충청도 지역의 연변봉수」,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1.

20) 본문의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참조.

로 보아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와 제석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인 등경산(登敬山) 정상에 봉수대지가 있는데, 이 봉수대지가 여도점 봉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등경산의 봉수대지는 해발 180.2m의 정상에 있으며, 치소가 있던 남포 읍내리에서 약 4km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위는 대봉산성이라 불리는 백제시대 것으로 보이는 산성이 있다. 이 봉수대 주변의 지명이 여도점 봉수임을 시사하는 것은 없지만, 남포의 북쪽에 다른 봉수유지가 없고, 『新增東國輿地勝覽』 기록의 방향²¹⁾과 거리가 일치하고 있어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수대지 주변에서 발견되는 조선시대의 청해파문의 와편과 백자편 등이 조선시대 사용된 봉수대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봉수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산아래 마을인 남포면 제석리에 봉산(烽山)이라는 마을이 있고, 이 여도점 봉수가 있는 곳이 태피식 대봉산성의 정상이기 때문에 산성의 기능과 연관시켜보면 남포현 치소 앞의 서해를 감시하는 관방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²²⁾

보령현의 조침산 봉수 위치는 현재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의 해발 228.9m의 봉대산(奉大山)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침산(助侵山 또는 阻侵山)으로 불리어왔으나 현재는 봉대산으로 불리며 그 유지가 남아있다.

홍주목의 홍양곶 봉수는 원래 조선시대는 홍주목에 속했으나 1914년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보령시 천북면에 편입된 곳인데, 현재는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해발 202.6m의 봉화산으로 불리며 그 유지가 남아있다. 이 홍양곶은 조선초기부터 목장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홍양현(興陽縣)은 일명(一名) 원군(遠軍)인데, 지금 목장(牧場)이 되었다. 홍양곶(興陽串)【둘레 49리 3백 39보인데, 안의 토장(土場)이 1리 94보, 목장(木場)이 1리 62보인데, 물이 너무 많아서 풀이 좋지 아니하다. 국마(國馬) 4백 37필을 놓아 먹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결성현감²³⁾과 홍주판관²⁴⁾이 감목관이 되어 특별 관리하는 곳이었다.

2) 16세기(新增東國輿地勝覽)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21) 등경산(登擎山) 명칭은 大東地志에 나오는데, 등경산은 현의 북쪽에 있다고 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등경산이라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22) 보령지역의 조침산 홍양곶 옥미봉봉수는 조선후기의 고지도에 표시되고, 통달산 덕산은 오늘날도 지명이 남아오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여도점 봉수는 고지도에 표시도 없고, 관련 지명도 없기 때문에 기록에 나타난 거리와 방향이 유일한 단서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 답사 확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23) 세종 18년 7월조

24) 세종 28년 1월조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보령지역 봉수대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남포현 봉수조에

통달산 봉수(通達山烽燧)는 남쪽으로는 비인현(庇仁縣) 칠지산(漆枝山)과 호응하고, 북쪽으로는 여도점(餘道站)과 호응한다. 여도점 봉수(餘道站烽燧)는 현 북쪽 8리에 있다. 서쪽으로는 보령현(保寧縣) 조침산(助侵山)과 호응하고, 남쪽으로는 통달산(通達山)과 호응한다.

보령현 봉수조에

조침산 봉수(助侵山烽燧)는 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남포현(藍浦縣) 여도점(餘道站)과 호응하고, 서쪽으로는 홍주(洪州) 흥양곶(興陽串)과 호응한다.

홍주목 봉수조에

흥양곶 봉수(興陽串烽燧)는 동쪽으로 보령현(保寧縣) 조침산(助侵山)과 호응하고, 북쪽으로 결성현(結城縣) 고산(高山)과 호응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보령지역 봉수대는 『世宗實錄地理志』와 비교했을 때 보여지는 변화는 남포현의 덕산 봉수가 없어지고 통달산 봉수가 설치된 것이다. 통달산 봉수는 현재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의 해발 182.8m의 통달산에 있던 봉수이다²⁵⁾. 현재는 유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 자리에 민묘(民墓)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민묘가 들어서기 전에는 큰 웅덩이가 있었다고 한다. 오천의 망해정 봉수대처럼 바다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어서 한말에 봉수대를 허물고 포대 설치용 호를 판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웅덩이를 메우고 묘를 조성하였다. 현재도 산 이름이 봉수대 운영 당시와 같이 ‘통달산’ 또는 ‘동달산’으로 부른다. 나머지의 여도점, 조침산, 흥양곶 봉수의 위치는 변화 없이 15세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17세기(東國輿地志)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東國輿地志』에 기록된 보령지역의 봉수는 다음과 같다.

25)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 산천조에 통달산(通達山)은 현 서쪽 33리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남포현 봉수조에

통달산²⁶⁾ 봉수는 남쪽으로는 비인 칠지산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여도점에 응한다. 여도점 봉수는 현의 북쪽 8리에 있는데, 서쪽으로는 보령현의 조침산에 응하고, 남쪽으로는 통달산에 응한다.

보령현 봉수조에

조침산 봉수는 현 서쪽 45리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남포현 여도점에 응하고 서쪽으로는 홍주 홍양곶에 응한다.

홍주목 봉수조에

홍양곶 봉수는 동쪽으로는 보령 조침산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결성의 고산에 응한다.

『東國輿地志』의 보령지역 봉수대 위치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 여도점에서 조침산의 방향을 서쪽으로 표현하였으나 정확히는 북서쪽이 되어야 하며, 조침산에서는 여도점을 남쪽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조침산에서 홍양곶의 방향은 서쪽으로 표현되었는데, 북쪽으로 해야 옳은 것이다.

4) 18세기(輿地圖書)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輿地圖書』에 기록된 보령지역의 봉수대는 다음과 같다.

남포현 봉수조에

옥미봉 봉수(玉眉峰烽燧)는 남쪽으로는 비인현 칠지산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보령현 조침산 봉수에 응한다.

보령현 봉수조에

조침산(阻侵山) 봉수는 현 서쪽 45리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남포 옥미봉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홍주 홍양 봉수에 응한다.

홍주목 봉수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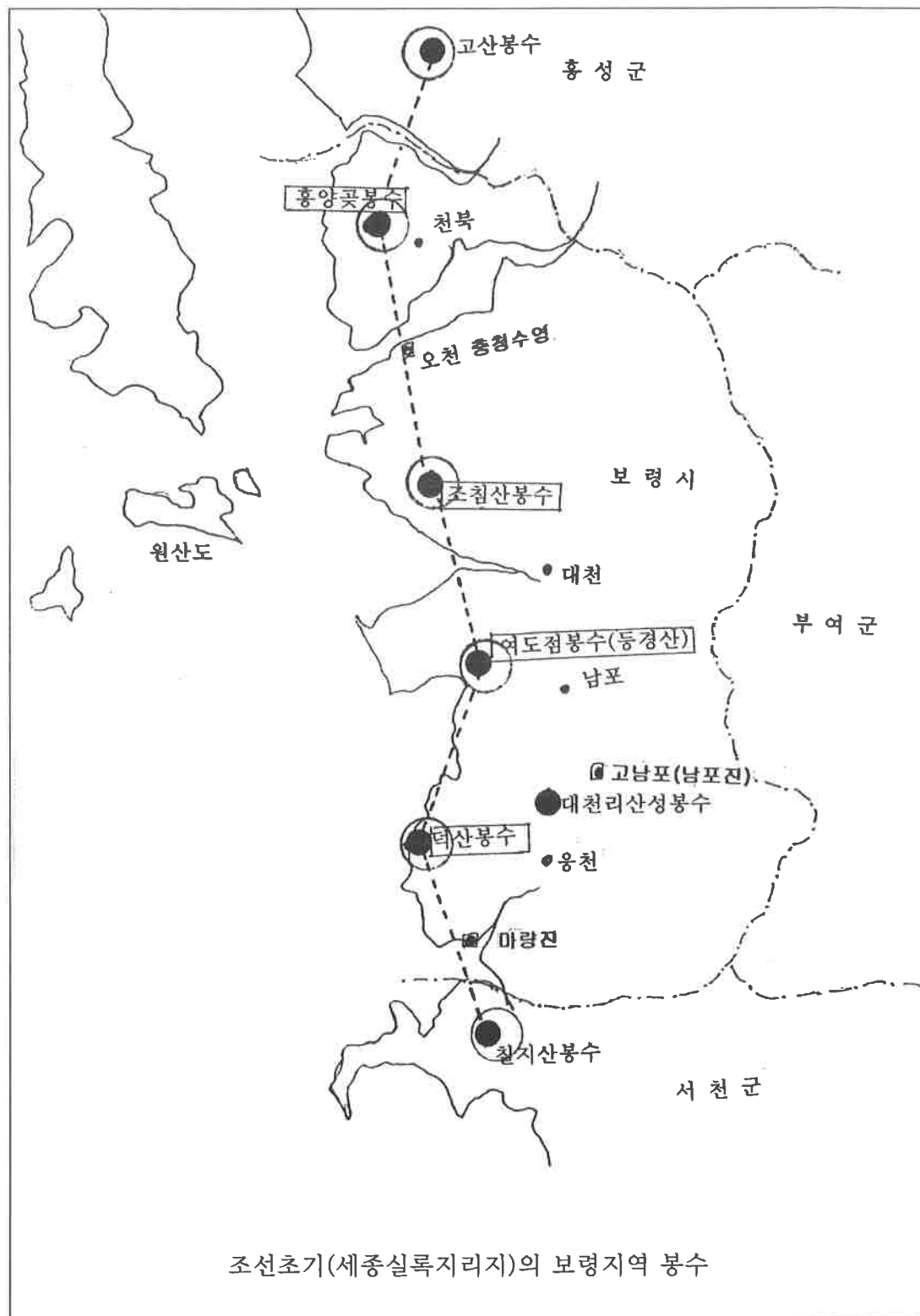
홍양봉수(興陽烽燧)는 남쪽으로는 보령 조침산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결성 고산 봉수에 응한다. 『輿地圖書』에 보이는 보령지역 봉수대의 변화는 16세기에 비교하여 남포현의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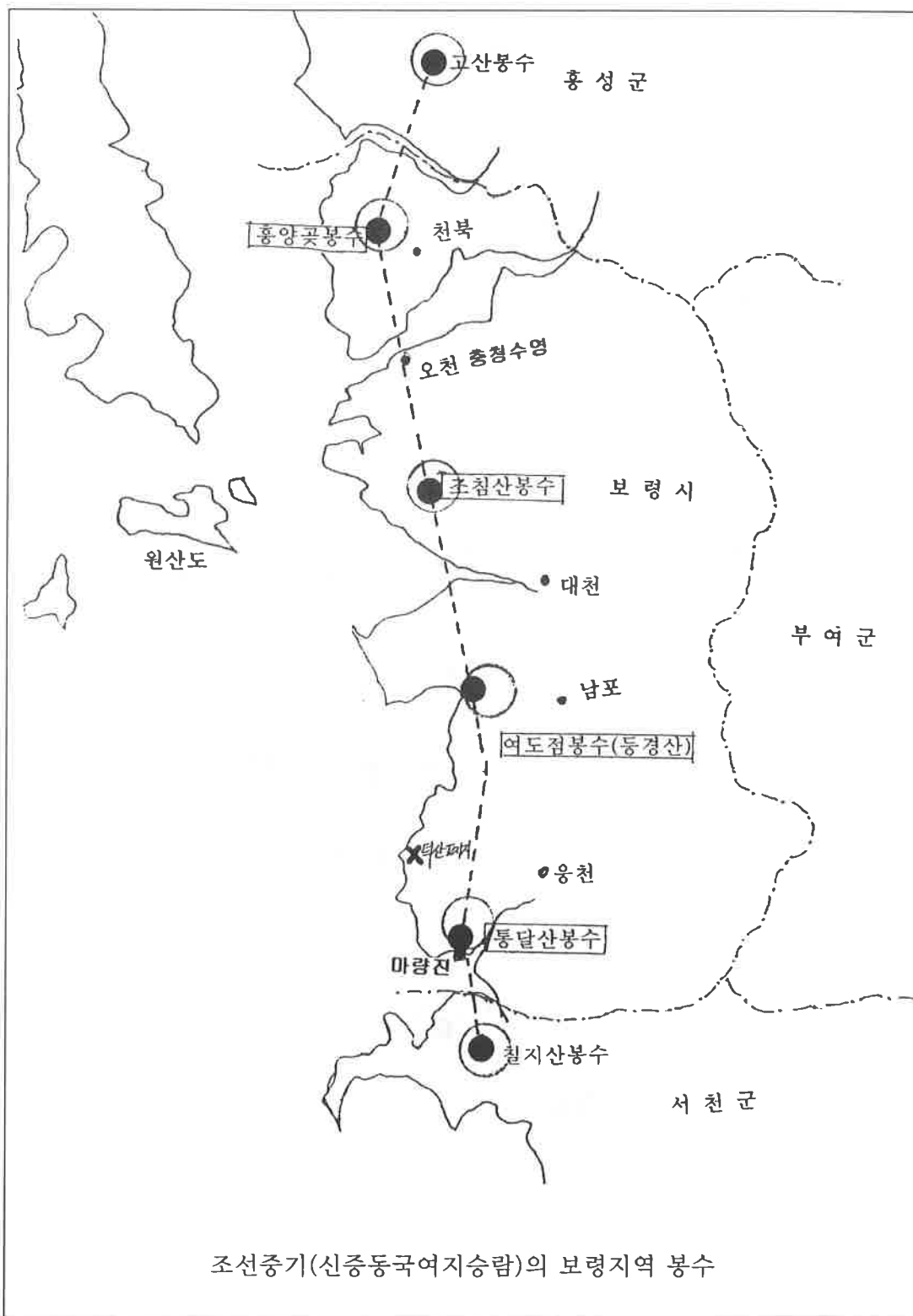
26) 동국여지지 산천조에는 통달산은 현 서남쪽 33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서쪽이라는 기록에 비하여 서남쪽이라는 기록을 표시되어 더욱 정확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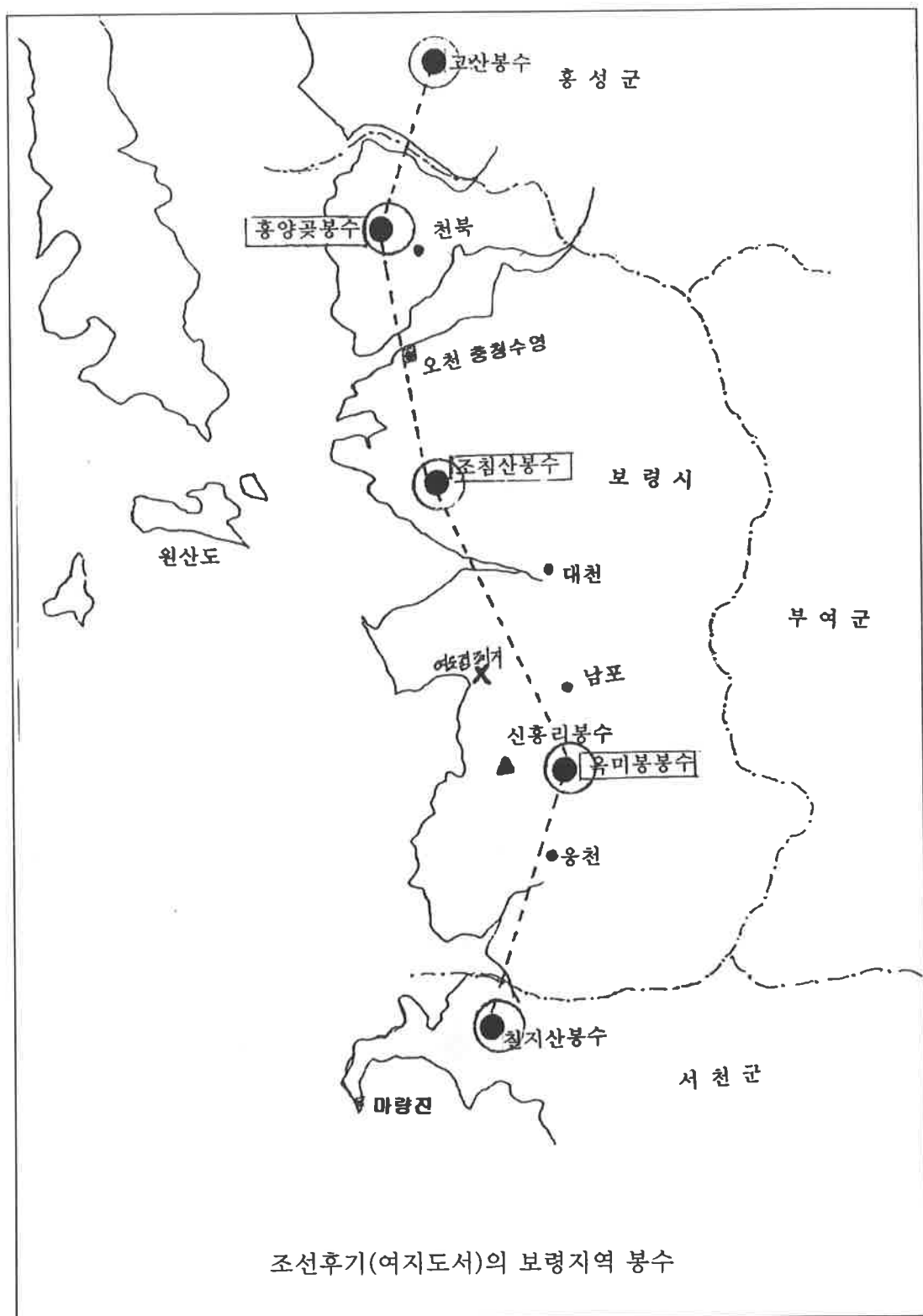
달산 봉수와 여도점 봉수가 없어지고, 옥미봉(玉巒峰) 봉수가 신설된 점이다. 옥미봉 봉수는 현재의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와 수부리, 남포면 옥서리의 경계선상에 있는 잔미산의 최고봉인 해발 416m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지금도 봉수 유지가 확연히 남아있고, 북쪽에 있는 봉우리와 사이에 사현(沙峴)이라는 고개가 있어 과거 교통로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현재 봉수유지가 있는 곳이 아닌 사현 건너편의 329m의 봉우리를 봉화산으로 부르고, 국토정보지리원 발간의 지도에서도 봉화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지를 정확히 답사해 보면 이곳이 옥미봉 봉수가 있었던 곳이 아니다²⁷⁾. 현지 답사를 하지 않은 지도 제작상의 오류이다.

이하 『忠淸道邑誌』 『大東地誌』 『增補文獻備考』 등의 보령지역 봉수대 기록은 『輿地圖書』의 그것과 똑같이 되어있다. 따라서 조선 말기 우리나라 봉수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비인 칠지산 → 남포 옥미봉 → 보령 조침산 → 홍주 홍양곶 → 결성 고산의 전보관계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27) 현지 답사를 통해 충청 연해안 지역의 봉수대 석사학위 논문을 쓴 김일래 선생도 이곳을 옥미봉 봉수대지로 잘못 알고 있다.







5) 봉수대의 폐지·이설·신설에 대한 고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령지역의 봉수대 중 보령현 지역의 조침산봉수와 홍주목의 홍양곶봉수는 조선 전·후기를 통하여 변화가 없는 반면, 남포현 지역의 봉수대는 조선초기에는 덕산과 여도점에 2개의 봉수대가 설치되고, 또 덕산이 통달산으로 위치 변화를 가져오면서 여도점과 함께 2개의 봉수대로 계속 존속하다가 조선후기에는 이것이 옥미봉 봉수대로 정리되어 다른 군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봉수대로 정리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령지역의 관방체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초기『世宗實錄地理志』의 비인 칠지산→남포 덕산→남포 여도점→보령 조침산→홍주 홍양곶의 전보관계는 남포현의 관방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비인 칠지산봉수는 비인 도둔곶에 설치된 것이고, 남포 덕산봉수는 보령 죽청리와 관당리 해안에 설치된 것인데 두 봉수대의간의 도상거리가 9.5km로 가까운 편이다. 결국 이 봉수대들은 웅천천 하구를 사이에 두고 가깝게 설치된 것이다. 조선초기에 웅천천 하구 지역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깝게 봉수대가 설치된 것은 웅천천 하구지역이 지역 관방체제상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웅천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포현 지역은 백제시대 성주사(聖住寺)의 전신인 오합사(烏合寺)의 관문역할을 하면서 사포(寺浦)로 불린 지역이며, 『일본서기』에도 오합사 기록²⁸⁾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백제시대 웅천천 하구의 관문 기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웅천천 하구는 통일신라 때는 성주사가 선문9산으로 발전하면서 그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다. 고려 말 우왕(禡王) 때는 이곳을 통하여 왜구가 남포(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로 웅천천 하구에서 약 8km상류 지점)에 쳐들어와서 10여 년 간 황폐화 시켰던 곳이다. 그리하여 고려 말에는 남포에 진성(鎭城)을 신축하고 흩어진 백성을 불러모으고 남포진(藍浦鎭)을 설치하고 군사 요새화 하였던 곳이다.²⁹⁾

28) 日本書記 濟明 4년조

29)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

본래 백제의 사포현(寺浦縣)인데, 신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서림군(西林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 현종(顯宗) 9년에 가림현(嘉林縣) 임내에 옮겨 붙이었는데, 다시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홍무(洪武) 13년 경신에 왜구(倭寇)로 인하여 인물(人物)이 사망으로 흩어졌으므로, <공양왕(恭讓王) 2년> 경오(庚午)에 비로소 진성(鎭城)을 설치하고, 유리(流離)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안집(安集)시켰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6년 정축(丁丑)에 비로소 진병마사(鎭兵馬使)를 두고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고려사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의 충청도 각 고을 소개에 있어 왜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본 고을은 남포현만 기록되어있다. 다른 고을에도 왜구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포현만 왜구침입 피해가 기록된 것을 보면 남포가 왜구들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웅천천 하구는 조선초기에 충청우도수군도만호(忠淸右道水軍都萬戶)가 자리한 수군기지였다.³⁰⁾

이렇게 해상 방어를 위한 수군 방어 체제가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포현은 고려말 이래로 남포진이 설치되면서 육군 방어기지로도 기능하였다. 즉 조선 태조6년(1397)에는 蓴城鎮(현 태안), 伊山鎮(현 덕산)과 함께 藍浦鎮이 설치되어 충청도의 3鎮으로서, 충청도 육군의 중요 3대 방어기지가 되었고, 군정관인 첨절제사(僉節制使)가 파견³¹⁾ 되었다.

이어서 태종13년(1413) 전국의 監務제도를 혁파하고 현감을 파견할 때도 남포는 계속 군정관인 절제사가 파견된다.

세종29년(1447)에는 방어의 중요도에 따라 고을을 상긴(上緊), 중긴(中緊), 하긴(下緊)으로 구분하여 무관임명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이때 충청도는 태안과 남포를 主鎮으로 하고 비인을 상긴으로, 서천을 중긴으로, 서산 결성 보령 해미 당진 등을 하긴으로 하였으며, 남포는 연변의 중요한 고을이라 하여 武科나 武才錄에 올라 있는 실력 있는 무관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³²⁾

세조1년(1455)에는 연해 要害地의 방어뿐만 아니라 인근 내륙 고을의 방어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인근 고을을 익(翼)에 분속시켰는데, 남포진을 거진으로 하여 중익을 남포 비인 홍산으로 하고, 좌익은 한산 서천 임천으로 하며, 우익은 보령 결성으로 하였다.³³⁾

그리고 웅천천 주변의 해안지역에 고려시대 이후부터 조선 세종 때까지 사용한 토진곶 목장(土津串牧場)이 설치되어 국가가 사용하는 말을 길러 납품하였던 곳이다³⁴⁾. 이 토진곶 목장의 중앙부에 덕산 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봉수대는 목장의 관리와 감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역사상 대외 관문으로서, 왜구의 침략을 당하고 군사 요새가 설치된 지역

30)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조 :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지키는 곳이 7이니, 좌도 도만호(左道都萬戶)는 태안군(泰安郡) 서쪽 오근이포(朽斤伊浦)에 머무르고, 거느린 것이 병선(兵船)이 11척, 추왜별선(追倭別船)이 2척, 무군선(無軍船)이 2척, 선군(船軍)이 1천 4백이다. 우도 도만호(右道都萬戶)는 남포현(藍浦縣)이 구정(龜井)에 머무르며, 거느린 것이 병선(兵船)이 16척, 별선(別船)이 2척, 무군선(無軍船)이 1척, 선군(船軍)이 1천 3백 2명이다.

31) 조선왕조실록 태조6년 5월21(壬申)조

32) 조선왕조실록 세종29년 9월4일(癸巳)조

33) 조선왕조실록 세조1년 9월11일(癸未)조

34)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

옛 목장(牧場)이 하나인데, 토진곶(土津串)에 있다. 둘레가 16리 34보인데, 안의 토장(土場)이 8리 40보요, 석장(石場)이 7리 36보요, 목장(木場)이 1백 18보이다. 다만 도랑물(渠水)만이 있고, 또 띠와 고사리풀만 있다.

황의호, 황의천 「토진곶 목장성 연구」, 『보령문화』9, 보령문화연구회, 1999.

으로서 웅천천 하구는 조선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다. 이러한 지역이었기에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웅천천 하구의 양쪽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항상 주변감시와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보령시 남포면 등경산에 있는 조선 초기 여도점 봉수는 남포진의 후면 해안을 감시하는 역할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니, 남포현에 덕산과 여도점 2개의 봉수대가 운영된 것은 왜구 침입과 관련하여 남포현의 관방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보령현의 조침산 봉수는 바로 아래에 송도(松島, 솔섬)가 있어 조선초기에 충청수군 고만 만호(高巒萬戶)가 주둔한 수군기지고, 고려시대에는 중국으로 가는 배길의 요지로서 高巒島로 알려져 있었다.³⁵⁾ 그리고 북쪽에는 충청수영 본영이 위치한³⁶⁾ 관계로 설치된 봉수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초기의 봉수체제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오면 비인 칠지산 → 남포 통달산 → 남포 여도점 → 보령 조침산 → 홍주 홍양곶으로 변화된다. 즉 덕산 봉수가 없어지고 통달산 봉수가 생겼고, 계속 남포현에는 2개의 봉수가 운영된다.

통달산은 웅천천 하구에 위치한 산으로 덕산보다 남쪽으로 4km 정도 내려간 지점이며 웅천천하구 북안(北岸)에 위치한다. 따라서 비인 칠지산 → 통달산의 전보관계는 세종대의 칠지산 → 덕산 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이렇게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통달산에 봉수대를 설치한 원인은 웅천천 하구에 충청수영 휘하의 마량진(馬梁鎭)첨사영이 설치되고, 성벽을 수축하면서 웅천천 하구의 해상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량진 본영에서 직접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달산 봉수와 마량진의 거리는 불과 1km 정도에 불과하다.

마량진은 현재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에 있었는데, 조선초기에는 충청우도수군도 만호영(忠淸右道水軍都萬戶營)이 설치되었고, 종종 때인 1510년에 석성(石城)을 축조하여³⁷⁾ 왜구침입과 조운선 보호의 역할을 하였던 종3품의 첨사영이다. 그리고

35) 新增東國輿地勝覽 海美縣 古蹟條에는 고려 문종 31년(1077) 중국 조정의 사신이 왕래하는 高巒島의 정자는 수로가 약간 막혀있어 船隻의 정박이 불편하오니 洪州관하 貞海縣에 한 정자를 창건하여 맞이하고 보내는 장소로 삼자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고만도는 현재의 주교면 송학리 솔섬 주변을 말한다.

36)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조 : 水軍都安撫處置使는 保寧縣 서쪽 帶回伊浦에 머무르며, 거느린 것이 中大船이 6척, 中孟船이 18척, 快船이 4척, 군사 없는 중대선이 6척, 追倭別孟船이 6척, 船軍이 1천 7백 66명, 船直이 1백 14명이다. 高巒梁萬戶는 保寧縣 서쪽 松島浦에 머무르며, 거느린 것이 병선이 10척, 선군이 6백 61명이다.

37)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 관방조에 '마량진(馬梁鎭)은 현 서쪽 33리에 있는데, 우도 수군첨절제사(右道水軍僉節制使)의 영문(營門)이 있으며, 그의 소관(所管)은 서천포(舒川浦)이다. 첨절제사 1인이 있다. 정덕(正德) 경오년(1510)에 비로소 둘로 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1371척에 높이는 9척이며, 안에 우물 하나가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웅천천 하구 남쪽 건너편에는 마량진의 파견 부대격인 도둔곶수(都屯串戍)가 설치되어 웅천천 하구를 양쪽에서 방어하고 있다. 이것과 어울려서 봉수대도 웅천천 하구 남쪽 도둔곶에 칠지산 봉수, 웅천천 하구 북쪽에 통달산 봉수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³⁸⁾

이러한 남포현의 봉수체제는 『東國輿地志』에서도 변함 없이 기록되고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직후까지도 웅천천 하구의 관방체제를 중심으로 봉수대는 그대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輿地圖書』에는 다시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 즉 통달산과 여도점의 2곳이 폐지되고, 옥미봉(玉眉峰) 봉수가 신설된 것이다. 호란을 겪은 조선은 관방 체제를 정비하면서 왜구 침입을 대비하기보다는 이제는 청과의 긴장관계에 따른 방어 체제 중심으로 관방 체제를 개편한다. 그리하여 충청수영의 속진(屬鎭)들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의 웅천천 끝단에 위치한 마량진이 1655년(효종5)에 배 대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건너편 도둔반도 끝단의 도둔곶수에 이전된다.³⁹⁾ 그리하여 도둔곶수가 마량진으로 불리고 웅천천 하구의 마량진 자리는 구마량(舊馬梁) 또는 구진(舊鎭)으로 불리게 된다. 즉 웅천천 하구의 방어는 비인 마량진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통달산 봉수도 폐지되고 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령 조침산과 비인 칠지산의 중간 지점인 남포현의 옥미봉(현 잔미산 최고봉)에 봉수대를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비인현의 칠지산봉수에서 남포현의 옥미봉봉수를 거쳐 보령현의 조침산봉수로의 전보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칠지산과 옥미봉의 도상 거리는 14km 정도로 충청 서해안 지역의 간봉노선에서 전보거리가 가장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전보 관계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옥미봉 봉수는 사방 전망이 그 어느 곳보다도 뛰어난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해발이 416m이다. 충청도 지역의 봉수대 중 400m가 넘는 산봉우리에 설치된 봉수대는 옥미봉 봉수가 거의 유일하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중시하는 관방 체제를 구축하면서 남포현 지역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봉수대도 옥미봉 봉수 하나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옥미봉 봉수의 위치가 416m의 잔미산 최고봉에 위치한다는 것은 고지도에 표시된 위치나 현재의 그 유지(遺址)로 보아 틀림없는 사실이나, 문제는 김정

38) 이 같은 예는 충청 내륙의 관문인 금강하구 양쪽의 경우에서 보이고 있다. 즉 군산의 화산(花山) 봉수와 군산진(郡山鎭), 장항의 서천포(舒川浦營)과 운은산(雲銀山) 봉수의 경우이다.

39) 효종실록 6년 11월조 : 충청도 庇仁縣의 馬梁鎭을 都島에 옮겼다. 조정이 수사 金漢文의 요청을 따른 것으로, 舊鎭이 배를 정박하는 데 불편했기 때문이다.

호가 그린 大東輿地圖나 靑邱圖에는 옥미봉의 위치가 잔미산의 최고봉이 아닌 그 서쪽 산줄기 쪽의 봉우리에 표시된 점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표기 지점으로 추측되는 지점을 답사한 결과 남포면 신흥리의 봉촌(烽村)으로 불리는 마을의 뒤산인 봉산(烽山)에서 봉수유적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봉산의 높이는 해발 277.8m이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이 산을 봉산(烽山), 이 산 아래 마을을 봉촌(烽村)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이 봉수유지와 옥미봉 봉수와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것일까? 이것은 이곳 봉산(烽山)이 대동여지도에서는 옥미봉이라고 표기된 점과, 실제 옥미봉 봉수의 높이가 유레가 드문 416m의 고지대⁴⁰⁾라는 점, 봉수대와 관련된 지명이 현재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에서 이 봉수대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의 옥미봉 위치

40) 충청서해안 간봉 봉수대지의 해발을 살펴보면 옥구 화산 봉수 50.9m, 옥구 점방산 봉수 139m, 서천 운은산 봉수 146.9m, 비인 칠지산 봉수 111.5m, 보령 조침산 봉수 234.9m, 홍주 홍양곶 봉수 202.8m, 결성 고산 봉수 236m, 홍주 고구산 봉수 228.1m, 서산 도비산 봉수 351.6m, 서산 백화산 봉수 284.1m, 서산 주산 봉수 197.8m, 당진 안국산 봉수 281.9m, 당진 고산 봉수 153.8m, 당진 창택산 봉수 104m, 평택 괴태길곶 봉수 83m이고, 직봉인 내지봉수의 경우에도 공주 월성산 봉수가 312.6m, 공주 고등산 봉수 191.9m, 공주 쌍령산 봉수 366.4m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0m가 넘는 경우는 유레가 드물다.

옥미봉 봉수대와 가까운 봉산의 동사면쪽 지명은 봉수대와 관련 없는 지명인 반면, 옥미봉 봉수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봉산 봉수대와 가까운 서사면의 지명이 봉촌(烽村)인 것을 감안해 보면 옥미봉 봉수의 봉군(烽軍)들이 이 신흥리 봉촌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옥미봉이 여기에서는 멀고 높아서 이 신흥리의 봉산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17세기 후반 옥미봉 봉수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높은 봉우리의 위치 문제 때문에 봉졸(烽卒)들의 활동과 물자관리 등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 대안으로 좀 낮아서 관리가 쉬우며 옥미봉과 마찬가지로 사방 전망, 특히 해양 전망이 좋은 남포면 신흥리의 봉산에 임시로 봉수대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신흥리 봉산 봉수대의 현재 상태는 토축으로 3단의 원추형 모습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외호(外濠)까지도, 침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파괴가 심하지 않아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것도 사용하던 시기가 현재로부터 오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봉촌에서 옥미봉 정상에 오르려면 가파른 산줄기를 거의 2시간 이상 올라야 하는데, 다른 곳의 봉수대가 20~30분 정도에 오르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다른 고지도에서는 잔미산 정상에 옥미봉 봉수대가 계속 표시되는데, 아마도 잔미산 정상의 옥미봉이 오랫동안 봉수대로 운영된 관계로 남포현의 주 봉수대로 인식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봉산의 봉수대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 동안 잠시 사용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남포현의 봉수대지와 함께 주목되는 또 하나의 봉수대지가 있다. 옥미봉 봉수대가 있던 잔미산의 최고봉에서 같은 산줄기를 타고 남쪽으로 약 2.2km정도 내려가면 해발 367.9m의 봉우리에 또 하나의 봉수유지를 볼 수 있는데, 백제시대 테피식 산성으로 추측되는 대천산리산성 내부에 있다. 이 봉수대는 조선시대 기록에 나타나는 남포현의 봉수대들과 연관시킬 수 있는 거리나 위치 등의 근거가 전혀 없어 조선시대의 봉수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기를 알려주는 단서는 이 봉수대지의 주변과 건물지로 추측되는 곳에 어골문과 격자문의 와편이 산견(散見)되고 있으나, 조선시대의 청해파문 와편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와 그 이전의 봉수대지로 생각된다. 백제시대 오합사(烏合寺)와 통일신라시대 선문9산 성주사(聖住寺)의 관문인 웅천천 하구가 쉽게 관망되고, 봉수대지의 남사면 아래에 고려시대 남포현의 치소(고남포)가 있어 여기서 발견되는 와편과 이 봉수대지의 건너편 성동리산성에서 발견되는 와편이 비슷하여, 이곳은

고려시대 남포현의 관방 체제와 관련한 봉수유지로 볼 수 있다. 또 이 곳에서 발견되는 와편은 고남포 유지(古藍浦遺址)와 성동리산성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할 뿐 아니라, 성주사지에서 발견되는 와편과도 아주 비슷하다.

고려말이 되면 서해안과 남해안에 극심하게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봉수대와 망대를 많이 설치하게 된다.⁴¹⁾ 앞에서 말한 대로 이곳 웅천읍 수부리의 고남포는 고려 말 우왕 때 왜구의 침입으로 10여 년 간 황폐화되었고 왜구의 교두보가 되었다가, 나중에 남포진(藍浦鎭)을 설치하고 진병마사(鎭兵馬使)를 파견하였던 곳이다. 그리하여 이 봉수대는 남포진 주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고려말기에 사용한 봉수대로 볼 수 있다. 남포현 봉수대에 전달해 주는 비인 칠지산봉수가 조선시기를 동안 고정된 위치임을 감안한다면 고려 말기에도 운영된 봉수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천리 산성내의 봉수대 전보관계는 칠지산 → 대천리 산성 봉수대 → 여도점 → 조침산의 전보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초기에 들어와서 남포현의 치소와 남포진이 현재의 남포면 읍내리로 이동하면서 이 봉수대보다 좀더 해안 쪽으로 봉수대를 설치하여 덕산 봉수를 만들고 여도점 봉수와 상응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군사요새인 남포진성의 망대(望臺)겸 봉수대(烽燧臺)로 운영된 것과 비슷한 경우를 서천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금강 입구에 설치된 수군기지인 長巖鎭에 장암봉수대가 있음이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⁴²⁾ 이는 고려 말 금강하구로 왜구가 침입하여 이 지역의 관방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금강하구와 바다를 감시하는 망대 겸 봉수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와서는 폐지된다.

이상에서 보령지역의 육지에 있는 8개 處의 봉수대지를 중심으로 그 위치와 설치·이설·폐지에 대하여 관방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고려 시대의 남포의 왜구 침입과 진성(鎭城)설치와 관련하여 대천리 산성내의 봉수대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고, 조선 초기 칠지산봉수와 덕산봉수 여도점봉수는 웅천천 하구의 관방과 관련하여 설치된 것으로, 조침산 봉수는 서해의 충청수군절도사영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된 것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달산봉수의 설치와 폐지는 마량진 설치·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선 후기 옥미봉 봉수의 설치와 폐지는 웅천천 하구의 관방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설치

41) 『高麗史』, 권 112 열전 제25 契遜傳

42) 『세종실록지리지』, 서천군조

봉화가 2곳이니, 장암(長巖)과【군의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옥구(沃溝) 점방(占方)에, 북쪽으로 본군의 다사산(茶沙山)에 응한다.】다사산(茶沙山)이다.【군의 남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비인(庇仁) 칠지(漆枝)에 응한다.】

된 봉수였음을 확인하여 보았다.

이렇게 보면 보령 지역의 육지 봉수는 우리나라 봉수 체제 중 연변봉수와 간봉으로서 단순히 이전 봉수대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매개 역할보다는 자체 관방 체제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을 방어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운영된 봉수대였음을 알 수 있다.

2. 島嶼지역의 權設烽燧

가. 현존하는 충청수영 권설봉수 유적

1) 어청도 봉수대

전북 군산시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3시간 쯤 가면 어청도(於淸島)에 이른다. 어청도는 원래 충청도의 홍주목에 속해 있었고, 1901년 오천군이 생기면서 충청도의 오천군에 편입되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어청도에는 충청수영으로 통하는 첫 봉수대가 위치해 있었다.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를 통하여 충청수영에 신호를 전하였다. 외연도 봉수대와는 19km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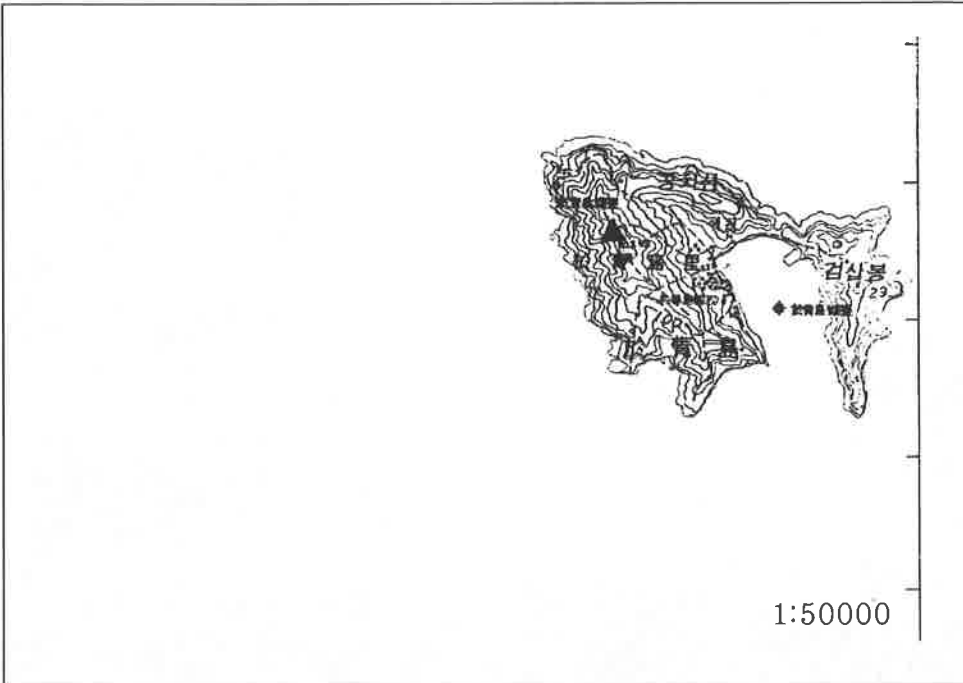
봉수대의 위치는 어청도의 중심 산줄기인 서쪽 산능선의 중앙에 있다. 이곳은 현재 해군 부대의 안쪽인데 통신시설과 레이더 시설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205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⁴³⁾ 이곳은 현재 레이더가 있는 곳보다는 좀 낮은 곳이지만 어청도 북쪽의 낮은 산지 너머로 외연도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다.

봉수대는 우선 능선의 경사부분에 1m 정도의 축대를 쌓고 평탄지를 만든 다음 지름 5m, 높이 2m, 둘레 18.2m의 원형기둥 모양으로 자연석을 쌓고, 가운데는 흙으로 채웠다. 오르내리는 계단은 남쪽에 나 있는데 지금도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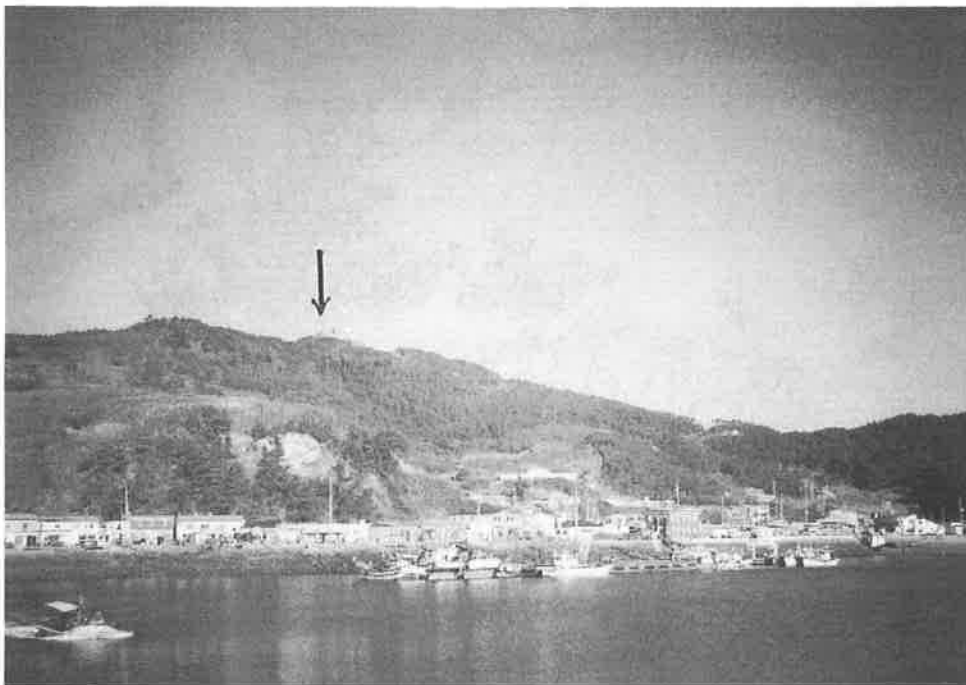
남쪽의 평탄지에는 원형(지름 3m)으로 돌을 둘러놓은 곳이 보인다. 아마도 연료를 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의 중앙부는 약 50cm 정도 낮게 하고 장작을 쌓아 놓았다. 2000년에 해군 부대에서 안내판을 세운 것으로 보아, 당시 중앙부를 훼손하고 장작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43) 어청도 삼각점의 해발고도가 198m이고, 봉화대가 위치한 곳은 삼각점의 위치보다 좀 높고, 레이더가 위치한 최고봉보다는 좀 낮은 곳이다.



어청도봉수대의 위치



어청도봉수대(2004. 4. 5)



어청도봉수대-남쪽에서(2004.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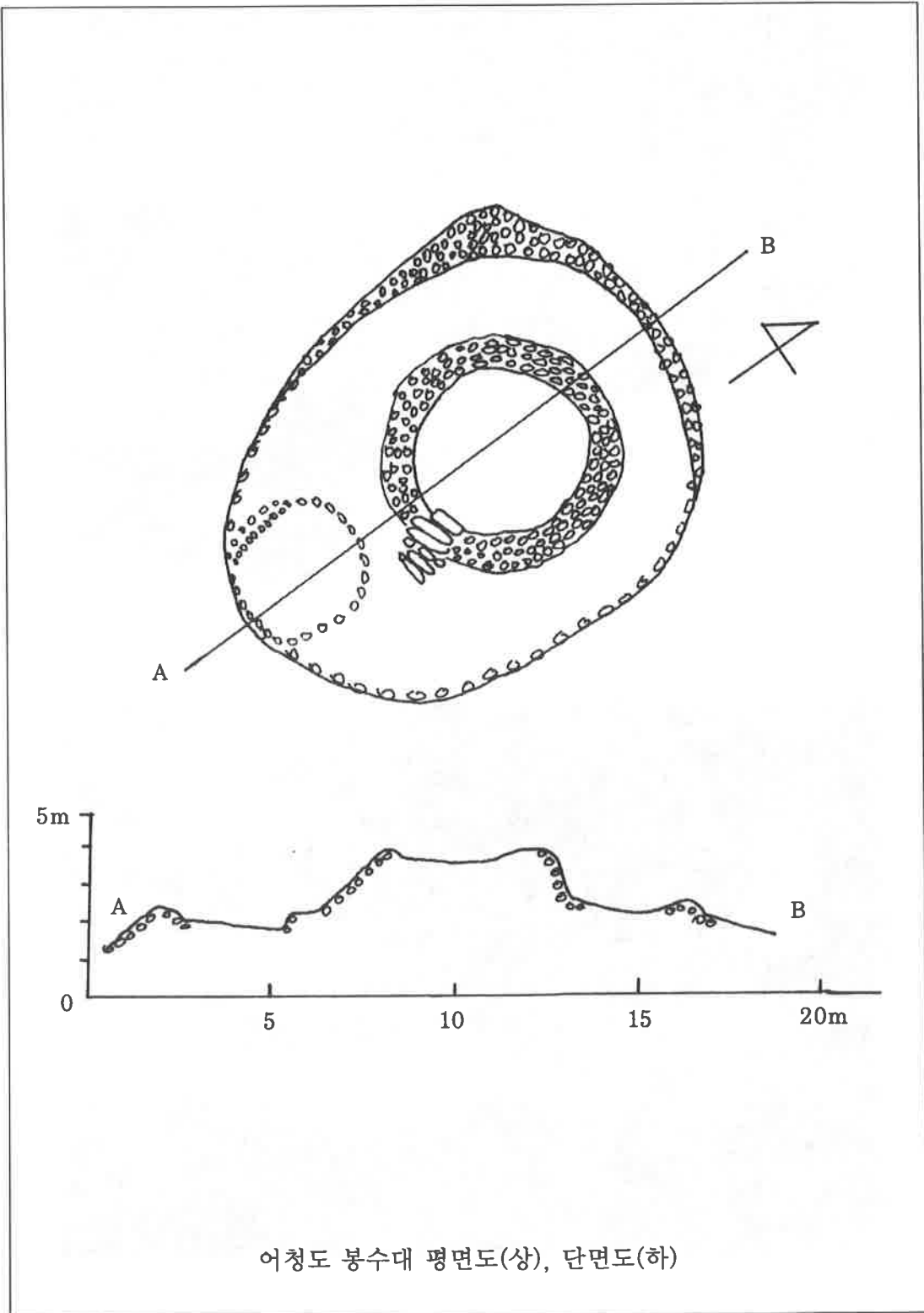
어청도봉수대-북쪽에서(2004. 4. 4)



어청도봉수대-서남쪽(2004. 4. 4)



어청도봉수대 남쪽 부분(2004.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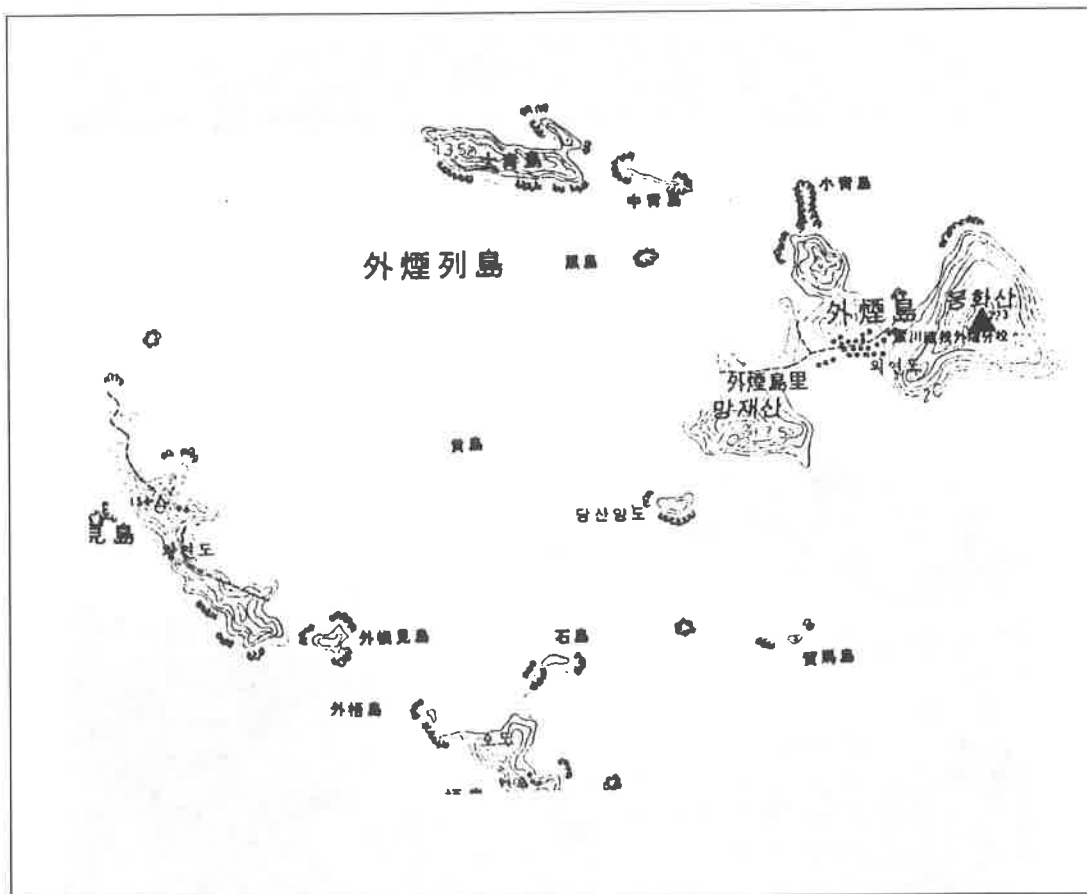


2) 외연도 봉수대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에서 받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녹도 봉수대에 전해주는 봉수대이다. 어청도 봉수대와와의 거리는 16.0km, 녹도 봉수대와와의 거리는 16.25km이다. 외연도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인 봉화산 정상(해발 273m)에 위치한다.

봉수대는 폭 7.8m, 둘레 24.5m의 원형으로 높이는 북쪽 부분이 130~150cm, 남쪽 부분이 180~200cm이다. 모두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중심 부분이 낮다. 문은 북쪽 방향으로 나 있다. 문의 폭은 1m 정도이다.

옛날 당제 지낼 때 이곳에서도 제를 올렸다고 하며, 일제시대까지도 이곳에 올라 다른 섬에서 봉화불이 올라오는지 관찰했다고 한다.



외연도 봉수대의 위치



어청도봉수대에서 바라본 원연도 봉수대(2004. 4. 4)



봉수대에서 바라본 외연도마을(2004. 4. 21)



외연도봉수대-중앙부(2002.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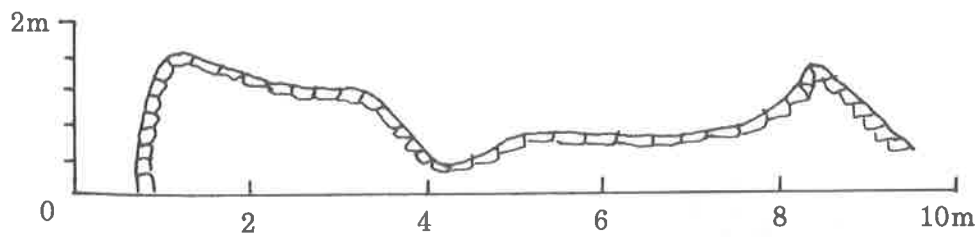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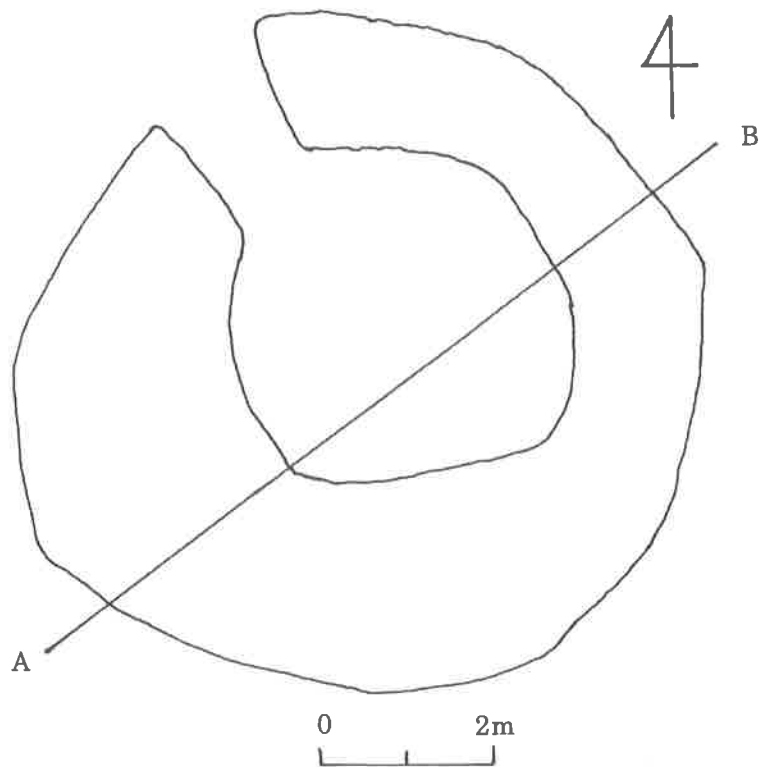
외연도봉수대-서쪽에서(2002. 4. 21)



외연도 봉수대-북쪽에서(2002. 4. 21)



외연도 봉수대 석축 모습(2002. 4. 21)



외연도 봉수대 평면도(상), 단면도(하)

3) 녹도 봉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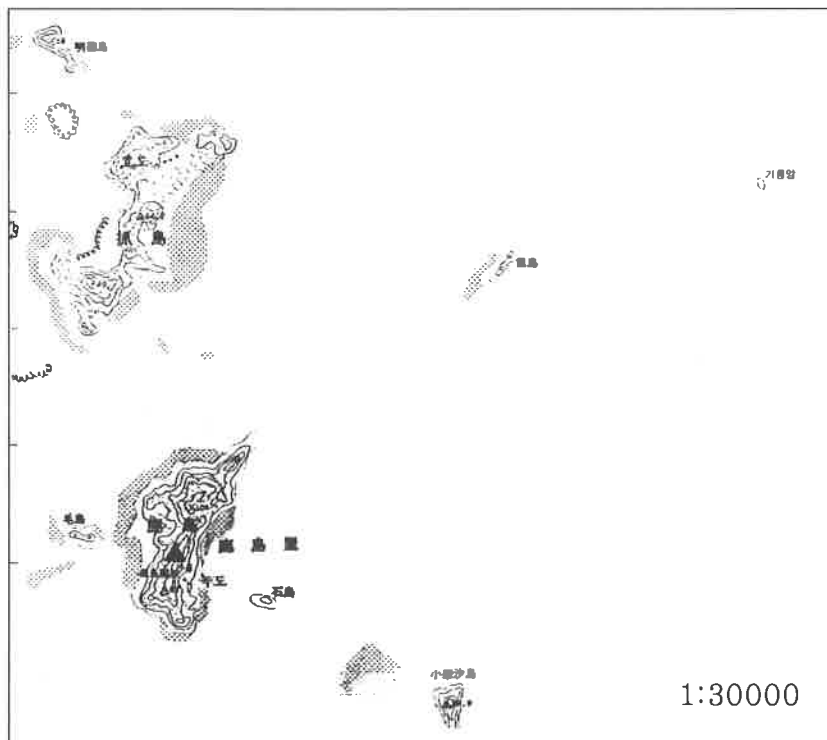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 받아 오천면 원산도리 오봉산 봉수대로 전해주는 봉수대이다. 외연도 봉수대와와 거리는 16.25km, 원산도 봉수대와와 거리는 16.9km이다. 청파초등학교 녹도 분교 바로 뒤에 있는 봉우리(해발 90여m)에 있다.

봉수대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내부에는 동서 7.6m, 남북 9.6m, 둘레 27m 정도의 원형 단을 만들어 봉수대를 축조하였다.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180cm이다. 출입문은 북동쪽에 나 있는데 폭은 1.2m 정도이며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봉수대의 중심부분은 지름 220cm 폭은 흙으로 되어있고 그 주변은 100cm폭으로 직경 10cm 정도의 둥근 자갈이 깔려 있다.

봉수대 밖으로 3~4m 떨어져 석축의 담장이 둘러져 있다. 봉수대를 만든 돌은 모두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다.

봉수대의 서남쪽 6m 떨어진 곳에는 돌로 구획된 5.5m×4.8m 크기의 평평한 공간이 있어 연료를 저장한 공간으로 보인다.

봉수대 주변에는 꾸지뽕나무, 팽나무, 굴거리나무 등이 울창하다.



녹도봉수대의 위치



녹도봉수대(2002. 4. 21)



녹도봉수대(2002. 5. 5)



녹도봉수대(2002. 5. 5)



녹도봉수대(2002. 5. 5)



녹도봉수대의 상부(2002.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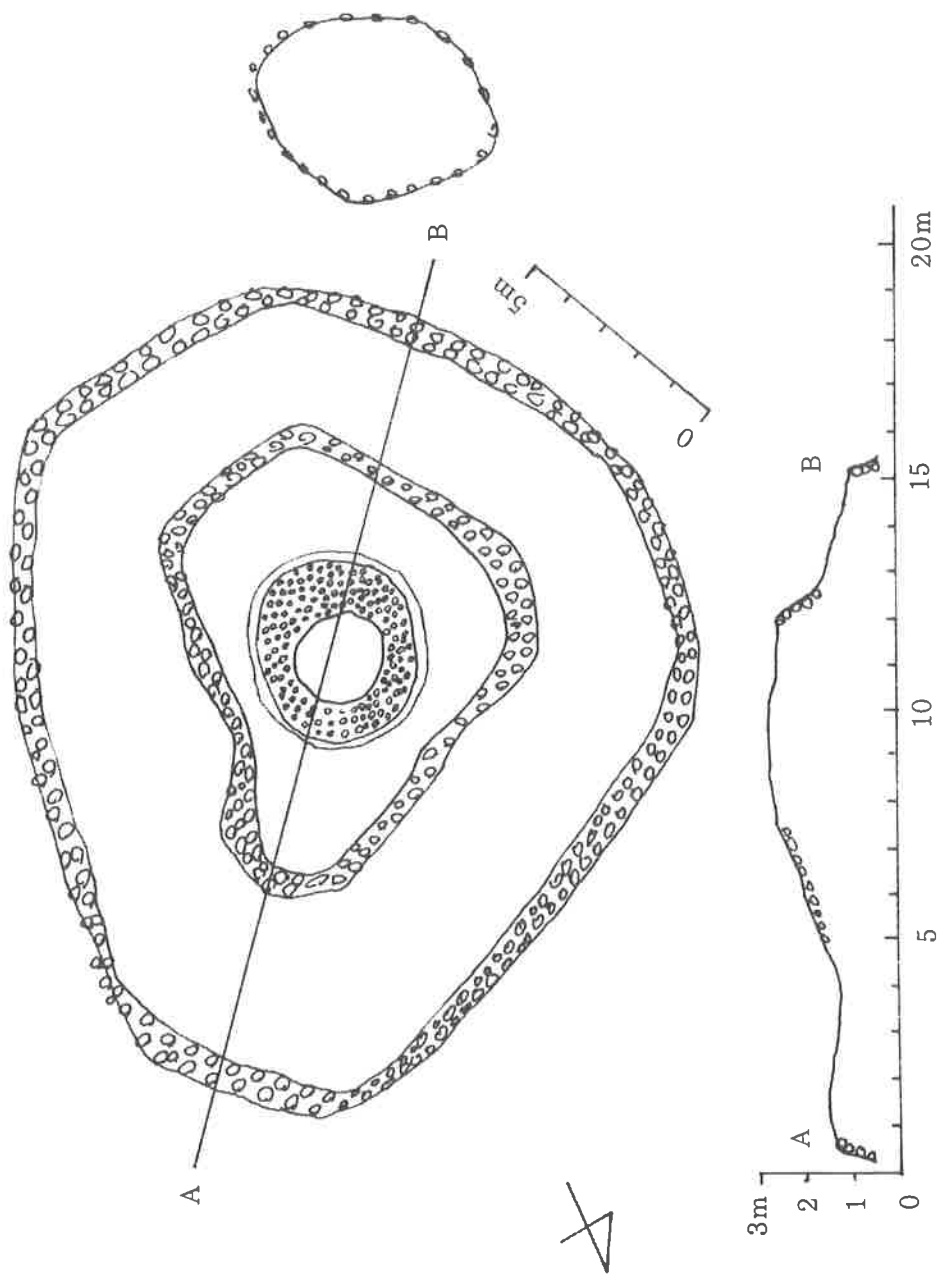
녹도봉수대 상부의 자갈(2002. 5. 5)



녹도봉수대의 주변부(2002. 5. 5)



녹도봉수대의 서남쪽 평지(2002. 5. 5)



녹도 봉수대 평면도(우), 단면도(좌)

4) 원산도 봉수대

녹도 봉수대에서 받아 오천면 영보리 망해정봉수대로 전하던 봉수대이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진촌(鎭村) 마을 서쪽 산봉우리에 있다. 이곳에서 녹도봉수대까지는 16.9km, 영보리 봉수대까지는 12.15km이다.

진촌 마을은 충청수영의 우후(虞侯)가 근무하던 원산진이 있던 곳이다. 진촌 마을의 서쪽 언덕너머에 '관가'라고 불리는 옛 진영(鎭營)이 있던 곳이 있고 이곳 북서쪽 봉우리에 봉수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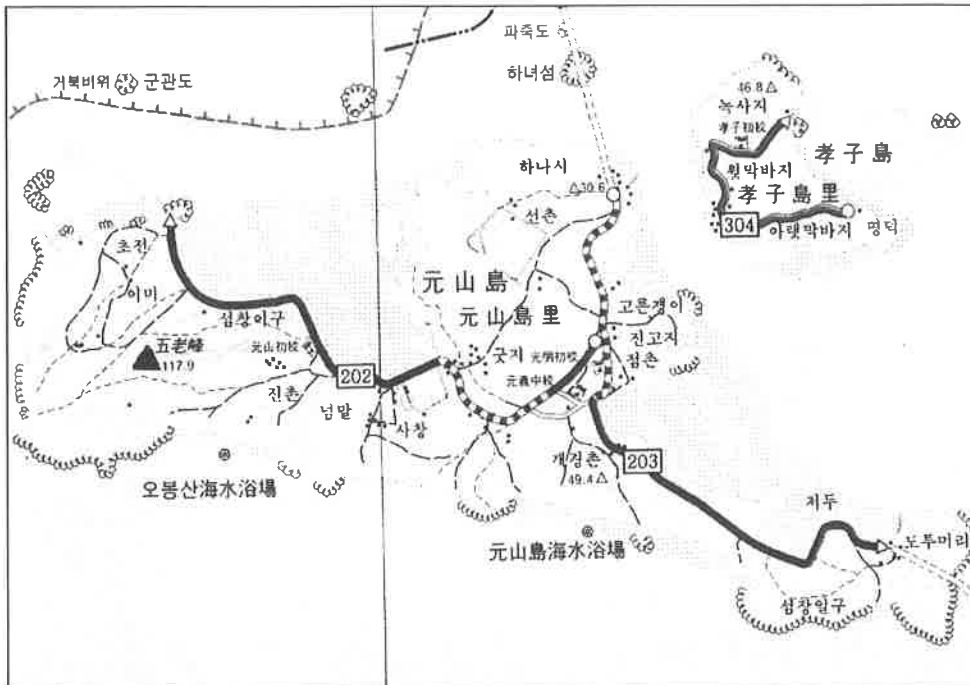
봉수대는 산봉우리의 정상(117.9m)에 있는데 동서지름 730cm, 남북지름 720cm, 둘레 23m이며 원형이다. 둘레는 가로 100cm, 높이 30cm 정도로 잘 다듬은 직사각형 돌을 수직으로 4~5단 쌓았다.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화강암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먼 곳에서 운반해다 다듬어 쌓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흙으로 채웠는데 돌로 된 벽보다 40여 cm 높게 하였다.

석축한 벽의 높이는 가장 낮은 곳이 서북쪽으로 90cm, 높은 곳은 동쪽으로 160cm이다.

봉수대의 남쪽 부분에는 폭 175cm의 문이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게 하였고, 중앙에는 가로 340cm 세로 200cm, 깊이 90cm 정도의 직사각형 구멍을 만들었다. 이 구멍의 북쪽에 석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석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에서 10여 m 폭으로 평지가 이어지고, 이어서 급경사지가 나타나 이곳에도 봉수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 동북쪽 10여 m 떨어진, 급경사지 아래에는 20여 평의 평지가 있어 봉수대에 사용하던 연료를 모아둔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산도봉수대의 위치



원산도봉수대(2003. 4. 6)



원산도봉수대(2003. 4. 6)



원산도봉수대(2003.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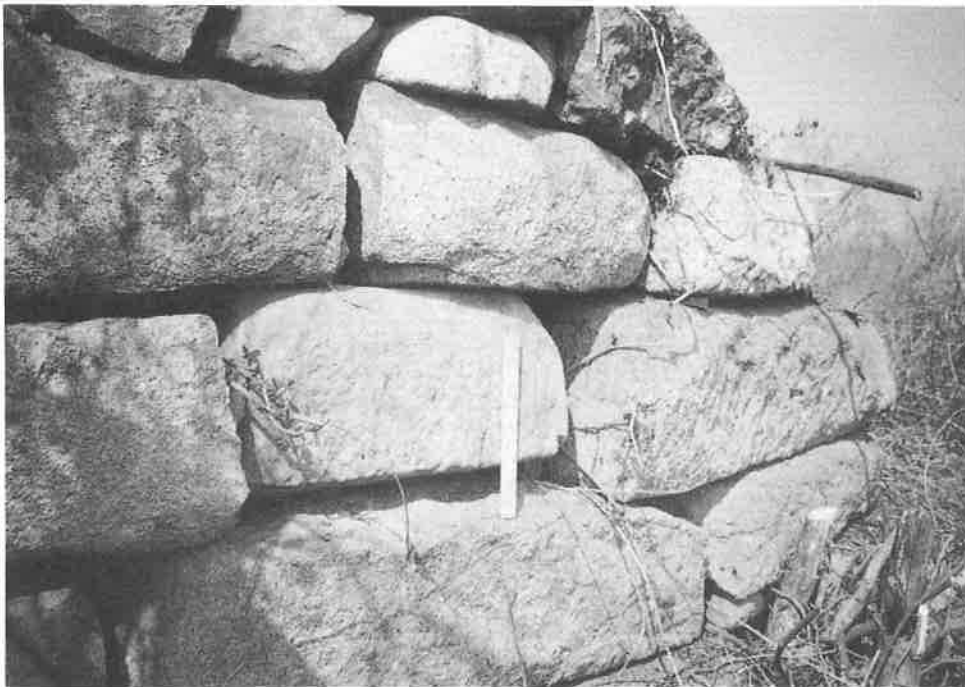
원산도봉수대 남쪽에서(2003.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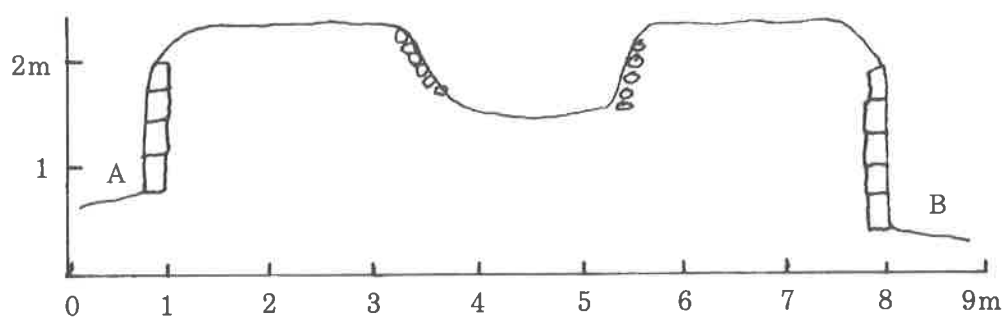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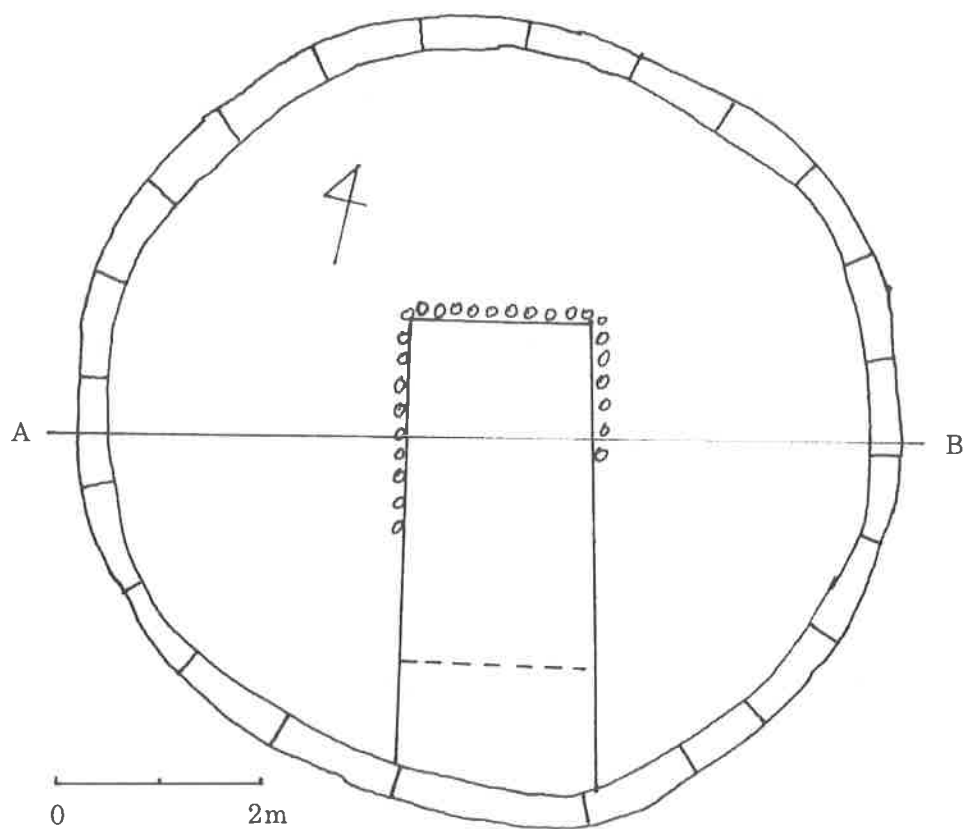
원산도봉수대-중앙부(2003. 4. 6)



원산도봉수대-서쪽에서(2003. 4. 6)



원산도봉수대-서남쪽(2003. 4. 6)



원산도 봉수대 평면도(상), 단면도(하)

5) 망해정봉수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밤까시 마을 남쪽 산봉우리(해발 118.7m)에 있는 봉수대이다. 원산도 오봉산에 있는 봉수대에서 받아 충청수영에 전하는 봉수대이다. 원산도까지는 12.15km, 충청수영 서문까지는 1.27km이다.

충청수영이 내만(內灣)에 깊숙히 있어 원산도 봉수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원산도 봉수대가 바라보이고, 충청수영으로 통하는 뱃길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라 충청수영의 전방 초소 역할을 하던 봉수대이다.

봉수대자리는 큰 웅덩이가 파여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판 것이라고 한다. 웅덩이는 지름 약 10m이고, 깊이 2.5m, 둘레 폭 4~5m이다.

봉수대가 있던 봉우리 남쪽에는 3~4m 폭의 평탄지가 있어 길로 이용된다. 봉수대가 있을 때 삭토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쪽에도 2~3m폭의 평탄지가 보인다.

봉수대지 동쪽에는 넓은 평탄지가 있고, 팽나무가 있으며 조선시대의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 등이 발견되어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군이 거주했거나 연료를 저장했던 공간으로 보인다. 이 봉수대를 망해정(望海亭) 봉수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보아 이곳에 바다를 감시하는 망해정이란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충청수영에서 1,27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충청수영에서 직접 관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해정봉수대-웅덩이 밖의 독(2004. 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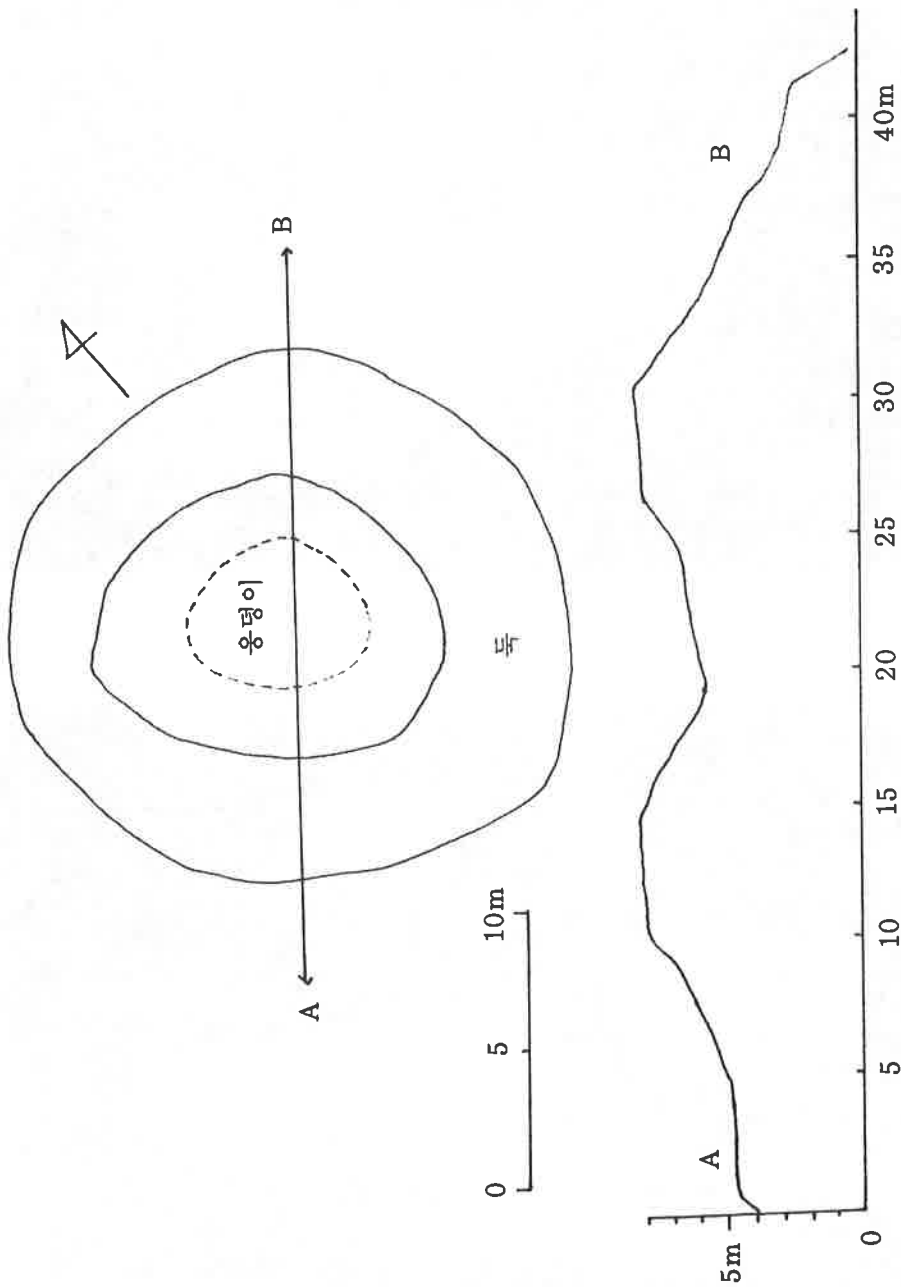
망해정봉수대-남쪽(2004. 3. 14)



망해정 봉수대-북쪽부분(2004. 3. 14)



망해정 봉수대 출토 기와와 그릇 조각(2004. 3. 14)



망해정 봉수대 평면도(좌), 단면도(우)

나. 충청수영 권설봉수에 대한 논의

1) 우리나라 권설봉수와 충청수영 권설봉수

권설봉수(權設烽燧)란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한 봉수대를 말한다.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등에서는 단순히 봉수대 소개나 또한 직봉 간봉의 구분을 통하여 우리나라 봉수제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권설봉수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렇다고 조선 초기에 권설봉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 것이다. 권설봉수에 대한 기록은 김정호가 기록한 『大東地志』에 등장한다.⁴⁴⁾

직봉이 지방의 정보를 중앙으로 신속히 전달하는 임무를 지니고, 간봉은 중앙으로 정보전달의 기능도 가지지만, 지역의 관방체제와 관련하여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직봉으로 연결시켜 중앙으로 전하는 임무를 가진다. 이에 비하여, 권설봉수는 지방의 本鎭·本邑·本營에서 주변의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권설봉수는 중앙으로의 정보전달 기능보다는 지방의 자체적 방어체제 차원의 봉수이며, 지방 군사 방어요충지에 주로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大東地志』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권설봉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전라도에서는 권설봉수인 순천의 성황당(城隍堂)봉수, 광양 건대산(件代山)봉수, 순천 진례산(進禮山)봉수가 직봉인 순천 돌산도(突山島)봉수에 응한다. 홍양 수덕산(修德山)봉수는 직봉인 홍양 장기산(張機山)봉수에 응하고, 강진 수인산(修因山)봉수와 장흥의 억불산(億佛山)봉수, 장흥 정흥사(正興寺)봉수는 직봉인 장흥 전일산(全日山)봉수에 응한다. 진도의 굴라포(屈羅浦)봉수와 상당진(上堂津)봉수는 직봉인 여귀산(女貴山)봉수에 응한다.⁴⁶⁾ 이리하여 전라도 지역에는 10개 處의 권설봉수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권설봉수가 응하는 돌산도 봉수와 전일산 봉수가 있는 곳은 전라좌수영과 수군만호영이 있는 곳이고, 장기산 봉수지역은 홍양 첨사영이며, 진도 여귀산봉수 지역은 금갑도 만호영과 남도포 만호영이 설치된 곳이다.

44) 기존의 연구에서도 권설봉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45) 大東地志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의 봉수조, 대동지지에 나오는 권설봉수 중 충청도 지역의 권설봉수는 다른 기록에는 없으나 전라도 등 다른 지역의 권설봉수에 대하여는 조선초기의 기록에도 일부가 나온다.

46) 이 전라도 지역의 권설봉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에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지역의 권설봉수는 다음과 같다.

고성 당포진의 한배곶(閑背串)봉수, 거제 조라포진 가을곶(柯乙串)봉수, 지세포진의 눌일곶(訥逸串)봉수, 옥포진의 옥림산(玉林山)봉수, 울포보의 등산(登山)봉수, 남해의 원산(猿山)봉수, 고성의 구소을비포별망(舊所乙非浦別望), 거제 가배량별망(加背梁別望), 남해의 미조항별망(彌助港別望), 고성 삼천보별망(三千堡別望)의 10개 처가 있는데, 다만 本邑 本鎭에 보고한다.⁴⁷⁾

경기도 지역의 봉수는 건달산(建達山)봉수, 안산(案山)봉수, 망산(望山)봉수, 말도(末島)봉수, 포을음도(浦乙音島)봉수, 장봉산(長峯山)봉수, 수정산(修井山) 등 7개 處가 있다.

강원도는 감적산(甘績山)산 봉수, 이현(梨峴)봉수, 소산(所山)봉수, 월평산(月?山)봉수, 비파곶(琵琶串)봉수가 있는데, 모두 강원도 병영에 보고한다. 그 외 견라산(堅羅山)봉수 식대산(食大山)봉수 사곶(沙串)봉수 화산(花山)봉수 남산(南山)봉수가 있어 강원도에 10개 處의 권설봉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충청도 지역의 권설봉수도 마찬가지로 충청수영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즉 『大東地志』에 의하면 수영이 있는 곳에 망해정(望海亭)봉수, 원산도에 원산도(元山島)봉수, 외연도에 외연도봉수(外煙島)봉수, 어청도에 어청도(於靑島)봉수가 있다. 그러나 이 4개 處 외에 답사확인 결과 『대동지지』에 기록되지 않은 권설봉수인 녹도에 녹도(鹿島)봉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충청수영이 운영한 권설봉수는 5개 처였음이 확인되었고 모두 충청수영에만 보고한다.⁴⁸⁾ 이 봉수대들의 위치를 보면 모두 바다에서 접근하는 적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충청수영 권설봉수의 위치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는 조선시대는 행정 구역상 홍주목에 속한 도서들이었으나, 충청수영의 관방 체제와 관련하여 충청수사가 관장하던 섬들이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외연도 녹도 원산도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녹도리 원산도리로, 그리고 어청도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 어청도리로 개편

47) 경상도 지역의 권설봉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후기에 설치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48) 大東地志 忠淸道 烽燧條

權設：望海亭 水營 元山島 外煙島 於靑島 洪州 ○右四處只報水營

大東地志 忠淸道 洪州牧 烽燧條：元山島 外煙島卽外安島 於靑島 右三處權設

되었다.

어청도⁴⁹⁾는 뱃길로 군산에서 서쪽으로 72km, 충청수영이 있었던 보령 오천에서 서남방으로 68km 떨어져있는 섬으로 조선시대는 잉분도(荇盆島)로 불리기도 하였다. 외연도⁵⁰⁾는 어청도의 동북방 19km 지점에 있으며, 오천에서 서남방 5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외안도(外安島)로 불리기도 하였다. 녹도⁵¹⁾는 외연도 동북방 16.25km 지점에 있으며 오천에서는 서남방 31km 지점에 있다. 원산도⁵²⁾는 녹도의 동북방 16.9km 지점에 있으며 고려시대는 고란도(高蘭島) 등으로 불렸으며, 오천에서 서남방 12.15km 지점에 있다.

어청도는『大東地志』에〈古使行發船於此〉라 하여 옛날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의 통행로였음을 알 수 있고, 외연도 또한 정몽주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다가 풍랑으로 머문 곳이었다는 기록⁵³⁾이 있으며, 고려시대 高巒島(보령 주교면 솔섬)에서 또는 서산의 海美縣에서 중국으로 사신이 왕래한 사실들⁵⁴⁾을 종합해 보면 수영이 있었던 오천에서 원산도 녹도 외연도 어청도의 바닷길은 과거 서해를 통한 중국 왕래의 길목이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어청도 외연도에는 지금도 중국 濟나라 장수 전횡(田橫)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 섬의 主神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원산도는 고려시대는 삼별초의 내습으로 삼별초 진압을 위해 만들던 배가 파괴되고 선장(船匠)이 살해되기도⁵⁵⁾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목장이 설치되고 수군우후(水軍虞侯)가 나가서 조운선 점검 등을 실시한 곳이고, 濟民倉 軍餉庫 등의 창고가 설치되고, 드나드는 배의 정박처 역할을 한 충청수영

49)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주목 산천조 : 荇盆島周九十里

대동지지 : 於靑島一云荇盆島周三十里地肥沃出猪竹箭有宮室遺止古使行發船於此

50) 동국여지 지 홍주목 산천조 : 外安島一云外安代島在鳴呼島東周三十里出竹箭○已上島俱在
州南海中

대동지지 홍주목 산천조 : 外安島古稱島安周三十里有竹箭

51) 대동지지 홍주목 산천조 : 鹿島龍島吉山島南吉山島狐島南

52) 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조 : 원산도(元山島)는 둘레 40리인데, 바다 가운데 있어서 물과
풀이 모두 넉넉하므로, 국마(國馬) 1백 필을 놓아먹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주목 산천조 : 元山島周四十七里有牧場

동국여지 지 홍주목 산천조 : 元山島在州南海中去岸口里周四十七里南北舟船經由之地有牧場

대동지지 홍주목 島嶼條 : 元山島在保寧水營西南南北舟船泊處水軍虞候自三月至九月入防于此
有濟民倉水營軍餉倉舊有牧場 當癸丑置別將

53) 『湖山錄』, 서산문화원, 1992. P33

54) 앞의 주34 참조

55) 고려사 27권 원종 13년 무진조

56) 주 참조

방어 체제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던 곳⁵⁷⁾이다.

또한 충청수영 방어 체제에 있어서 원산도는 해안 방어의 요해처(要害處)였을 뿐 아니라 지형도 광활하고 토질도 비옥하여 전부터 여러 논의가 鎭을 설치하고자 했던 곳⁵⁷⁾이기도 하다.

이렇게 충청수영에서 서남방으로 바다를 향해서 뻗어내려간 원산도→녹도→외연도→어청도를 연결하는 선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바다를 통하여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왜적을 감시하고, 또한 바다 건너 중국을 경계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조선전기의 왜적 감시 역할이 조선후기에 오면서 그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접근해오는 이양선 등 서양세력에 대한 경계 강화 차원에서 수영의 權設烽燧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⁵⁸⁾

이 권설봉수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신속히 水營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수영 망해정의 전보관계를 가진다.⁵⁹⁾

최종 망해정(望海亭) 봉수의 위치는 답사와 탐문 결과 수영 뒤의 산줄기가 약간 남쪽으로 뻗어 내려간 오천면 영보2리 밤까시 마을의 뒷산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주변 마을에서는 이 산을 ‘봉화산’이라 부르고 이 산을 넘는 고개를 ‘봉오재’로 부르고 있었다. 이 산은 해발 약 110m 정도에 불과하지만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에 형성된 봉우리이기 때문에 내륙 쪽의 전망만 제외하고 전면과 좌우의 전망이 아주 좋다. 수영에서는 남쪽으로 약 1.2km정도 떨어져 있는데 수영을 한눈에 내려다봄과 동시에 바다가 한 눈에 보이고 특히 원산도를 가장 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실 수영이 만입한 곳에 있고 더구나 앞에는 보령시 천북면을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어 외양을 후망(後望)하는 데는 상당한 약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이 망해정 봉수가 있어 수영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깊숙한 만입지에 들어앉은 수영과 외양을 연결해 주어 수영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비변사등록』 숙종37년(1711) 3월 8일조에 공조판서 조태구(趙泰耆)가 아뢰기를

57) 비변사등록 현종 9년(1668) 9월 3일조

58) 조선후기 이양선과 서양세력의 서해 접근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 7월 21일조의 고대도 영국인 표류, 현종12년 6월23일과 7월3일조 그리고 현종 13년 8월9일조의 프랑스인 표류에 대한 기사가 있으며, 원산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구출라파가 들어와 포교하였고 감자를 전해주었던 사실들이 있다.

59) 大東地志에는 이들 봉수대가 다만 수영에 보고한다고 하여 전보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忠淸水營에서 운영하였다는 것과, 현장 답사 확인을 통하여 於靑島→外煙島→鹿島→元山島→水營望海亭으로의 전보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수영의 위치는 그 편의함을 얻어서 비록 하나의 산등성이가 해문(海文)을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연대(煙臺)가 그 위에 있어서 이에 올라 바라보면 서남 대해가 모두 눈 밑에 있고, 연대는 수영성 밖 가까운 곳에 있어 항상 감시하는 곳입니다. 또 원산도와 안면도가 수영 앞에 있으므로 바람이 잔잔한 6개월은 우후가 원산도에 방수하러 들어갔으니...

이로 보면 망해정봉수와 원산도는 충청수영의 방어체제 운영에 있어서 눈과 귀의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봉수대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망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봉수대지 옆에는 비교적 넓은 건물지가 있고 기와편이 발견되는 것과 사방 전망이 좋은 곳이어서 망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는 봉수대지에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일제시대 포대 설치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나 일제시대 여기에 포대를 설치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시기에 오면 공군의 활동으로 산정상의 포대는 노출된 곳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고종·순종실록』 고종38년(1901) 3월 8일조에

칙령 제7호 「연해 지방에 포대(砲臺)를 설치할 건(件)」을 비준하여 반포하였다.【경기의 인천(仁川) 해안,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 강화(江華) 해안, 충청 남도의 당진(唐津) 송도(松島), 보령(保寧)의 전 수영(水營)자리, 태안(泰安) 안흥도(安興島), 전라 북도의 옥구(沃溝), 고군산(古群山), ...

이라 하고 있어 수영 폐지 후 수영자리에 포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바다를 한눈에 보는 수영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였던 이 봉수대를 헐고 여기에 포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기는 수영이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봉수대의 의미는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는 6.25때 만들어진 방공호 구덩이가 상당히 많다.

이로 보면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바다를 감시하는 요충지였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현재는 다른 봉수대지와 같이 구덩이의 유지만 남아있을 뿐이고, 몇몇 마을 사람들 이외에는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문헌에도 거의 소개되지 않는 잊혀진 봉수대로 존재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봉수연구에 있어서 권설봉수에 대하여는 문헌기록이나 현장 확인을 거의 하지 않은 관계로 권설봉수에 대한 연구가 아주 미흡하였다. 충청수영 소속의 도서 봉수인 어청도 외연도 녹도 원산도 봉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살피고 정리한 연구는 거의 없다⁶⁰⁾. 그런데 최근 전북 군산지역의 한 봉수대 조사연구 과정에서 어청도가 현재 군산의 행정구역인 관계로 어청도 봉수가 언급되었는데, 어청도 봉수의 전보관계를 군산 점방산 봉수와 서천 운은산 봉수로 언급하는 경우⁶¹⁾가 생겼다. 이는 충청수영의 봉수운영에 대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어청도와 군산은 72km 거리여서 도저히 전보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그리고 충청서해안 간봉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원산도 봉수를 충청수영 뒤쪽을 지나는 간봉노선 봉수대의 하나인 조침산 봉수대에 응하는 것⁶²⁾으로 살폈는데, 이것도 충청수영의 관방체제와 관련한 권설봉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3) 충청수영 권설봉수의 설치 이용시기

이들 봉수대가 조선전기인『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홍주목 봉수조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확하게 언제 설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청도와 외연도 녹도봉수에 관한 기록이 조선후기『備邊司謄錄』에 등장하고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增補文獻備考』의 기록이 있어 이들 봉수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備邊司謄錄』숙종 33년(1667) 1월 16일조 <外安島 於靑島 鹿島 烽軍 入番弊>에

외안도(外安島)와 어청도(於靑島)는 바다 가운데 있어 멀리 망보기에 편리하므로 일전에 충청감사 조위명(趙威明)이 진(鎭)을 설치하도록 아뢰어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진보(鎭堡)를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곤란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고 복제하였습니다.

60) 충청수영과 이에 관련하여 봉수대를 언급한 연구나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도서지역의 봉수대를 살피고 權設烽燧를 소개한 것은 없다.

金中奎, 「18세기 군산지역 봉수대의 폐지 및 이설에 따른 위치 및 명칭 확인」, 『전국향토문화연구대회논문집』 논문부문 대상(국무총리상), 2002.

申載德, 「충청수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金一來, 「조선시대 충청도 지역의 연변봉수」,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1.

百濟文化開發研究員, 『忠南地域의 文化遺蹟』11 보령시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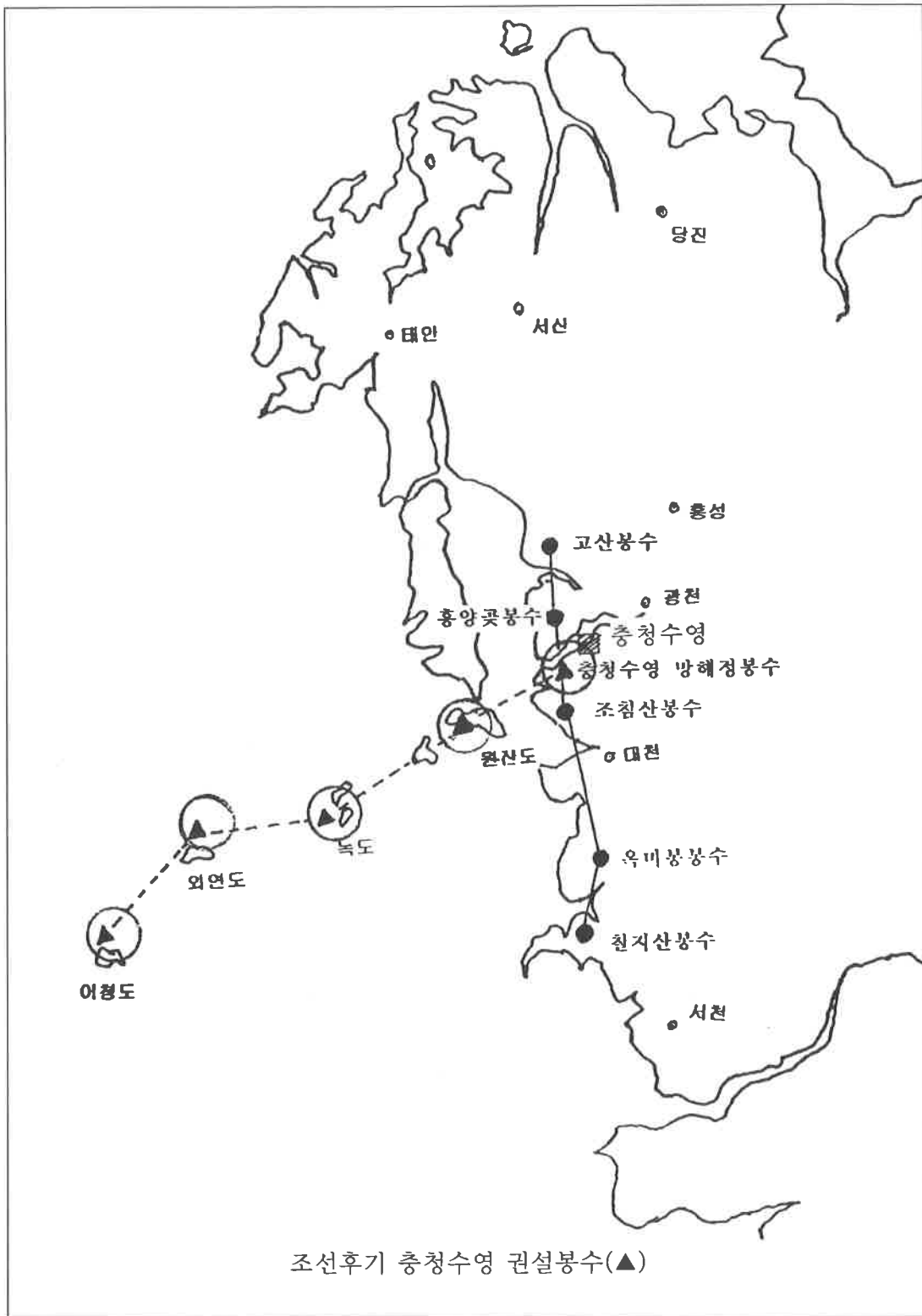
保寧郡 『鰲川城(忠清水營城)地表調査 報告書』, 1990.

忠清南道, 公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보령시편, 1999.

61) 金中奎, 「18세기 군산지역 봉수대의 폐지 및 이설에 따른 위치 및 명칭 확인」, 『전국향토문화연구대회논문집』 논문부문 대상(국무총리상), 2002.11. p54에

◎옥구 어청도 봉수대 봉수노선: 어청도 봉수→군산의 점방산 봉수대와 서천의 운은산 봉수대

62) 金一來, 앞의 논문.p31



그 후 충청수사 이필형(李必馨)의 보고서 중에 이미 20여 호(戶)를 모집하여 두 섬에 나누어 들였으며, 사천(私賤)은 남쪽 진포(鎭浦)의 토졸을 전례대로 그들의 상전(上典)으로 하여금 신공(身貢)만 거두고, 데리고 가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양인으로서 역(役)이 없는 자는 정역시키지 않고, 경작하는 토지도 부세를 거두지 말아서 보존시킬 터전이 되게 하였습니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세는 이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각 고을에서 여유 있는 원래 봉군(烽軍)을 뽑아내어 외안·어청·녹도(鹿島) 등 세 섬에 감관(監官) 2명과 5명의 군인을 충정(充定)하였고, 원산(元山) 해망제(海望齊) 두 곳의 봉군은 군인 1명만을 감원시켜 모두 3번으로 마련하여 들여보내서 망을 보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복계하고 윤허를 받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이어 충청도 사람에게 거행되는 형편을 상세히 듣건대, 봉군이 원래 부실하고 정원수가 여유 있는 곳이 없으며, 원래 정해진 봉수(烽燧)에도 오히려 법대로 횡불을 들지 못하니, 벌써 봉화를 조심해서 하는 뜻이 없거늘 거기에서 봉군을 덜어내어 새로 설치된 먼 절도에 나가게 하여 돌러가며 번을 서도록 한다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두루 여러 고을의 봉군들에게 미치게 되어, 도망하는 자가 잇따르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설치된 봉대(烽臺)가 설혹 망 보는데 유익하다 하더라도 역시 잔폐한 봉군들을 억지로 번에 나가게 하여 보존될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곳 외안도는 아주 먼 섬이어서 만약 적선(賊船)이 출지에 오게되면 도리어 붙잡혀 길잡이가 될 근심만 있으며, 제 때에 봉화를 들어 통보할 형편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봉수란 늘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응할 수가 없으니 폐단만 있고 이익이 없는 일은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안·어청·녹도 등 세 섬에 봉화를 올리고 망을 보게 한다는 일은 즉시 혁파하고, 원산의 봉수만을 그전대로 계속하게 하소서. 또한 다른 곳의 봉군을 덜어내어 번을 서게 한다는 일도 마찬가지로 혁파하고, 수영에서 계획하여 거행케 하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이로써 감사와 수사에게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하라고 하였다.

위 『備邊司謄錄』의 기록에 의하면 충청감사 조위명(趙威明⁶³⁾)에 의하여 어청도·외연도·녹도에 진(鎭)과 봉수 설치 논의가 제기 되었고 이어서, 충청수사 이필형(李必馨)에 의해서 어렵게 봉수대가 설치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63) 趙威明(1640~1685)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675년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다.

水軍節度使爲
差定事鹿島峰燧
別將差定不輕察任
白事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朴永孫準此
壬子四月日
差定

1852년 박영손의 봉수별장 임명장
(자료제공 :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이장 김성룡)

丁卯使

手

道光十一年正月日洪州牧考時印式成
帳內用川面鹿島等五統等二戶
良人朴永孫年三十五歲生本密陽
父良人 奉願
祖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重善
曾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輔音
外祖良人李萬願本慶州
妻金昌史年三十四歲生本金海
父良人 八孫
祖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德進
曾祖通政大夫 明佐
外祖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金聖泰本
妻李昌史年五十三歲生
聯子辛祿年十一歲已生

庚子年

1831년 박영손의 호구단자
(자료제공 :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이장 김성룡)

그러나 육지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봉군 충원과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비변사에서는 어청도 외연도 녹도는 숙종3년(1677) 폐지하고 원산도 봉수만 유지하여 망해정 봉수와 전보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만 본다면 어청도 외연도 녹도는 17세기 후반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폐지되고 원산도 봉수만이 운영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충청도의 도서지역 권설봉수 기록이 조선후기 숙종 이후의 다른 읍지나 지리지 등에 기록이 없다가 오직 19세기 후반의 『大東地志』에만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홍선대원군 때 서양세력과의 수교 통상 거부 정책 과정에서 더욱 바다의 권설봉수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이를 강화시켜 많이 운영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설봉수는 충청수영이 폐지되는 시기까지 계속 기능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서지역의 봉수대를 확인 답사하면서 녹도에서 19세기 녹도 봉수별장을 지낸 밀양박 씨 집안의 녹도봉수대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추론하여보면 어청도 원산도 녹도의 봉수가 비록 숙종 3년(1677)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해도 충청수영에서는 조선 후기 접근하는 서양세력 경계와 조운선 안내 등의 필요성에 의해 계속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녹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6.25 전후까지도 도서지역의 통신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육지나 섬 사이의 연락을 주고받는 데에 봉수대에서 신호를 사용하였다 하니 도서지역의 봉수대야말로 과거에는 도서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신수단이었던 것이다.

4) 충청수영 권설봉수의 특징

그러면 여기서 충청수영의 도서지역 권설봉수의 특징은 무엇일까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도뿐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 등지에서도 지역 요해처(要害處)에서는 자체 정보수집을 위하여 권설봉수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라·경상·경기 등의 지역은 직봉이나 간봉노선의 봉수대가 설치되지 않은 중요 각 진영(鎭營)을 중심으로 그 사각지대에 설치하거나, 진영이나 읍을 연결하는 지점에 권설봉수를 설치하여 鎭營 주변과 감시망과 鎭營간의 연락망으로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좌수영이 있는 5거 직봉노선 봉수인 순천 돌산도봉수(突山島烽燧)는 북쪽에 순천 성황당봉수(城隍堂烽燧) 광양의 건대산봉수(件代山烽燧) 여수의 진례산봉수(進禮山烽燧)를 권설봉수로 하여 순천도호부와 연락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또 5거 직봉노선인 장흥 전일산봉수(全日山

烽燧)는 주변의 강진 수인산봉수(修因山烽燧) 장흥 억불산봉수(億佛山烽燧)와 정흥사봉수(正興寺烽燧)를 권설봉수로 하여 주변 사각지대의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다른 봉수들도 직봉이나 간봉의 봉수대에 1-2개의 권설봉수를 운영하여 주변 사각지대의 정보수집이나 本鎭 本邑과의 연락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⁶⁴⁾

그런데 충청수영의 권설봉수는 서남방의 일직선으로 서해바다 가운데를 향해서 뻗어 내려가면서 설치되어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감시의 그물망을 만들어 놓는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어청도봉수는 동경 125°58' 북위 36°06'에 위치하여 군산에서 서쪽으로 72km, 충청수영이 있었던 오천에서 서남방 68km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봉수대 중 육지에서 가장 外洋으로 나간 지점에 설치된 것이다. 그리하여 충청수영의 권설봉수는 왜구 침입시에는 서해바다를 통하여 올라오는 적을 빨리 포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조선후기 중국 쪽과의 긴장관계나 서양 이양선의 접근 등에 있어서도 이를 빨리 포착하여 충청수군 방어체제와 수도권 방어체제에 있어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편 충청수영 권설봉수는 봉수대간의 거리도 어청도→19km→외연도→16.25km→녹도→16.9km→원산도→12.15km→수영 망해정으로 육지의 봉수대간 거리보다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通望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해무(海霧)로 인한 어려움은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보령지역의 봉수대에 대하여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 그리고 주변 조사 등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보령지역의 봉수대는 전북 군산의 어청도봉수대를 포함하여 모두 13개 處로 확인되었는데, 육지봉수와 도서지역의 권설봉수로 나누어진다. 육지봉수는 8개 處로 全羅左水營이 있는 여수 突山島의 방담진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직봉 5거중 충청도 서해안을 지나는 간봉의 일부에 속하는 봉수대이다. 그리고 권설봉수는 5개 處로 충청수영에서 해양감시를 위하여 섬 지역에 설치하여 조선후기 운영한 봉수대이다. 모두 조선시대 보령지역의 관방체제 구축과 밀접히 관련되어 설치된 것들이었다.

조선초기의 비인 칠지산→남포 덕산→남포 여도점→보령 조침산→홍주 홍양곶의

64) 대동지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의 봉수조 참조

전보관계에서는 여말 선초의 고남포의 웅천천을 중심으로 하는 육군의 藍浦鎭, 그리고 수군의 忠淸右道都萬戶營 설치, 牧場城運營과 관련하여 유례가 드문 1개 현에 2개의 봉수대가 운영된 경우인데, 모두 왜구 침략과 관련된 국방상 요지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여도점의 위치는 기존의 알려진 바와 같이 또는 다른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조선후기의 옥미봉 봉수와 동일한 것이 아닌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와 제석리의 경계에 있는 등경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였던 것이다. 또한 조침산이나 홍양곶은 충청수영의 본영이 있는 곳과 목장설치 지역이라는 요충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어서 조선중기의 비인 칠지산 → 남포 통달산 → 남포 여도점 → 보령 조침산 → 홍주 홍양곶의 전보관계에서도 남포현에 2개의 봉수대가 유지되면서 국방상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이때는 웅천천 하구의 마량진첩사영과 관련하여 비인현 칠지산봉수와 남포현 통달산봉수의 상당히 근거리 봉수대가 유지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충청수영 속진의 폐지·이설 속에서 마량진이 비인으로 이전하면서 웅천천 하구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마침내 보령지역의 봉수대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통합 조정되는데, 바로 옥미봉 봉수이다. 그 동안 2개 處로 운영되던 남포현의 봉수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비인현 칠지산→남포현 옥미봉의 전보거리가 멀어져 유례가 드문 417m 봉우리에 봉수대가 설치되었다. 높은 봉우리의 봉수대는 내륙과 바다를 감시하는 데는 편리하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아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의 봉산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려말의 남포현의 봉수대로 보이는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의 대천리 산성내의 봉수대 유지가 있는데 이는 고려말 고남포의 왜구 침입과 관련하여 고남포 치소와 그 입구인 웅천천 하구를 동시에 감시하기 위한 봉수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포현 지역의 봉수대 운영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봉수대 운영에 있어 직봉은 변방의 정보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지만, 간봉은 정보전달의 임무도 있지만 지역의 관방체제 구축과 밀접히 관련하여 자체적 감시와 정보수집의 기능을 가지는 성격의 봉수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령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충청수영이 위치하여 충청도 지역 해양 방어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이어서 충청수영에서 운영한 권설봉수가 서해의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도서지역 중에서도 바다로 나가는 중요한 요충지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鎭營 주변의 사각지대에 권설봉수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과는 달리, 충청수영 권설봉수는 바다 깊

속한 지역으로 봉수대를 설치하여 外洋감시를 위하여 운영한 점이 특징이다. 즉 어청도 봉수 → 외연도 봉수 → 녹도 봉수 → 원산도 봉수 → 수영 망해정 봉수의 전보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는 바다를 통하여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왜적을 신속히 탐지하는 기능과 함께 조선 후기 급증하는 이양선 등 서양세력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령 도서 지역의 권설봉수 고찰은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이 도서지역 봉수의 전보관계를 충청 수영 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계기도 되었다.

봉수대의 잔존상태를 살펴보면, 육지의 경우는 갑오개혁 이후 우리나라 봉수제도가 폐지되면서 보령지역 봉수대의 기능도 폐지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주민들에 의해 파괴되어 현재는 거의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다. 통달산 봉수는 민묘(民墓)가 들어서서 형태를 전혀 알 수 없고, 덕산 봉수는 흙과 돌무더기가 가시 덩불화 되어있고, 여도점 봉수는 돌무더기를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천리 산성의 봉수대지는 돌무더기화 되었고, 신흥리 봉산의 봉수대지는 형태는 비교적 잘 남아있으나 가시 덩불화 되어 숲 속에 방치되어 있다. 옥미봉 봉수와 조침산 봉수 홍양곶 봉수는 덩불과 함께 어느 정도 형태가 남아있었으나 최근 행정 당국에서 복원하는 사업을 하여 남아있던 원형마저도 파괴된 상태이다.

도서지역의 권설봉수의 경우 어청도봉수대는 인근 군부대에서 관리하면서 잘 보존하고 있고, 외연도 녹도 원산도봉수는 모두 가시덩불 속에 있었으나, 답사를 하면서 가시덩불을 제거하면서 그 원형이 거의 드러났다. 어청도 외연도 녹도 원산도봉수는 육지봉수에 비하여 잔존상태가 원형에 가깝게 아주 잘 남아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섬에서 가장 통망(通望)이 좋은 산의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은 둥근 원형이나 약간의 원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높이는 약 2-2.5m 직경 약 12m 둘레 30m정도의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있고 가운데에 약간의 구덩이를 파고 불을 지피는 시설을 하고있어 도서지역 봉수의 원형을 추론해 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보령지역의 봉수대 상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 일람표를 작성할 수 있다.

보령지역 봉수대 일람

순	봉수대명	위 치	해발 고도	특 징	출토유물	기 록
1	덕산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100m	조선초기 사용, 주변에 돌이 흩어져있음 약간의 흙무더기 흔적		세종실록지리지
2	등경산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180.2m	백제식 산성 내에 있음 돌무더기들이 훼손된 상태 여도점봉수대로 추측	청해파문와편 백자편 시루편 등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3	통달산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182.3m	웅천천 하구의 북안에 위치 한말포대조성후, 민묘 조성 으로 완전 훼손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4	옥미봉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416.8m	충청지역 최고봉에 위치 5개의 봉돈 흔적 복원으로인한 원형 훼손		여지도서 대동지지 등
5	신흥리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277.8m	토축으로 된 원추형 모양 옥미봉 봉수의 보조용으로 추측		기록 없음
6	대천리산성 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241.2m	대천리 산성 내에 있음 고려시대사용된것으로 추측 민묘로 훼손	어골문와편	기록 없음
7	조침산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228.9m	복원으로 원형 훼손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8	홍양곶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202.6m	복원시도하다 중단	청해파문와편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9	망해정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118.7m	한말 포대 설치 흔적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10	원산도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17.9m	원형이 잘 보존됨 다듬은 돌로 석축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11	녹도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90여m	원형이 잘 보존됨 자연석으로 석축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12	외연도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73m	원형이 잘 보존됨 자연석으로 석축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13	어청도봉수 (권설봉수)	전북 군산시 옥서면 어청도리	205m	원형이 잘 보존됨 자연석으로 석축 충청수영 권설봉수 현재 현지 해군부대 관리		대동지지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高麗史

日本書紀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忠清道邑志

大東地志

增補文獻備考

大東輿地圖

靑邱圖

備邊司謄錄

『湖山錄』, 서산문화원, 199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忠南地域의 文化遺蹟』11, 보령시편, 1997.

보령군, 『鰲川城(忠清水營城) 地表調査 報告書』, 1990.

충청남도, 공주대학물관, 『文化遺蹟分布地圖』 보령시편, 1999.

金鎬逸, 『烽燧考』『文耕』17, 중앙대문리대학생회, 1964.

許善道, 『烽燧』, 『韓國 軍制史』, 육군본부, 1968

南都泳, 『봉수제도』, 『서울 육백년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77.

南都泳, 『조선 시대의 봉수제도』, 『고시연구』7월호, , 1978.

南都泳, 『朝鮮 時代 軍士通信 組織의 發達』, 『韓國史論』, 국사편찬위원회, 1981.

陳庸玉, 『한국봉수제도의 현대 통신공학적 분석』, 『한국통신학회 1982,1983학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1983.

許善道, 『近世 朝鮮 前期의 烽燧制(上)』, 『韓國史論叢』, 국민대국학연구소, 1985.

許善道, 『近世 朝鮮 前期의 烽燧制(下)』, 『韓國 史論叢』, 국민대국학연구소, 1986.

方相鉉, 『朝鮮 前期 烽燧制』, 『史學志』14, , 단국대사학회, 1980.

李元根, 『韓國烽燧制考』, 『인문학보』4집, 강릉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李元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下)』,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姜仁中, 『부산 지방의 봉수대 연혁 및 위치고』, 『朴元杓先生回甲記念釜山史論叢』, 1970.

- 孫德榮, 『朝鮮時代 公州地方의 烽燧에 대한 考察』, 공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金一來, 『朝鮮時代 忠淸道 地域의 沿邊烽燧』,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1.
- 金中圭, 「18세기 군산지역 봉수대의 폐지 및 이설에 따른 위치 및 명칭 확인」,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수상논문집』, 전국문화원연합회, 2002.
- 黃義千, 「남포현 치소의 이동에 관한 연구」, 『전국향토문화연구대회수상논문집』, 전국문화원연합회, 1998.
- 黃義虎, 黃義千 「토진곶 목장성 연구」, 『보령문화 9』, 보령문화연구회, 1999
- 申載德, 「충청수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저자 소개

황의호(黃義虎) 1953년생, 대천여고 교감
공주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수료(교육학 석사)

(저서 및 논문)

保寧의 地名

보령의 고인돌

보령의 洞祭

보령지방 석공업의 기원과 발전과정

보령지방 벼루공업의 기원과 발전과정

보령현 치소의 이동에 관하여 외

신재완(申載完) 1957년생, 대천고 교사
공주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졸업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수료(교육학 석사)

(논문)

보령지방 고개에 관하여

보령의 봉수대 외

황의천(黃義千) 1960년생, 대천여고 교사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수료(교육학 석사)

(논문)

남포현 치소의 이동에 관하여

보령지방의 석탑과 부도에 관하여

삼희당 윤석봉 선생과 홍경일기 외

- 발 행 일 / 2004년 12월 일
- 발 행 인 / 대천문화원장 윤병배
충남 보령시 동대동 983-16
전화 (041) 934-3061
Fax (041) 936-3071
- 자료조사 편집인 / 황의호, 신재완, 황의천
- 인 쇄 / 명문당인쇄사
전화 (041) 935-2850, 931-2850
Fax (041) 932-5400

